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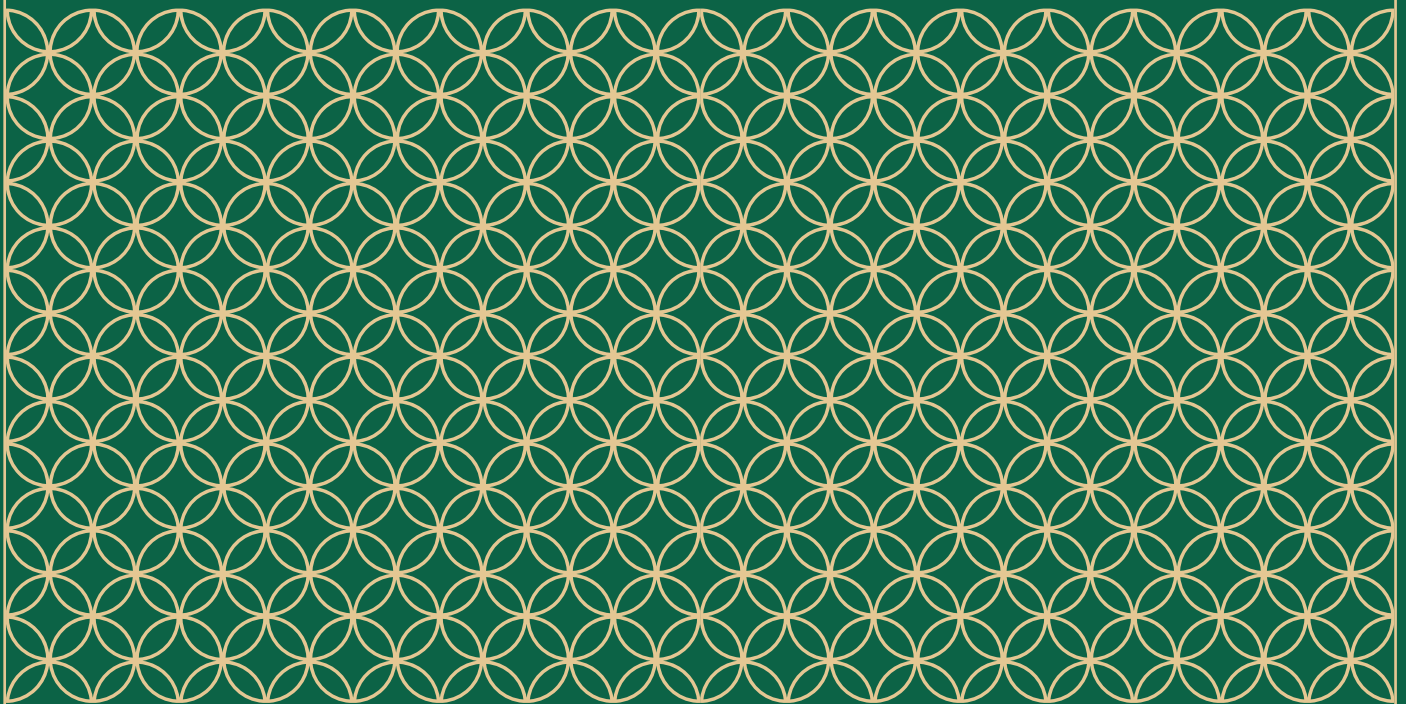
II.

일본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1. 조선 지도 계통 고지도
2. 근세 일본 고지도
3. 19세기 중후반 지도
4. 19세기 말 일본 정부 공식 지도
5.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시마네현 지도
6. 동해 표기 관련 지도

1.

조선 지도 계통 고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1

『조선국지리도』 내 팔도총도

『朝鮮國地理圖』, 八道總圖

제작자 구키 요시타카(九鬼喜隆)
 발행연도 1592년(추정)
 크기 50×36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을 침략하고자 구키 요시타카에게 명령을 내려 제작한 것이다. 조선 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국지리도』의 「팔도총도」에도 주요 산과 하천, 도서, 도(道)와 바다의 명칭 등 간단한 정보만을 나타내었다. 하천과 바다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산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색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약간 북쪽에 표시한 점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차이가 난다. 독도는 조선에서 제작한 「팔도총도」에서와 같이 울릉도 좌측에 그려졌으며, 명칭은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02

『조선국지리도』 내 강원도

『朝鮮國地理圖』, 江原道

제작자 구키 요시타카(九鬼喜隆)
 발행 연도 1592년(추정)
 크기 50×36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자 구키 요시타카에게 명령을 내려 제작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도인 『동람도』의 「강원도」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각 군현의 위치와 진산의 표현 등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단지 산지와 하천, 바다 등을 채색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강원도의 남동쪽에는 현재 경상북도 소속의 울진과 평해가 나타나 있다. 그 동쪽 바다에는 『동람도』의 「강원도」에서와 같이 독도와 울릉도가 가로로 긴 모양으로 표현되었고,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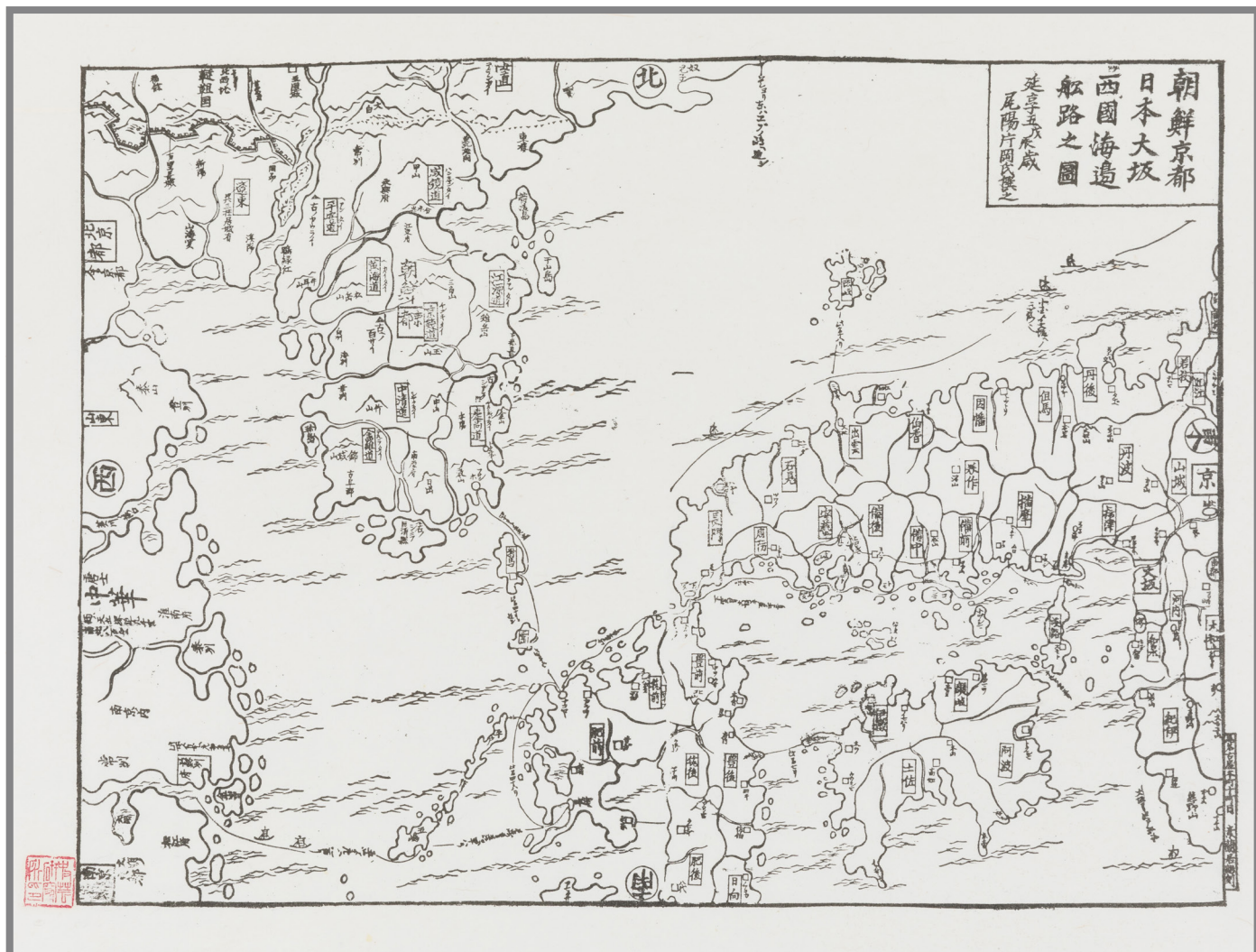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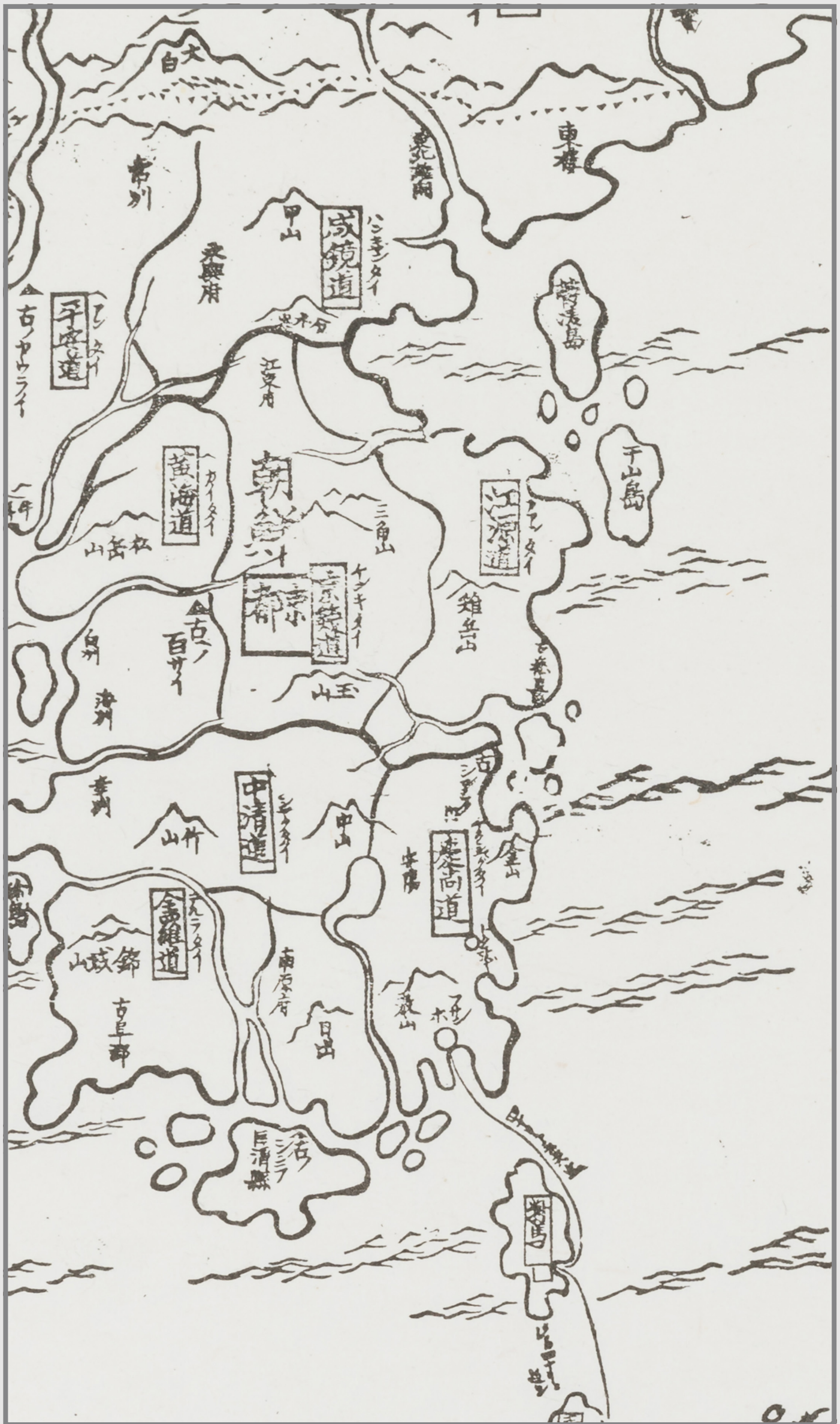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

朝鮮京都日本大坂西國海邊航路之圖

제작자 오아키라 가타오카(尾陽片岡)
 발행연도 1748년
 크기 64.5×49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는 항로가 그려진 지도로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 일부와 일본 서남부가 그려져 있다. 지도의 사방에는 동서남북 표시가 있고, 바다에는 물결과 선박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조선과 일본의 오사카,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항로가 표시되었다. 당시 조선과는 쓰시마가, 중국과는 나가사키가 대외 창구 역할을 했다. 육지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도로망 등이 간단히 표현되었다. 조선의 형상은 부정확하며, 행정구역을 팔도로 구분하여 도의 명칭을 적었는데 충청도는 중청도(中淸道)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실제의 위치보다 한반도 쪽에 가깝고, 강원도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로 울릉도 동남쪽에 그려졌고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04 청조일통지도

清朝一統之圖

제작자 세이타이엔(靑苔園)
 발행연도 1835년
 크기 62x67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는 청나라 진송정(陣松亭)의 지도를 필사한 중국 지도이지만, 조선을 비롯하여 일본과 인도까지 함께 그려져 있다. 조선의 형상은 조선 전기 수준의 지도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며 특히 북방의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왜곡이 심하다. 지도에는 주요 산과 물줄기, 취락 명칭 등이 간략히 기재되었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 조선국에는 백제, 신라, 고려 등 여러 시대의 국명이 혼재하며, 팔도의 명칭을 살펴 보면 경상도를 개성 옆에, 충청도와 평안도를 강원도에 기재하여 혼란스럽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조선 영역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었다. 울릉도는 강릉 동쪽 바다에 나타나 있으며, 독도는 그 위에 그려져 있고 자산도(子山島)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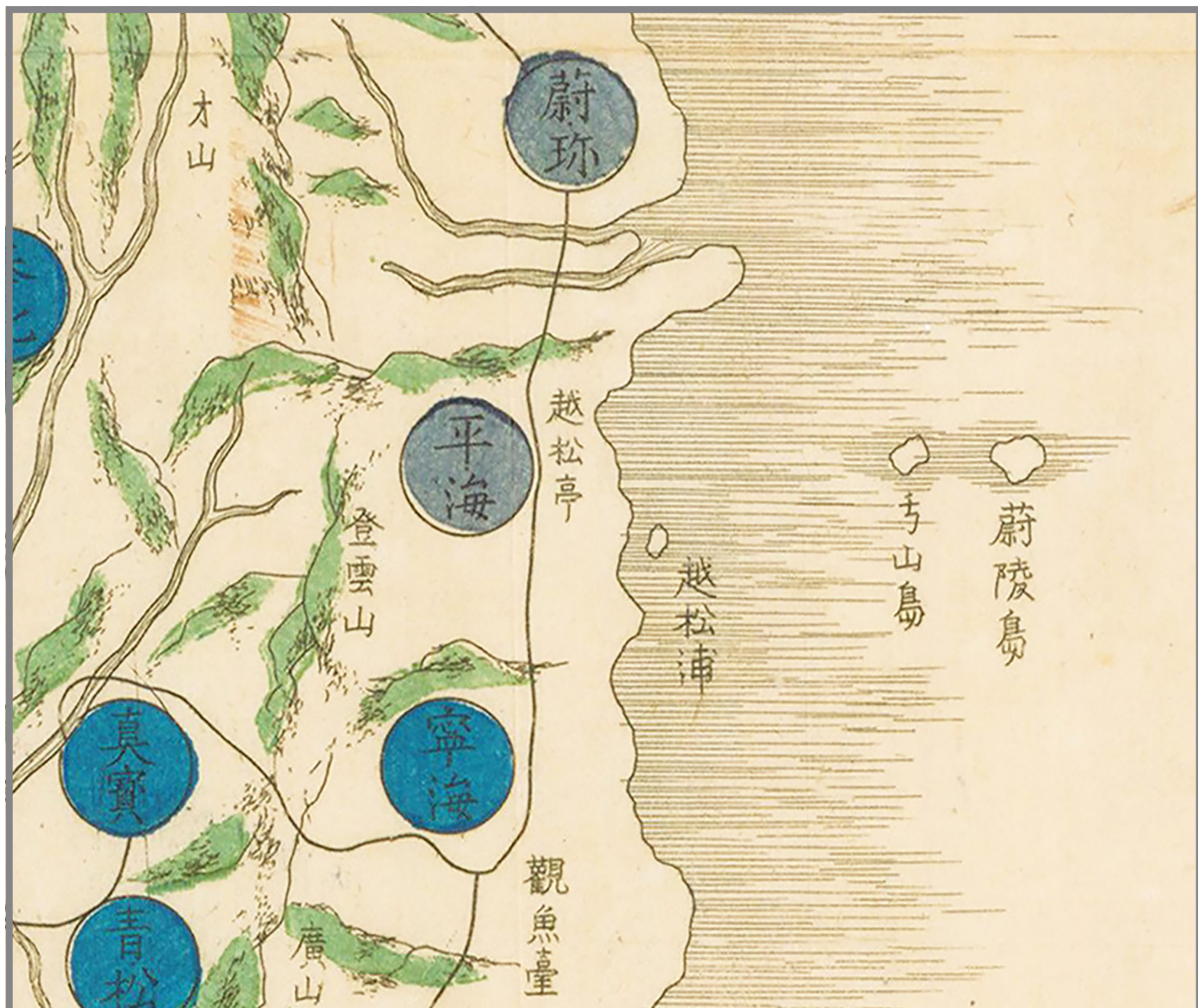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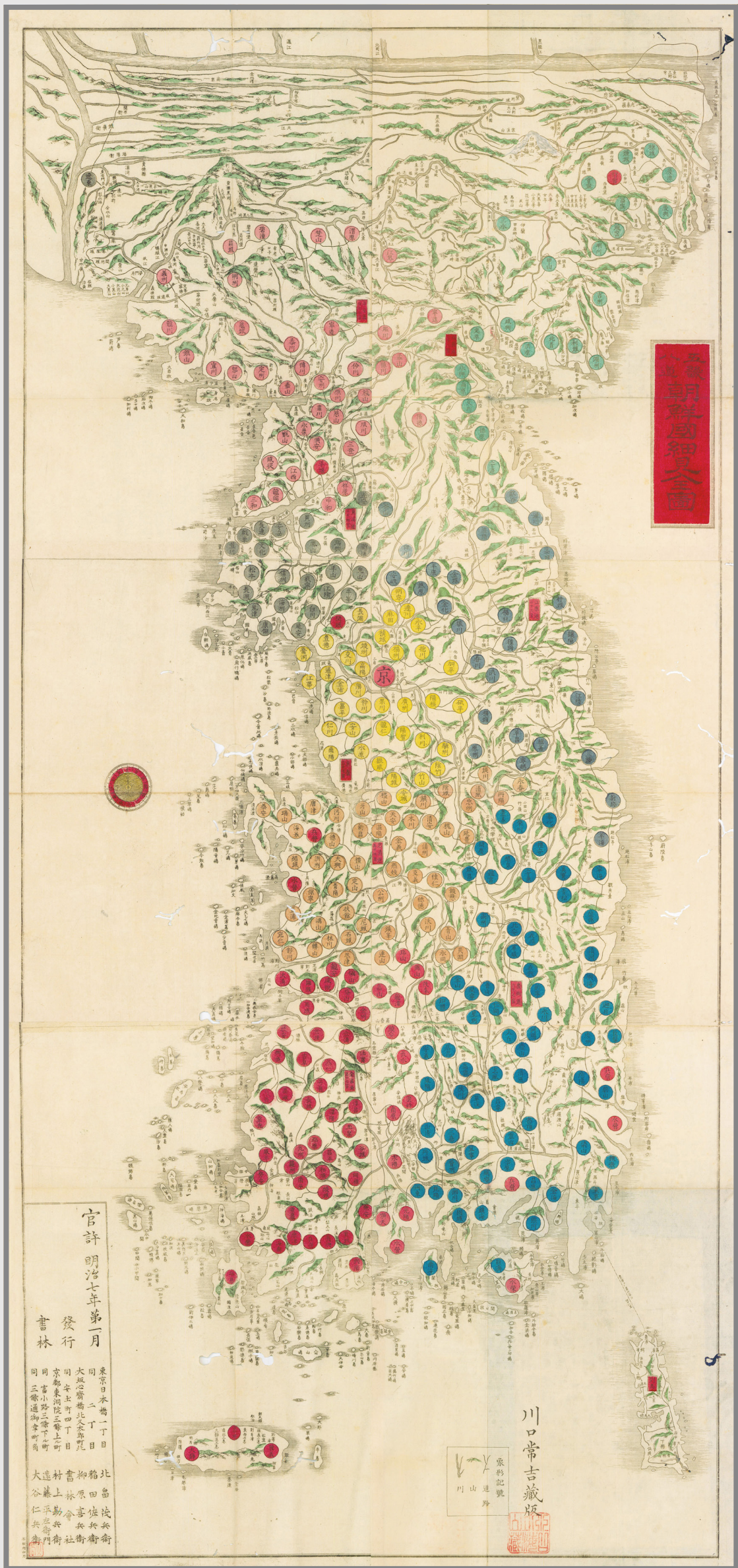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

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

제작자 가와구치 쓰네테요시(川口常吉)·이시다 교쿠진(石田旭山)
 발행 연도 1874년
 크기 47.3×98.5cm
 소장처 독도재단

이 지도는 조선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북방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이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의 지역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지도로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가 1873년에 제작한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가 있는데, 이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이 더 길게 표현되었다. 지도에는 조선의 산줄기와 물줄기, 교통로, 고을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으며, 고을은 도에 따라 오방색으로 구분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에서와 유사하게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섬으로 그려져 있으며, 독도의 명칭은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朝鮮國細具圖

官許 明治七年第一月
 發行 書林
 東京日本橋一丁目
 同 大板心齋橋北金路尾
 同 安土町四丁目
 同 京都東洞院三條上町
 同 富小路三條下町
 同 三條通御堂町角
 北 備後兵衛
 同 柳原兵衛
 同 村松兵衛
 同 大遠平兵衛
 同 谷藤兵衛
 同 仁兵衛

川口常吉藏版

家形記號
 川山 川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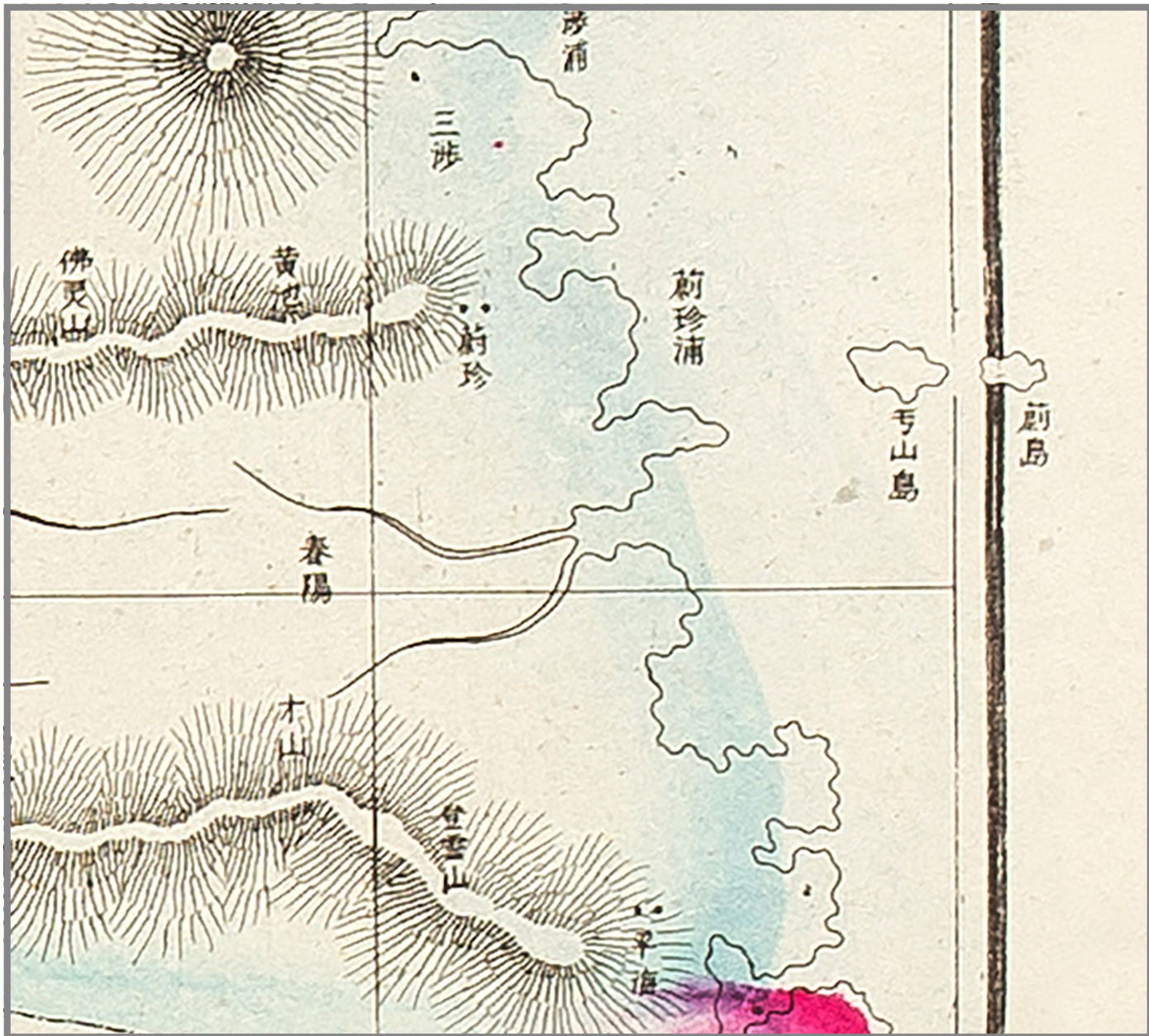
06

조선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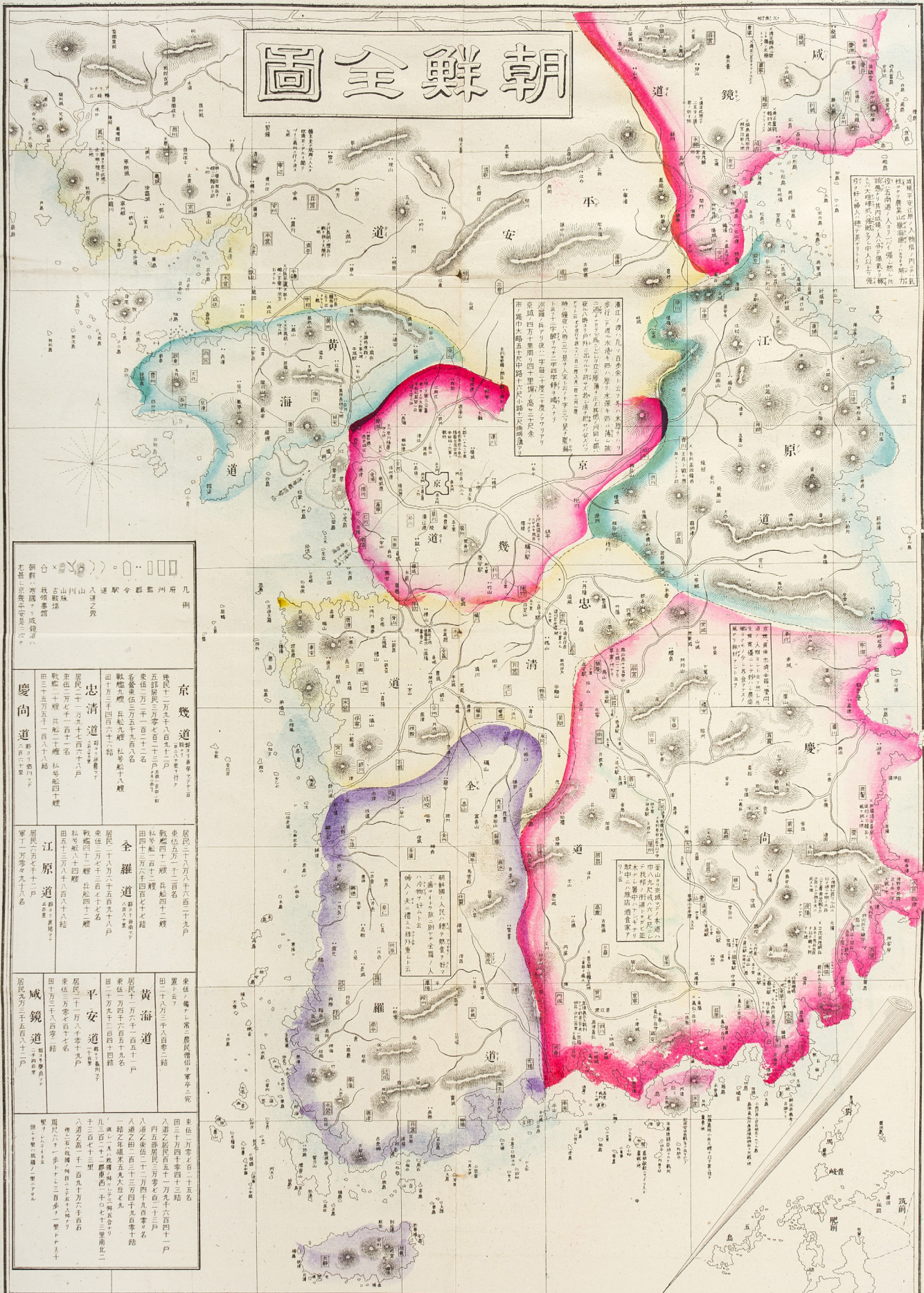
朝鮮全圖

제작자 미야모토 오키아키(宮本興晃)
 발행연도 1894년
 크기 34×49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형상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조선 전도에서와 유사하여 남북의 길이는 짧고, 동서의 폭은 길다. 팔도의 경계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구분했으며, 각 도의 네모 박스 안에는 조선인과 지역 주민들의 기질, 지리적 특색 등이 기재되었다. 지도에는 조선의 산지와 하천, 군현의 위치와 명칭, 역 등이 표시되었다. 동해의 울진 앞바다에 그려진 울릉도는 울도(蔚島)로 표기되었고, 독도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졌으며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두 섬의 위치는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와 유사하나, 섬의 크기는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와 달리 독도가 울릉도보다 크게 그려졌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저자가 조선 전기의 자료에 의존한 결과이다.



朝鮮全圖



<p>凡州郡縣令都監州府九 入道之界 山川山脈 古戰場 五嶽 朝鮮之京城平安定都</p>	
<p>京畿道 居民五十八萬八千八百二十九戶 東征五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四十二萬七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五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五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四十二萬七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五萬九千八百九十一戶</p>	<p>忠清道 居民二十七萬九千七百六十八戶 東征三萬九千七百六十八戶 戰前二十萬九千七百六十八戶 私營地三萬九千七百六十八戶</p>
<p>江原道 居民六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四萬九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p>	<p>全羅道 居民二十八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三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二十三萬九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三萬九千八百九十一戶</p>
<p>黃海道 居民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p>	<p>平安道 居民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p>
<p>咸鏡道 居民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p>	<p>濟南道 居民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東征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戰前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 私營地一萬九千八百九十一戶</p>

郡太治橋高 地離六廿日一明石東區橋本 所繪者 覽典水宮 地離十日四町門三路田 者行製刷印兼者 行發日八十二月同年同 刷印日二十二月六年七十二治明

07 조선국전도

朝鮮國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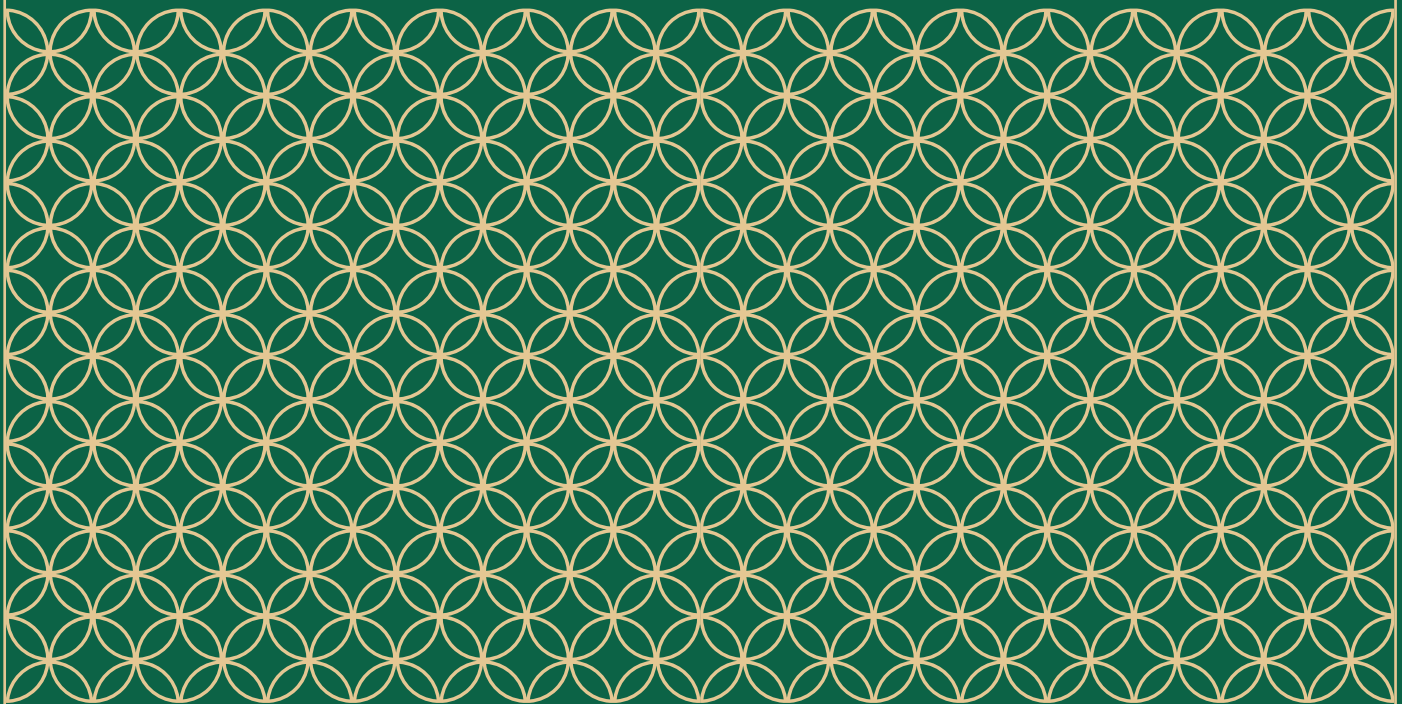
제작자 마쓰모토 돈(松本屯)
 발행연도 1894년
 크기 41×47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는 조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을 팔도로 구분하여 다른 색으로 채색했으며 산지와 하천, 도서, 주요 도시와 도로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부산, 인천, 원산에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항로와 해리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 좌측 하단에는 경성에서 주요 도시까지의 이정표가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와 동일하게 갈색으로 채색되었으나 위치와 명칭이 혼란스럽다. 울릉도를 그린 섬 아래에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가 표기되었고, 그 서쪽에는 작은 섬 모양을 그리고 우산도(于山島)라고 표기하였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그려졌으며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저자는 조선의 자료에 의존하여 지도를 완성했지만,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는 조선의 그것과는 다르다.



2.

근세 일본 고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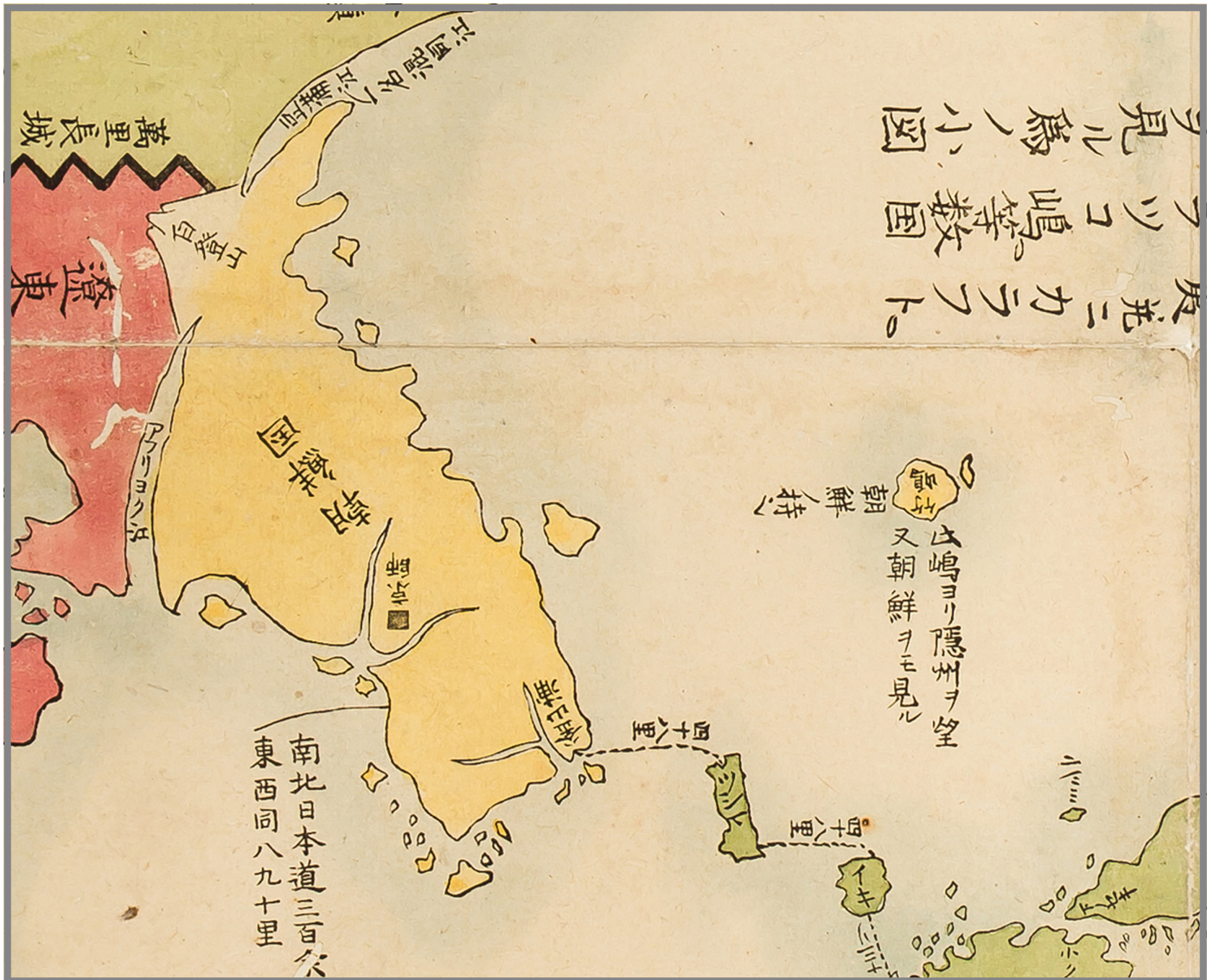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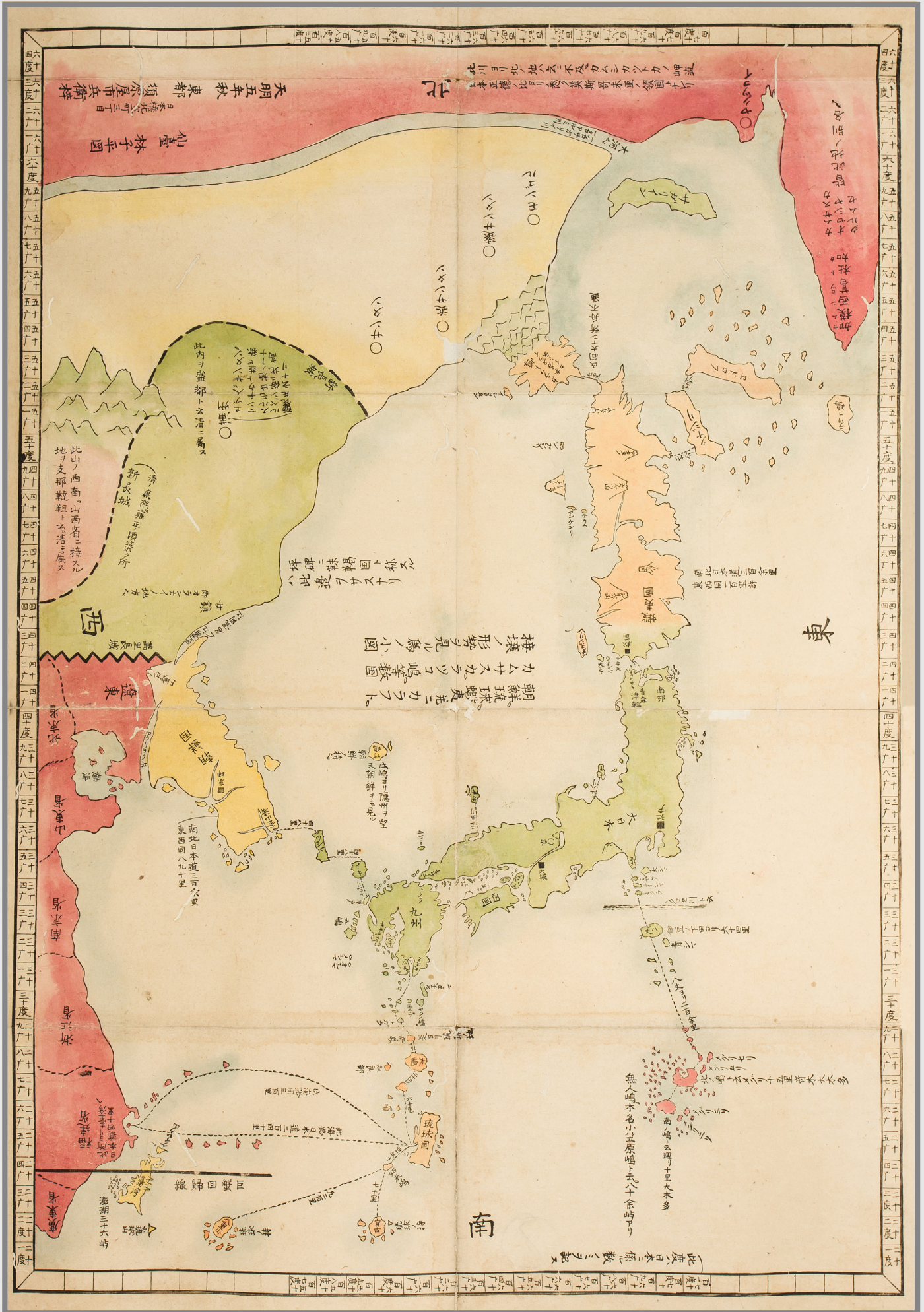
『삼국통람도설』 내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三國通覽圖說』, 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제작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발행 연도 1785년
 크기 52.5×79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하야시 시헤이는 1785년 『삼국통람도설』이라는 경세서, 지리서를 완성하였다. 책 제목에서 삼국은 일본과 인접한 조선, 유구(琉球), 하이국(蝦夷國)을 가리킨다. 이 책에는 부도로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유구전도」, 「무인도지도」, 「조선국전도」, 「하이국전도」 등 5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에서는 국가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으로 채색을 다르게 하였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조선 영역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었다. 울릉도는 일본에서 호칭했던 죽도(竹島)로 표기되었고 그 좌측에 ‘조선의 것(朝鮮ノ持也)’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울릉도 아래에는 일본의 북서 경계를 나타내는 글귀가 있다. 울릉도 우측에 표현된 작은 섬은 독도이지만, 명칭 표기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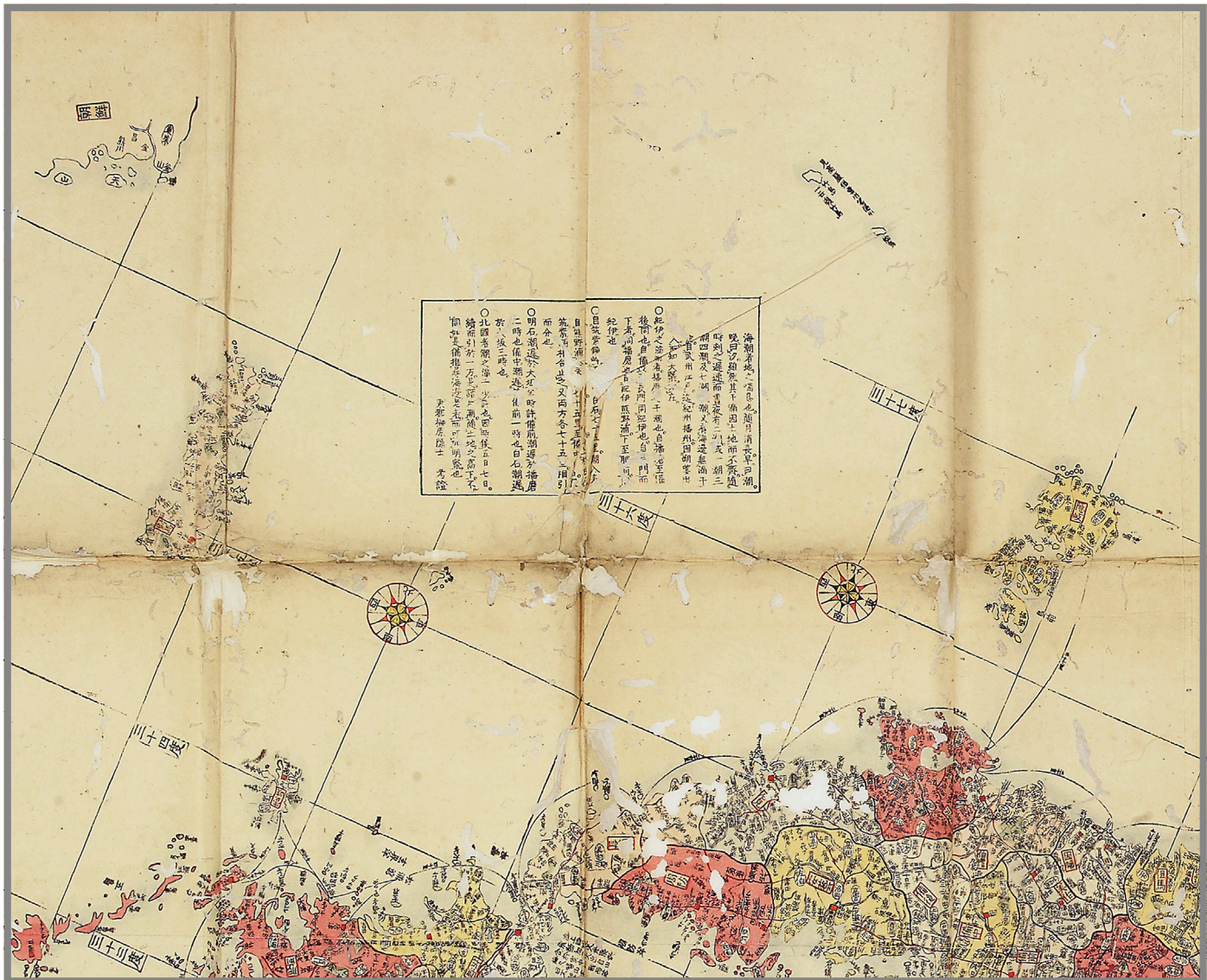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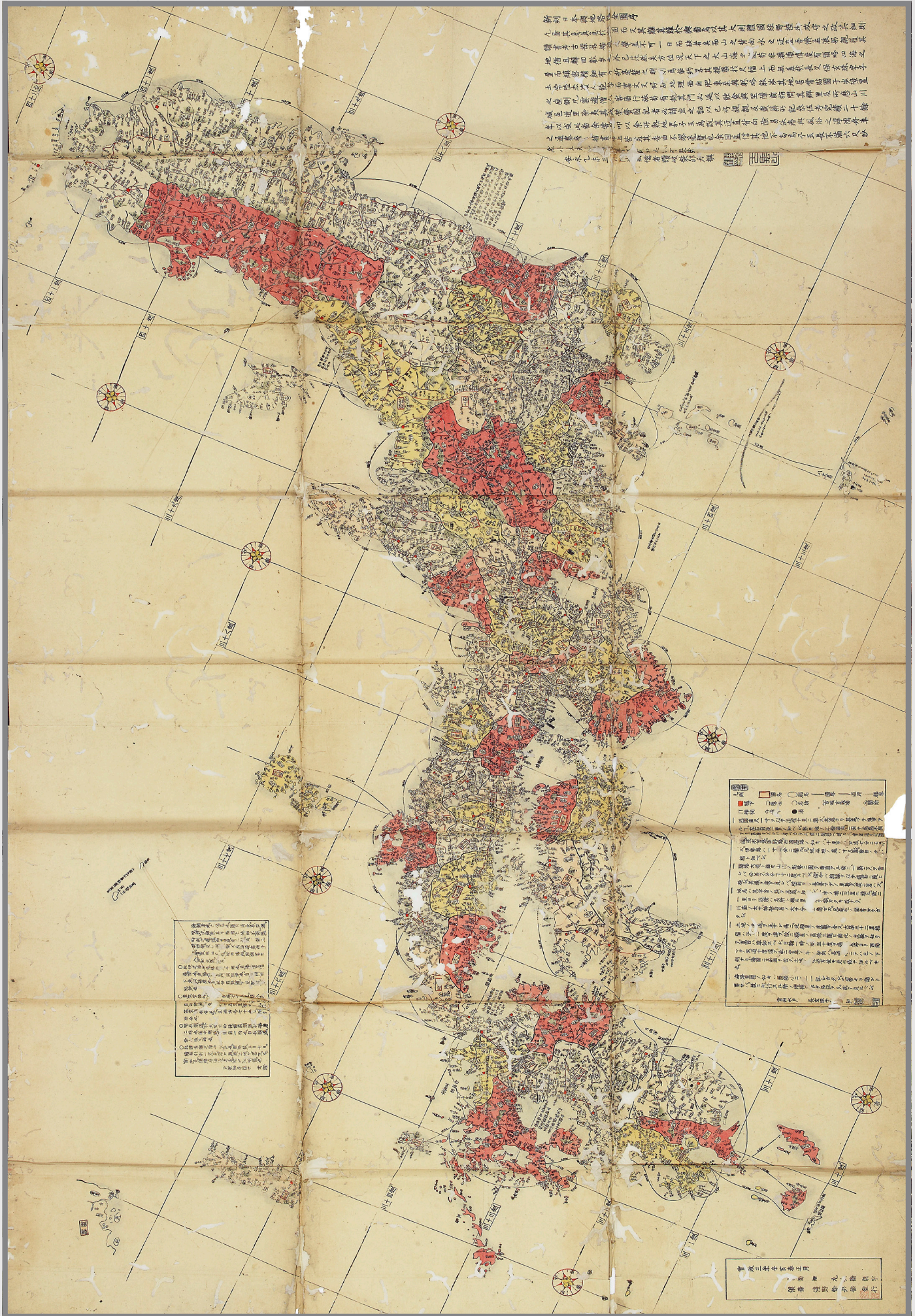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발행연도 1791년
 크기 130×83.5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에도(江戶) 시대 후기에 활약했던 농민 출신의 지리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지도 제작에 매진하여 1760년대에 처음 제작한 일본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오키제도(隱岐諸島) 북서쪽의 울릉도에는 '죽도(竹島) 일운 기죽도(一云磯竹島)'라고 표기하였고,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두 섬 옆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있다. 이것은 오키섬의 지지를 기술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보이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은주(隱州, 지금의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이후 후속 판본으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제1판이 1779년에, 가장 자세한 제2판이 1791년에 간행되었다. 이 지도는 1801년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별세한 이후에도 19세기 후반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간행되어 민중의 지리 인식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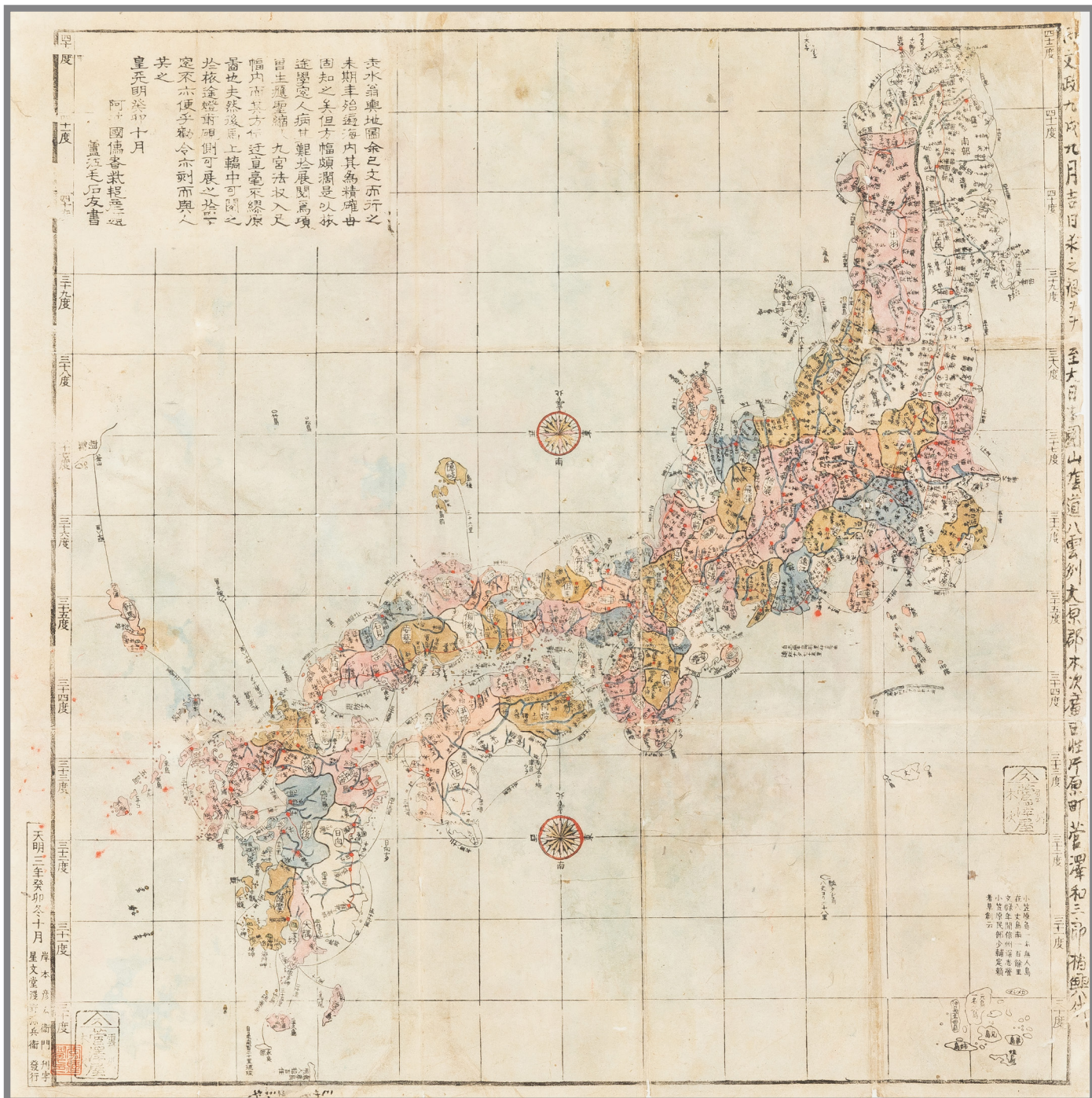
10

중전일본여지전도

重鐫日本輿地全圖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발행연도 1783년
 크기 52.4x54.2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는 일본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과 서양의 지도 제작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홋카이도는 제외되었고 오가사와라제도도 포함되었다. 방위와 경위선을 사용했으며, 일본의 각 지역은 경계선과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다. 지도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교통로, 도시, 해로 및 거리 등을 나타내었다. 혼슈의 서북쪽에는 조선의 부산 일부와 울릉도, 독도가 그려져 있지만, 일본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다. 부산과 쓰시마 및 기타큐슈 사이에는 해로와 거리를 표시하였다. 동해상의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의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一亦行之
 而精確由
 固是以旅
 辰閱為項
 公叔入足
 宅不繚原
 于可閱之
 辰之於學
 而與人
 不報無返
 石友書

四十一度

三十九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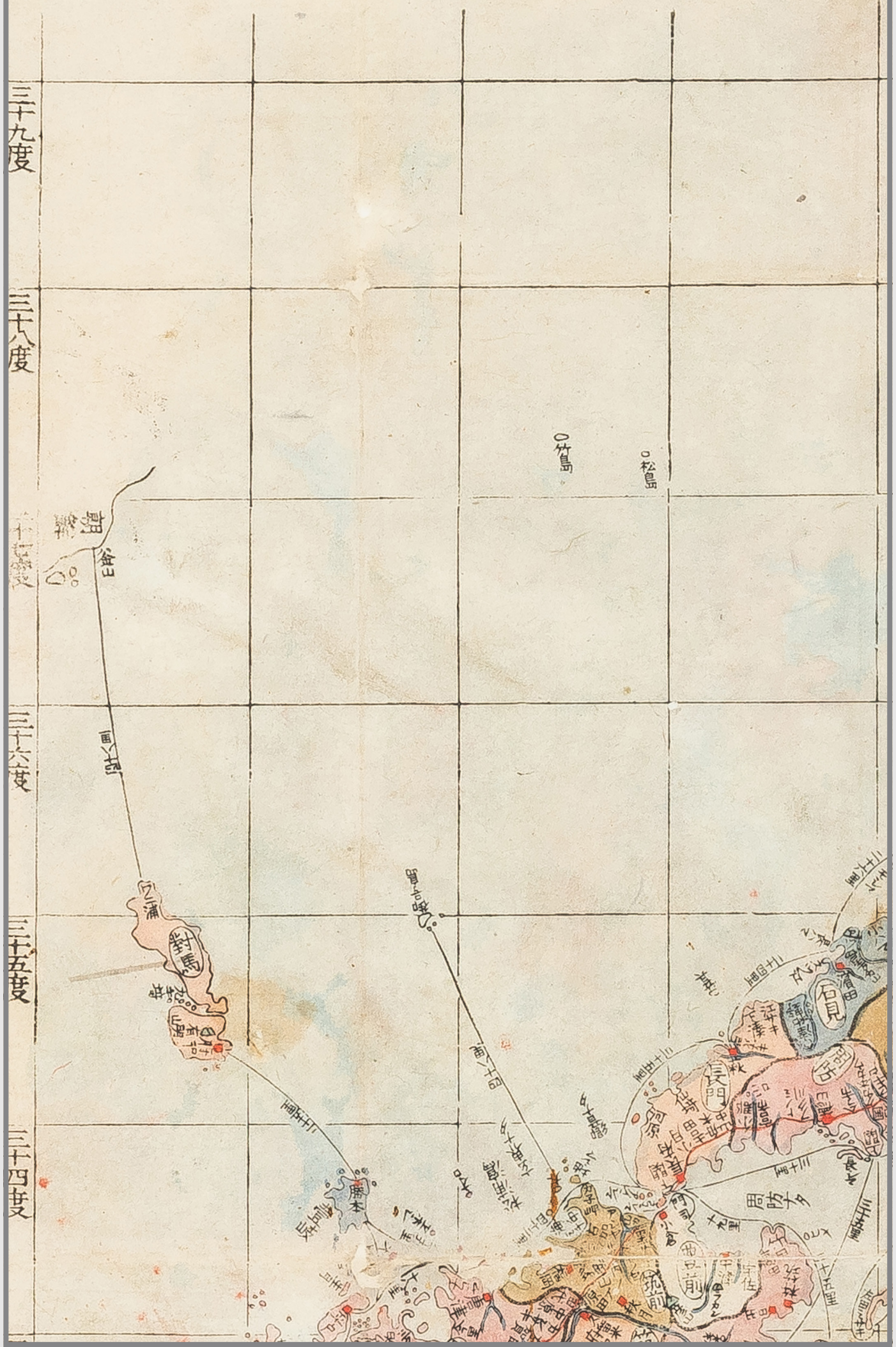
三十八度

三十七度

三十六度

三十五度

三十四度



11

대일본국군여지전도

大日本國郡輿地全圖

제작자 다카시바 에시산유(高柴英三雄)

발행 연도 1849년

크기 144.1×72.1cm

소장처 독도재단

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바탕으로 완성했지만, 내용의 정확성은 후퇴한 모습이다. 지도의 형상은 원도와 달리 남북의 길이가 짧고, 규슈와 시코쿠는 실제보다 크게 제시되었다. 위선도 북쪽으로 1도 어긋나 있다. 지도 상단에는 에도에서 전국 각지까지의 이정(里程) 일람표가 있다. 전국 각 지역을 쿠니(國)별로 구분하였고 산지와 하천, 도서, 지역 명칭 등이 비교적 상세하다. 원도에서와 달리 울릉도는 북위 37도 아래에 그려져 있고 죽도(竹島)로 표기했으며, 독도는 울릉도 북쪽 37도 위에 그려져 있고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원도에서 울릉도 옆에 기재되어 있던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는 생략되었다.





12

대일본국군여지로정전도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제작자 스즈키 기엔(鈴木驥園)
 발행 연도 1852년
 크기 186×104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원도로 하여 증정(增訂) 개정한 대형 일본 지도이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와 달리 경위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의 범위는 동일하며, 항로와 자연 및 인문 지명이 풍부해졌고, 명승과 고적은 기호로 나타내어 보다 대중적인 일본 지도가 되었다. 원도에서와 같이 동해상의 울릉도는 '죽도(竹島) 일운 기죽도(一云磯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울릉도 옆에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도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이는 오키섬의 지지를 기술한 1667년의 『은주시칭합기』에 보이는 내용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13

대일본해안전도

大日本海岸全圖

제작자 세이켄 겐오(整軒玄魚)

발행 연도 1853년

크기 71.9×51.2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관허(官許) 지도로 일본 전역을 쿠니(國)별로 구분하였으며, 해안 지역의 명칭을 중점적으로 기재하였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이 지도는 세키스이(赤水)의 원고를 사용해 해안 선로(船路)의 방위(方位)를 정하여 조금 거리를 적어 놓고 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저자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바탕으로 이 지도를 만들었으나, 원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내용도 간략하다. 지도 여백에는 에도에서 제국(諸國)까지의 해상 이수(里數)가 표시되어 있다. 오키제도의 북서쪽 바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으며 각각 다케(竹)와 마쓰(マツ)로 표기되었고, 두 섬 옆에는 『은주시청합기』(1667)에 나오는 글귀(여기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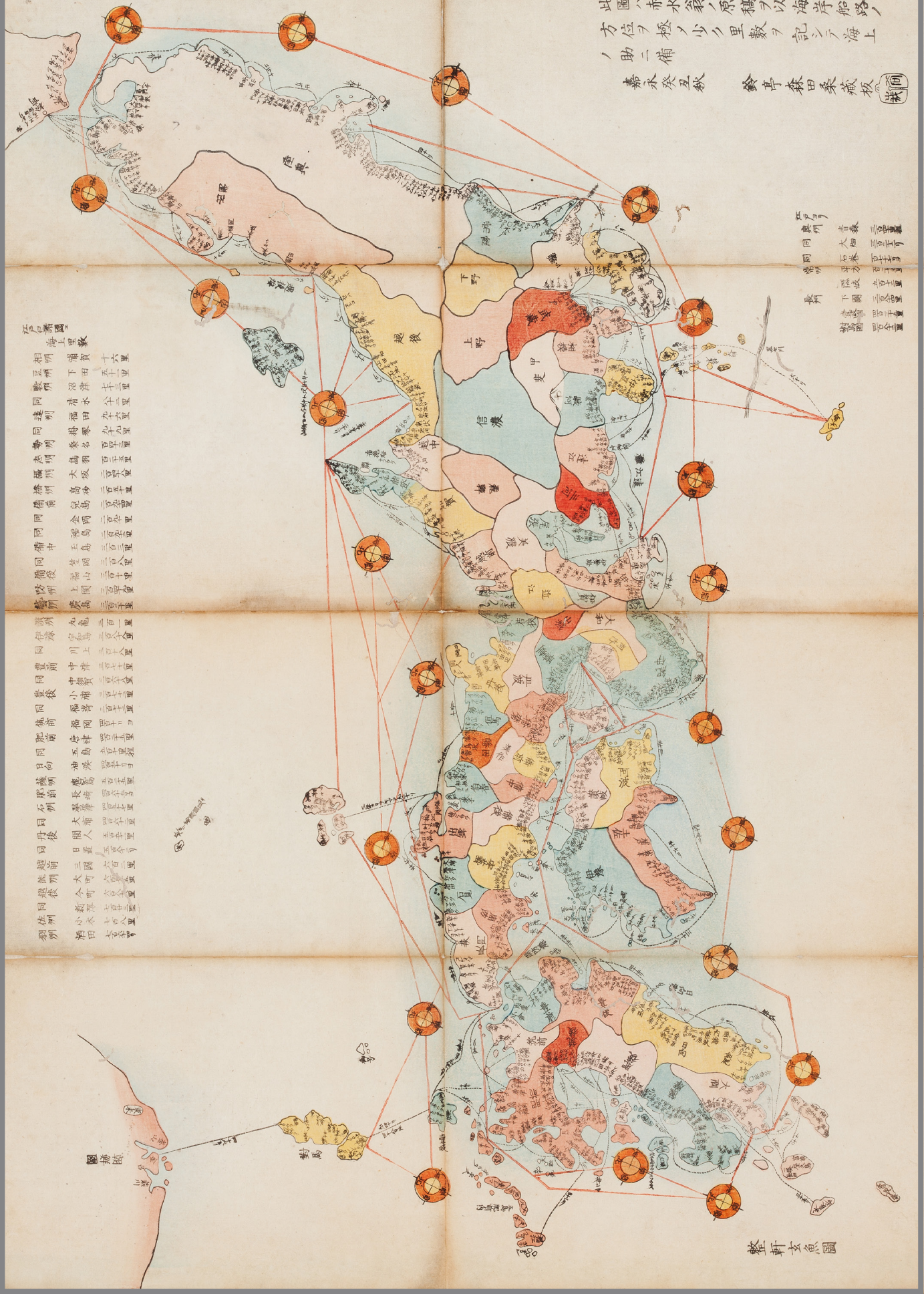


大日本海岸全圖

官許

此圖、赤水翁ノ原稿ヲ以海学船路ノ
方位ヲ極ノ少ク里數ヲ記シテ海上
ノ助ニ備

嘉永癸丑秋 鈴亭森田桑藏板



江戶藩國
經里數
相州 浦賀 六十里
下野 下田 六十里
關東 沼津 六十里
同州 清水 六十里
遠州 沼田 六十里
同州 掛川 六十里
駿河 桑名 六十里
同州 島田 六十里
同州 大坂 六十里
同州 高砂 六十里
同州 兒島 六十里
同州 金岡 六十里
同州 福島 六十里
同州 玉島 六十里
同州 笠岡 六十里
同州 福山 六十里
同州 上野 六十里
同州 廣島 六十里
同州 岡山 六十里
同州 津島 六十里
同州 川上 六十里
同州 中津 六十里
同州 中津 六十里
同州 小幡 六十里
同州 福野 六十里
同州 福野 六十里
同州 肥前 六十里
同州 五島 六十里
同州 日向 六十里
同州 鹿島 六十里
同州 石川 六十里
同州 大津 六十里
同州 日置 六十里
同州 三國 六十里
同州 大町 六十里
同州 今町 六十里
同州 新野 六十里
同州 小水 六十里
同州 羽田 六十里

同州 大津 六十里
同州 石川 六十里
同州 鹿島 六十里
同州 日向 六十里
同州 五島 六十里
同州 肥前 六十里
同州 福野 六十里
同州 小幡 六十里
同州 中津 六十里
同州 川上 六十里
同州 津島 六十里
同州 岡山 六十里
同州 福山 六十里
同州 玉島 六十里
同州 福島 六十里
同州 金岡 六十里
同州 兒島 六十里
同州 高砂 六十里
同州 大坂 六十里
同州 島田 六十里
同州 掛川 六十里
同州 沼田 六十里
同州 清水 六十里
同州 沼津 六十里
同州 下田 六十里
同州 浦賀 六十里

整軒玄魚圖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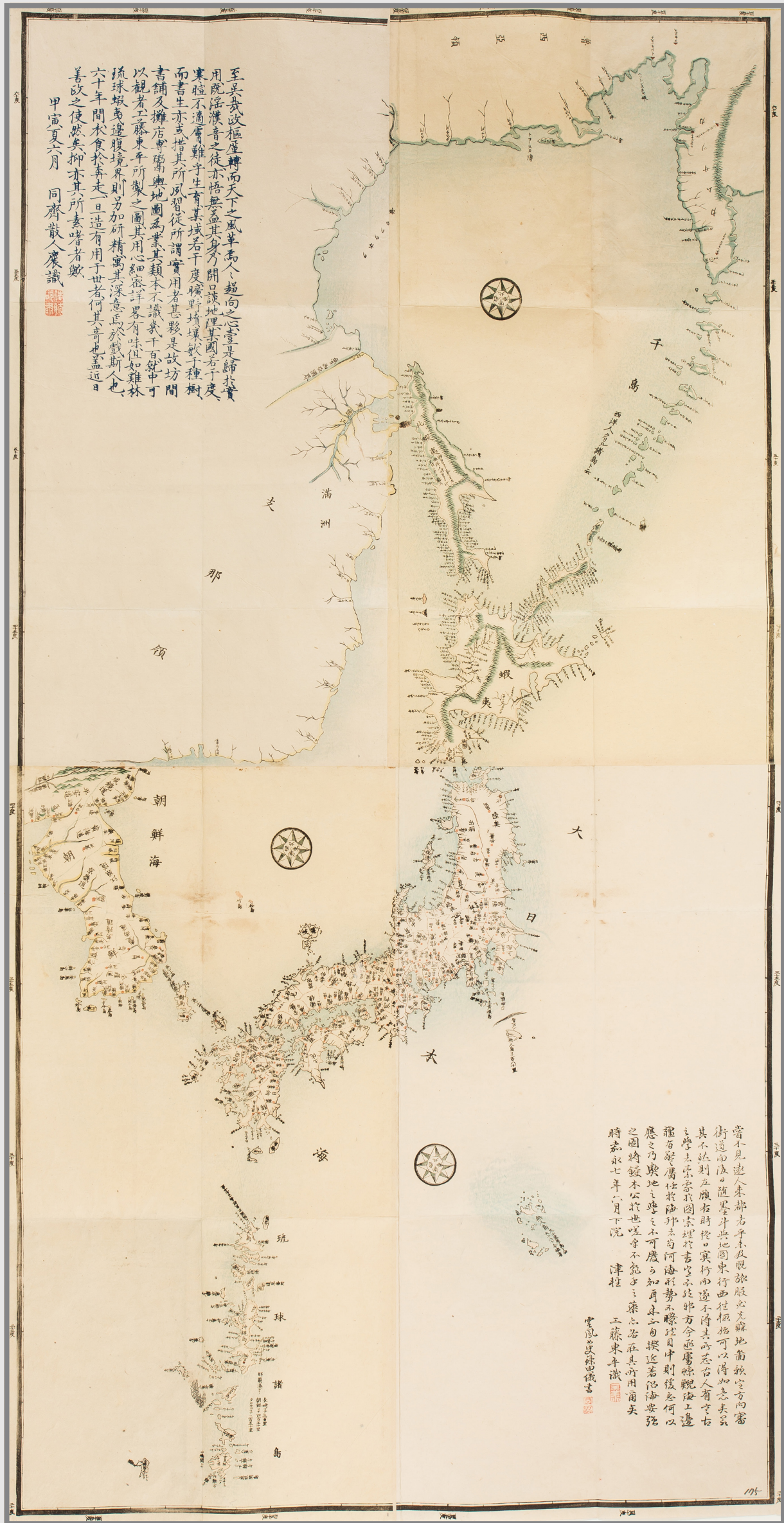
대일본연해요강전도

大日本沿海要疆全圖

제작자 구도 도헤이(工藤東平)
발행 연도 1854년
크기 55×106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는 일본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한 흔적이 보인다. 연해주는 18세기 초에 제작된 중국의 「강희도(康熙圖)」를 계승하여 표현하였다. 북방 지역은 19세기 초 유럽의 지도를 참고하였으며 본인의 탐험 성과도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캄차카반도에서 류큐제도에 이르는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일본열도의 형상과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중국과의 경계 부분이나 한반도 형상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바다의 명칭을 보면 한반도 북부 동측에는 조선해(朝鮮海)로,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로 기재하였다. 동해상에는 울릉도가 죽도(竹島)로, 독도가 송도(松島)로 표기되었고, 삼척 동쪽 바다에도 울릉도(鬱陵島)가 나타나 있다.





至吳我政極屢轉而天下之風革為一趨向之心豈是歸於實
 用既淫漢音之徒亦悟無益其身分開口談地理軍國若干度
 寒暄不適庸難予生者其域若干度曠野墳塚數千種樹
 而書生亦或措其所風習從所謂實用者甚夥是故坊間
 書舖及攤店專售輿地圖為業其類本不識幾千百就中可
 以觀者工藤東平所製之圖其用心細密詳畧有味但如雜林
 疏球蝦夷遼東境界則另加研精寓其深意焉於戲斯人也
 六十年間木食於奔走一日造有用于世者何其奇也蓋近日
 善政之使然矣抑亦其所素嗜者歟
 甲寅夏六月 同齋散人 廣識

嘗不見遊人未都者乎未及脫旅服必先離地而觀其方向審
 街道而後行隨墨斗與地圖東行西往極端可以得如志矣其
 其不然則左顧右盼口實行而道不待其而志古人有云古
 之學未嘗不於國索理於書豈不於地乎方今巡覽海疆工邊
 疆有解屬任於海邦去為河海形勢不瞭瑣瑣目中則後急何以
 應之乃輿地之學不可廢也知月未不自撰述若此海要強
 之圖將錄本公於世嗟乎不飽子之藥亦若其用爾矣
 時嘉祿七年六月下院 津柱 三藤東平識

15

『대일본국세도』 내 대일본총계약도

『大日本國細圖』, 大日本總界略圖

제작자 후지와라 아사로(藤原朝呂)
 발행 연도 1865년
 크기 19.4×15.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관허 『대일본국세도』(上, 下 2권)라는 지도집 상권에 수록된 것이다. 상권의 동국지부(東國之部)는 「세계만국전도」, 「대일본총계약도」, 기내(畿內)의 5개국 지도인 「동해도(東海圖)」, 「동산도(東山圖)」, 「북륙도(北陸圖)」 등과 부록 「무인도」 등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의 서국지부(西國之部)에는 산음도(山陰道), 산양도(山陽道), 남해도(南海道), 서해도(西海道), 기타 대마도(對馬島) 등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산음도(山陰道)의 「오키국(隱岐國) 지도」에는 독도가 제외되었다. 반면 일본 전도인 「대일본총계약도」에는 조선국 남동부의 부산 일대와 함께 울릉도, 독도를 나타냈으며 독도는 송도(松嶋)로, 울릉도는 ‘죽도 또는 의죽도(竹嶋又磯竹嶋)’로 표기하였다. 바다의 명칭을 보면 한반도 남동쪽 바다는 조선해(朝鮮海)로, 혼슈 북쪽 바다는 북대양(北大洋)으로 표기하였다.



界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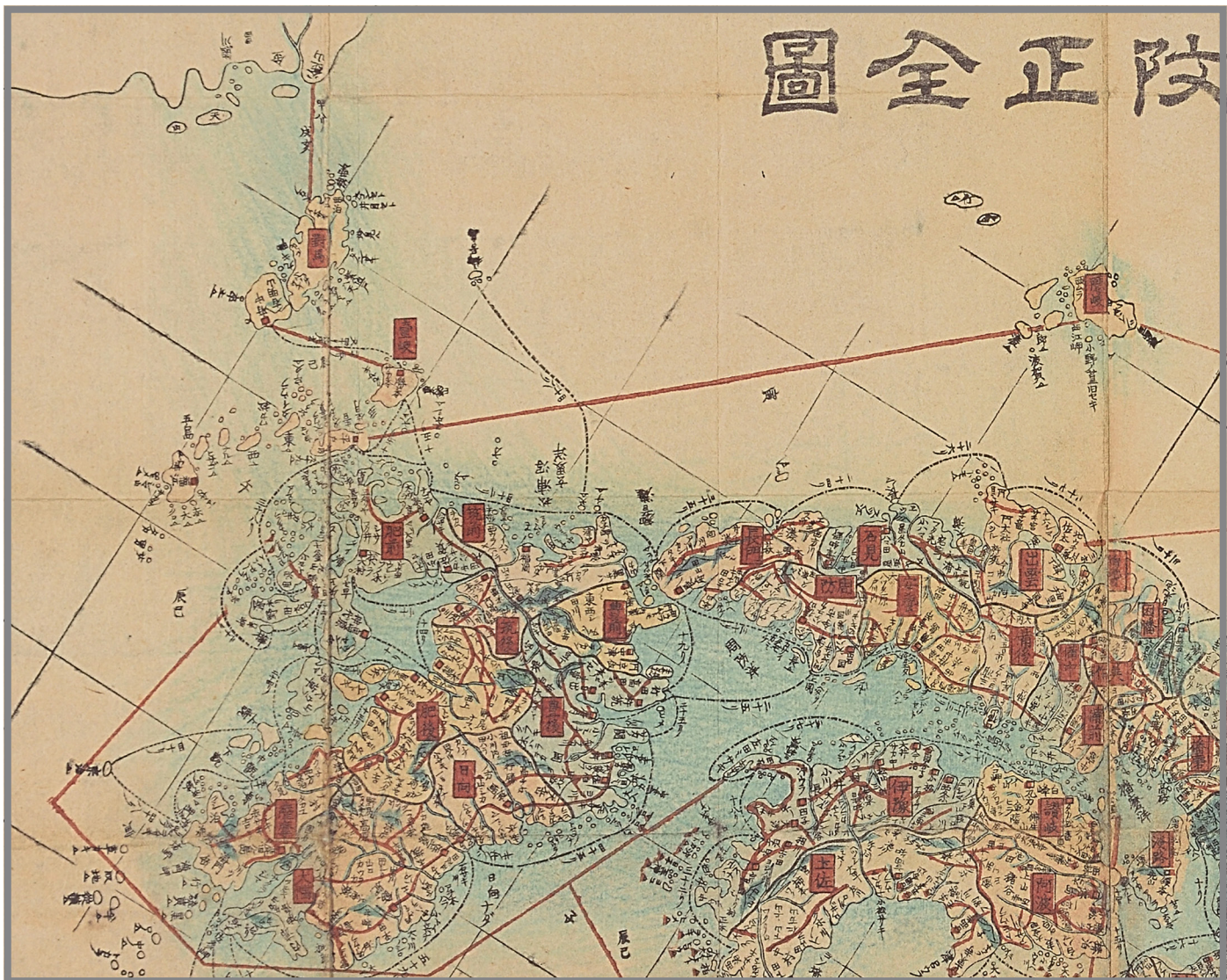
16

대일본개정전도

大日本改正全圖

제작자 구와타로(鋤太郎)
 발행연도 1867년
 크기 74×53.2cm
 소장처 독도재단

이 지도는 1811년에 간행된 초판을 1867년에 개정한 것이다. 지도에는 지역을 구분하였고, 산지와 하천을 비롯하여 국명(國名), 성하(城下), 명승고적, 신사, 고성(古城), 고전장(古戰場), 불각(佛閣), 해로 등이 상세히 표현되었다. 상단 여백에는 거리 관계로서 동회(東廻)의 해상 이수(里數)와 에도에서 전국 주요 지역까지의 이수를 기재하였다. 일본의 경위선 밖에는 유구국(琉球國)과 조선의 부산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다. 항구 도시 사이에는 붉은 직선의 해로와 해리가 표시되었다.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도 해로와 해리가 표시되어 있지만, 오키섬 북서쪽의 독도와 울릉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은 각각 다케(竹)와 마쓰(マツ)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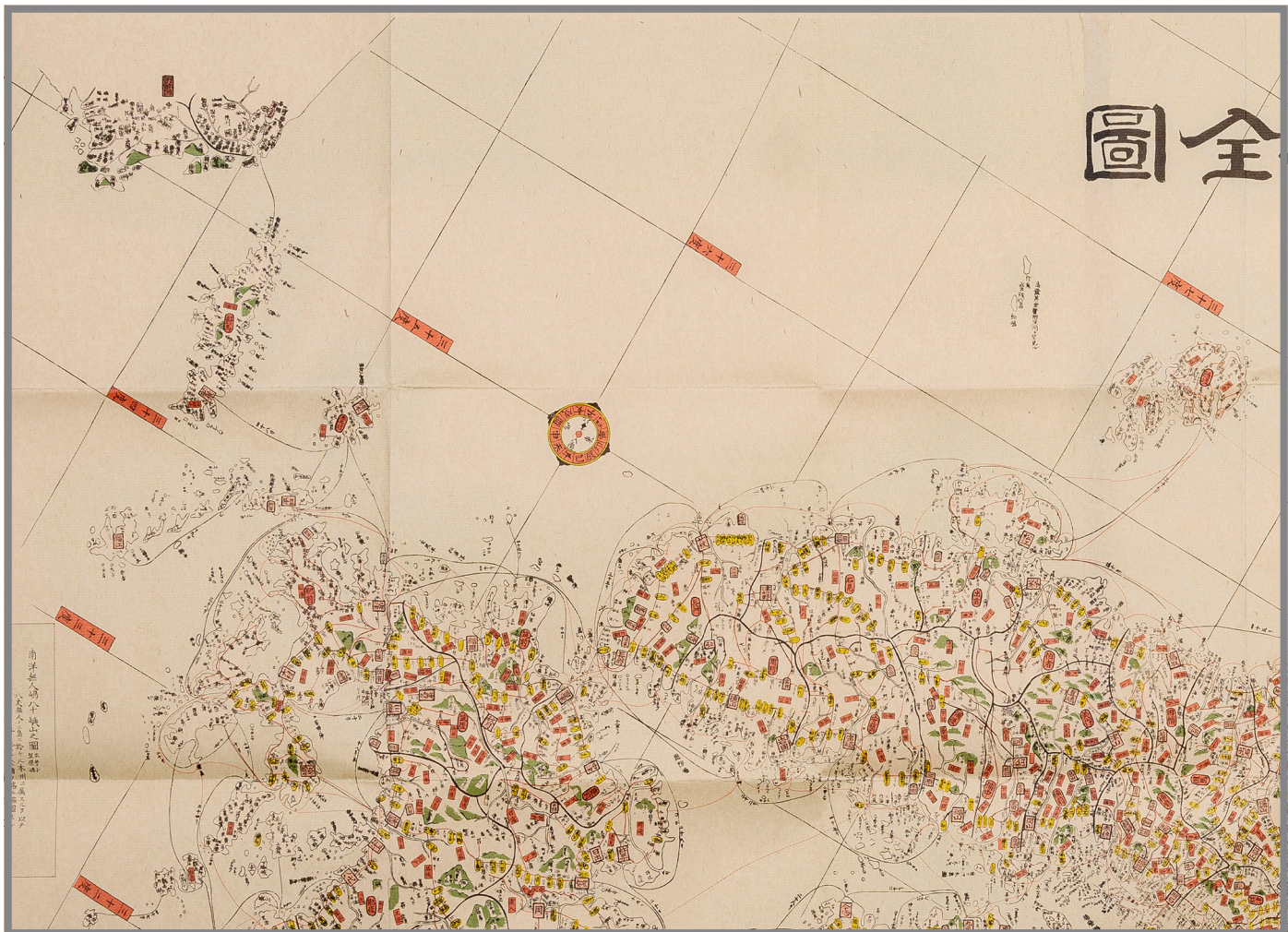


17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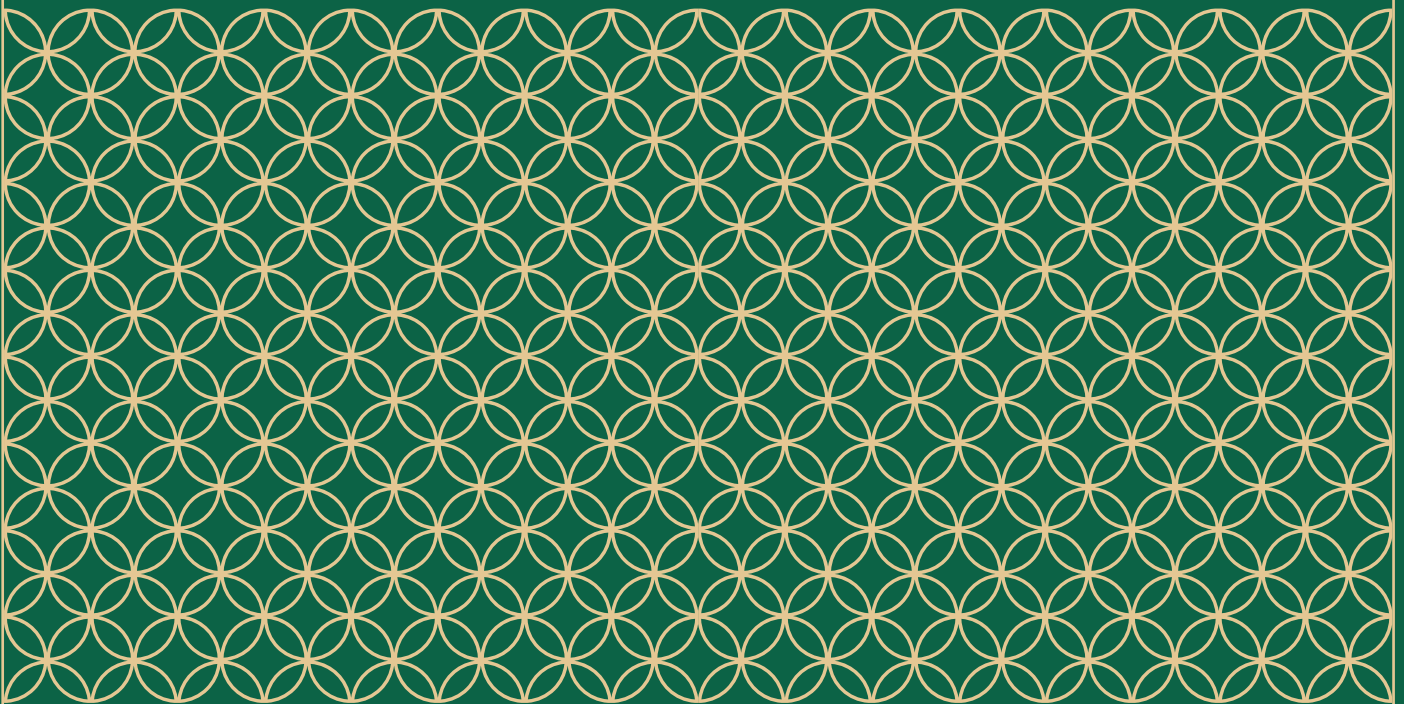
제작자 리소 사다마사(篠窓貞雅)
 발행연도 1874년
 크기 183.8×79.2cm
 소장처 독도재단

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쿠니(國)별 지리적 정보를 도표로 나타냈다. 일본열도의 형상은 나가쿠보의 지도에서와 달리 남북의 길이가 짧다. 지도에는 산지와 하천, 도시, 지역의 경계와 명칭, 신사, 불각, 명승고적, 도로와 항로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오키제도 서쪽의 북위 37도 아래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죽도(竹島) 혹은기죽도(或云岐磯竹島)’라고 표기되었다. 그 남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고 송도(松嶋)로 표기되었다. 두 섬 옆에는 “고려기여운주은주망견(高麗其云州隱州ヲ望見ル)”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오키섬의 지지를 기술한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3.

19세기 중후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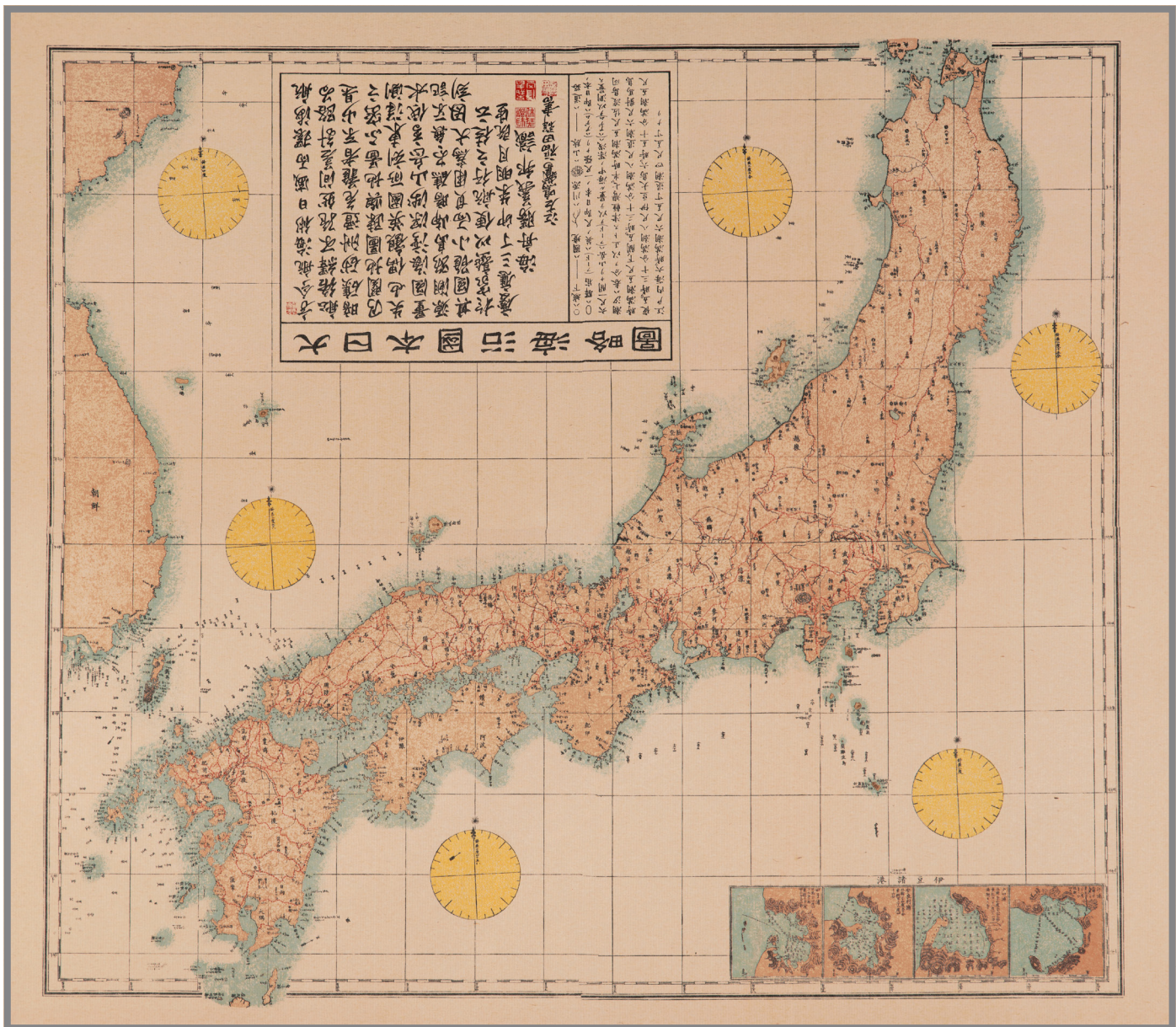
18

대일본국연해약도

大日本國沿海略圖

제작자 가쓰 가이슈(勝海舟)
 발행연도 1867년
 크기 71.4×60.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의 원류는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일본도이다. 에도 시대에 간행된 「이노도(伊能圖)」를 1863년 영국 해군에서 「일본과 조선 근방의 연해도」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이 지도에는 일본 연안부에 수심이 추가로 기재되었고, 해군조련소에서 근대적 항해술을 교수했던 가쓰 가이슈가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대일본국연해약도」를 간행한 것이다. 혼슈 북서쪽에는 조선의 동해안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동해의 울릉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그 동남쪽에 독도를 동도와 서도 두 섬으로 나타내었고 리앙쿠르암을 가리키는 리엔코카르타로아크로 표기하였다. 울릉도 북서쪽 바다에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를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명칭을 죽도(竹嶋)로 표기하였다.





失也 觀圖 英圖 所到 東海
 乃闔 地附 疎遠 國地 刻東
 暗磯 砂不 遭危 與地 所到
 船絡 不附 險危 地地 東海
 今航 能然 能然 難者 不東
 而環 日能 能然 者者 系東
 環海 能然 能然 難者 系東

大日

19

대일본부현전도

大日本府縣全圖

제작자 우치다 신사이(內田晉齊)
 발행연도 1872년
 크기 31.4×39.4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영국에서 제작된 일본 지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새로운 행정체제 부현(府縣)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지역별로 채색을 다르게 했으며, 산지와 하천을 비롯하여 도로, 선로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일본의 서쪽 부분에 조선의 남동부 부산 일대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동해상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각각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두 섬은 조선 영역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었다. 「대일본부현전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 계통의 지도로, 울릉도 옆에는 “여기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 이즈모)에서 은주(隱州,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高麗ヲ見ル猶雲州隱州ヲ見ルカ如シ]”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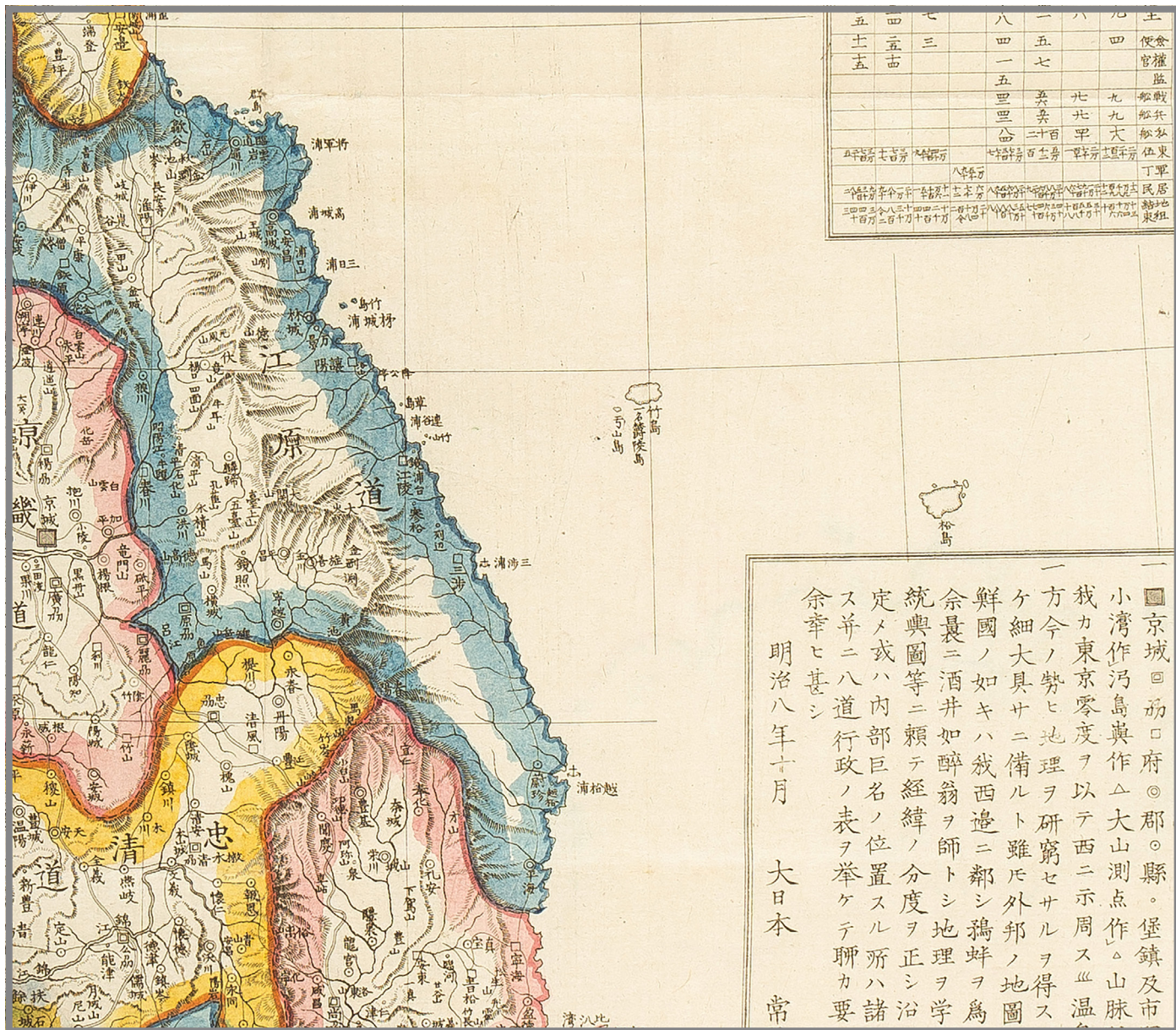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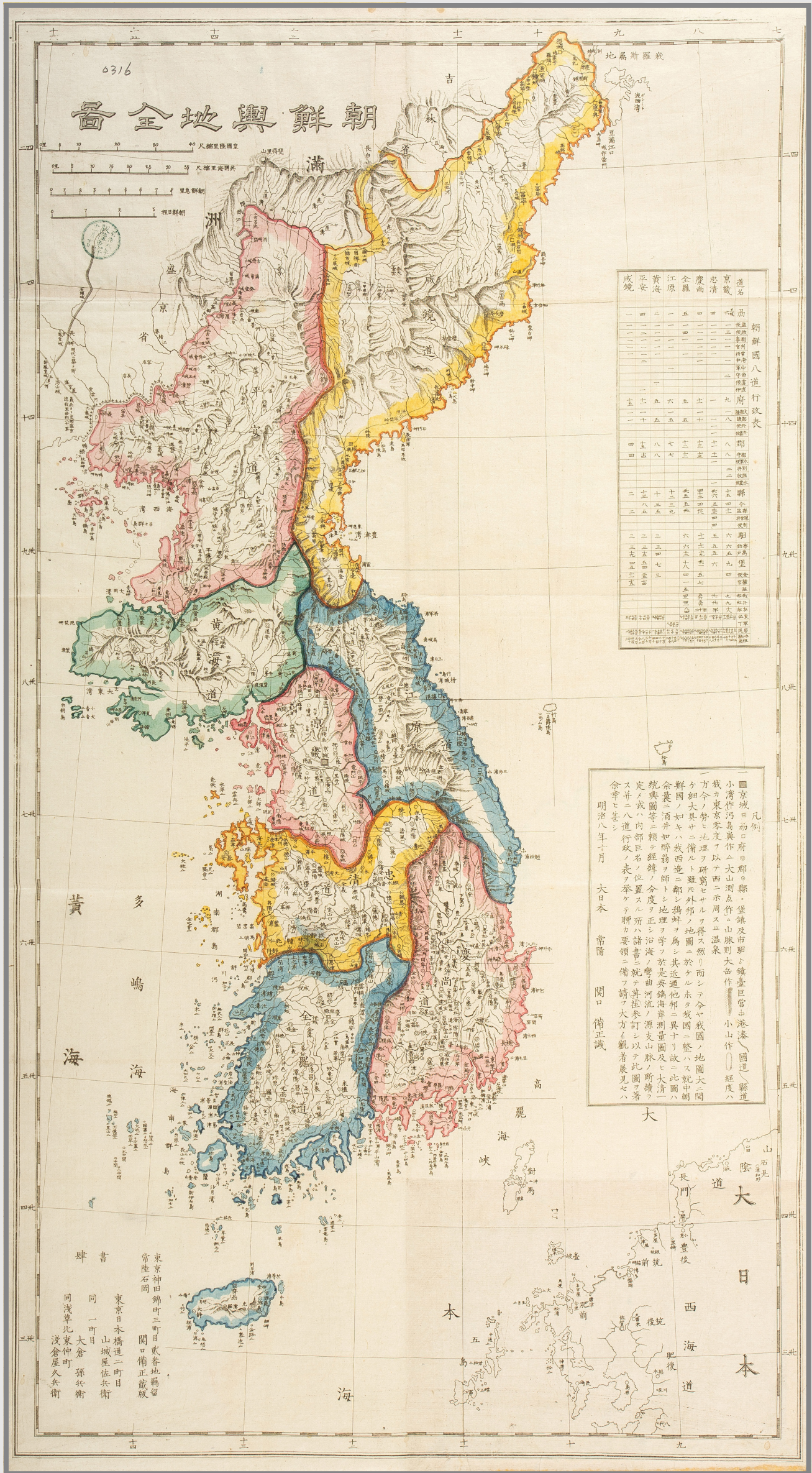
20

조선여지전도 朝鮮輿地全圖

제작자 세키구치 비마시(關口備正)
 발행연도 1875년
 크기 35×62.7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의 범례에 따르면, 저자는 조선 등 외국 지도가 마땅치 않아 사카이 조스이(酒井如醉)에게 지리를 배우고, 영국의 해양 측량도와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 등을 참고하여 이 지도를 완성했다고 한다. 지도에서 경도의 기준은 도쿄이며, 조선은 팔도로 구분하여 우모식의 산지, 하천과 교통망, 경성(京城)을 비롯한 부·군·현의 행정지명, 진보, 향만 등을 상세히 표현하였다. 축척표는 일본 육리(陸里) 축척, 영국 해리(海里) 축척, 조선 리(里) 축척과 더불어 조선 일정(日程) 축척도 표시되었다. 동해상에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표시되어 송도(松島)로 표기되었고,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표시되어 '죽도 일명 울릉도(竹島 一名蔚陵島)'로 표기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 서남쪽에 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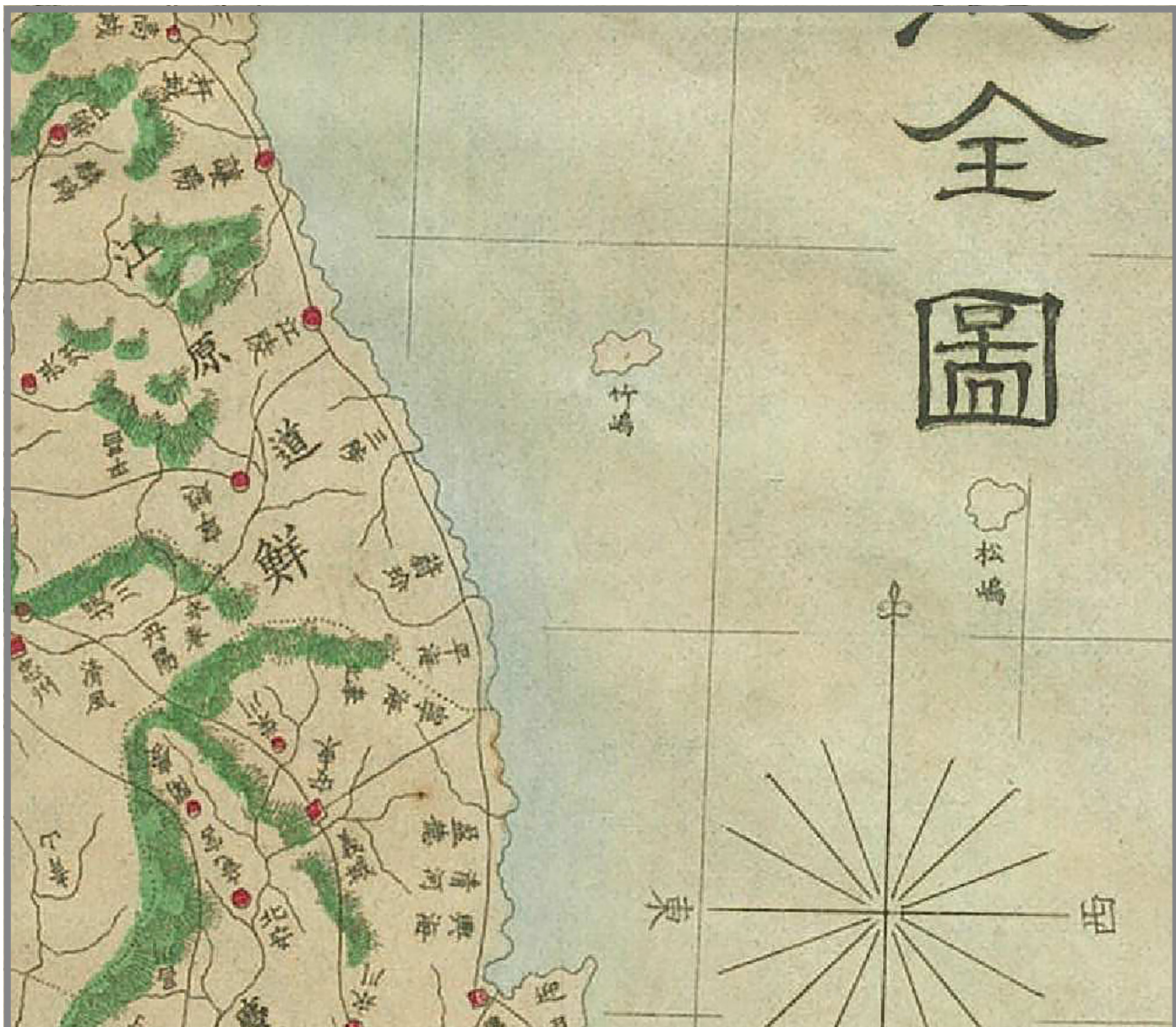
21

『조선신문』 내 측량조선여지전도

『朝鮮新論』, 測量朝鮮輿地全圖

제작자 후사오 겐(總生寬)
 발행연도 1876년
 크기 15×22.8cm
 소장처 독도재단

이 지도는 후사오 겐이 1876년에 간행한 『조선신문』 앞부분에 수록된 것이다. 조선 팔도의 경계는 점선으로 나타내었고, 각 도의 명칭이 기재되었다. 경성을 비롯한 주부(州府)와 현(縣)·청(廳)·성(城)·영(營)은 각각 네모와 동그라미로 구분하고 적색으로 표시했다. 산맥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반영하여 우모식에 녹색으로 채색하였고, 하천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지도에서 조선은 전체를 연한 갈색으로, 일본의 규슈 일부와 쓰시마는 적색으로 채색하여 국가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했으며, 섬의 명칭은 울릉도가 죽도(竹嶋)로, 독도는 송도(松嶋)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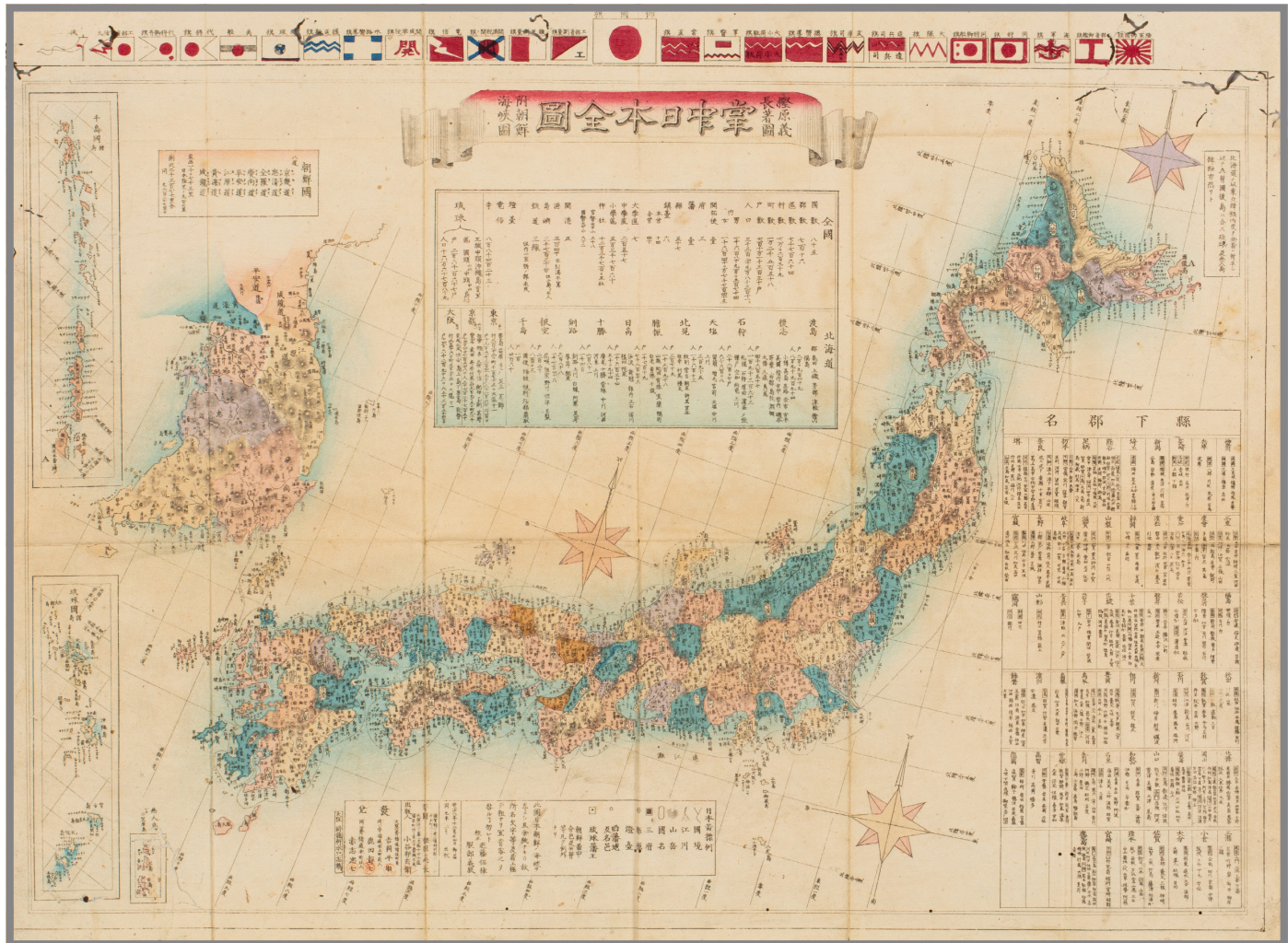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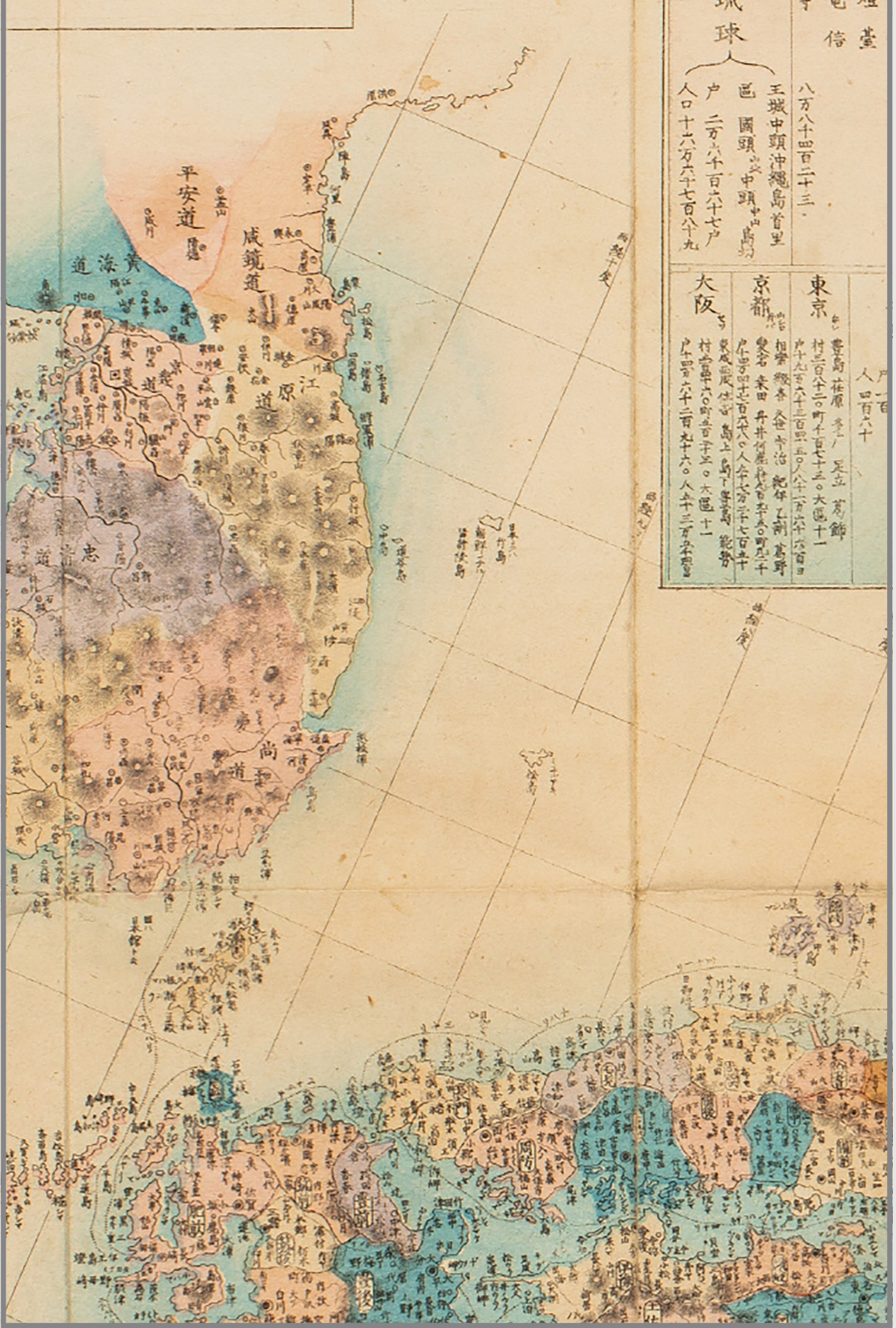
장중일본전도 掌中日本全圖

제작자 가시하라 요시나가(榎原義長)
 발행연도 1876년
 크기 49.2×35.5cm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이 지도는 유럽, 일본, 조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경선과 위선을 사용하였고, 각 부현(府縣)은 채색을 다르게 하여 지역을 구분했다. 일본의 형상은 비교적 실제와 가까우나, 조선의 형상과 섬의 위치 등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조선 영역 상단의 여백에 조선국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 팔도를 표기하였다. 지도에는 조선의 북부 지방이 생략되었고, 그 이남의 중부 및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위치 및 형상이 부정확하다. 울릉도 옆에 “일본에서는 죽도(竹島), 조선에서는 울릉도”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동남쪽에 나타난 독도는 명칭이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朝鮮國
八道
京畿道 忠清道 全羅道 慶尚道 平安道 江原道 黃海道 咸鏡道
東西一千七百七十三里



燈臺	寺	電信	琉球
八万八千四百二十三	王城 中頭 沖繩 島首里	區 國頭 中頭 島首里	戶 二万六千六百六十七戶 人口 十六万六千七百八十九
戶 一百 人 四百八十	東京 豐前 佐原 冬ノ足立 芳飾 村 三百三十三町 千七百七十三。大區 十一 戶 十九万六千三百五十五。人口 一百六十六万 相模 鎌倉 久松 宇治 紀伊 乙訓 高野 豐前 米田 丹井 尾道 戶 七万七千七百七十九 戶 四万七千六百六十八。人口 七万七千七百七十九 東成 廣徳 佐賀 島上 島下 豐前 能勢 村 六百六十六町 五百三十三。大區 十一 戶 四万六千二百九十六。人口 五十三万三千三百	京都 相模 鎌倉 久松 宇治 紀伊 乙訓 高野 豐前 米田 丹井 尾道 戶 七万七千七百七十九 戶 四万七千六百六十八。人口 七万七千七百七十九 東成 廣徳 佐賀 島上 島下 豐前 能勢 村 六百六十六町 五百三十三。大區 十一 戶 四万六千二百九十六。人口 五十三万三千三百	大阪 村 六百六十六町 五百三十三。大區 十一 戶 四万六千二百九十六。人口 五十三万三千三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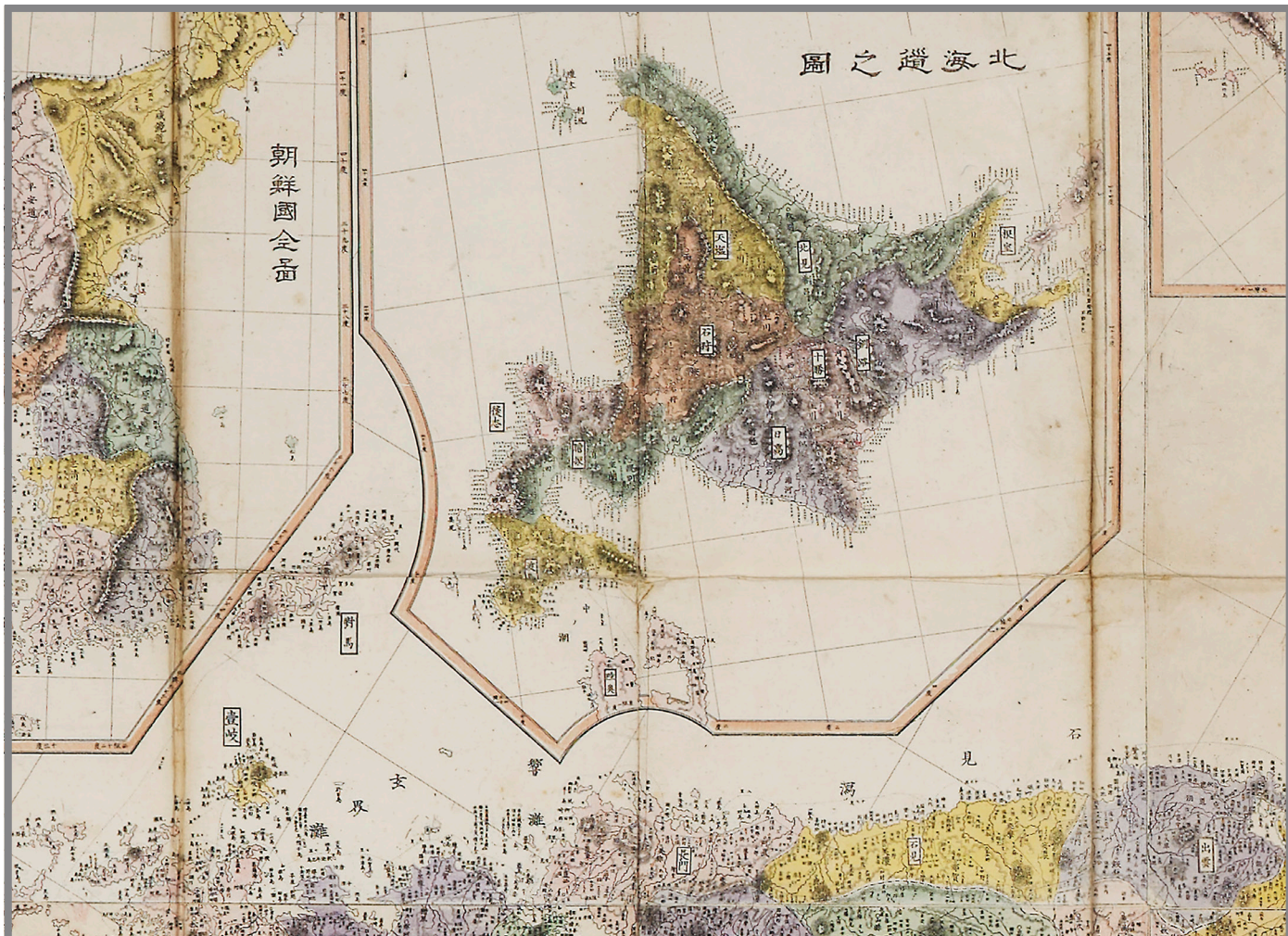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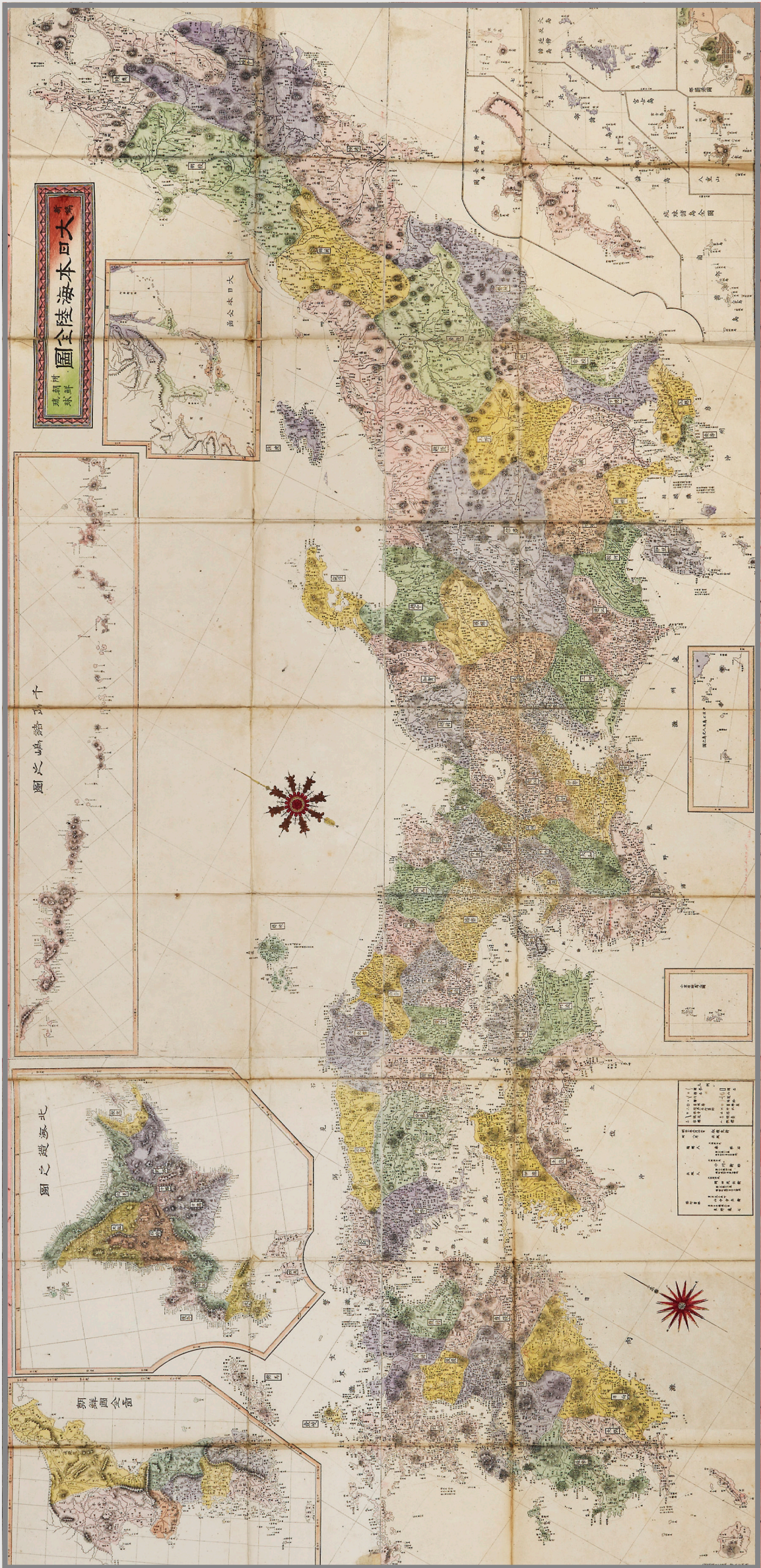
대일본해륙전도

大日本海陸全圖

제작자 모리 킨세키(森琴石)
 발행연도 1877년
 크기 143.1×68.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를 완성한 모리 킨세키는 메이지(明治)와 다이쇼(大正) 시대에 걸쳐 오사카에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에는 혼슈를 비롯하여 변방의 홋카이도, 치시마(千島, 쿠릴열도), 류큐제도, 오키나와 등 일본 전체가 자세히 표시되었다. 지도 좌측 상단에는 삽도(挿圖)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를 수록했으며 한반도의 윤곽은 비교적 정확하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이 아닌 조선에 포함시켰으나 위치가 부정확하다. 두 섬은 강원도와 동일하게 연한 연두색으로 나타내었고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24

청국여지전도

清國輿地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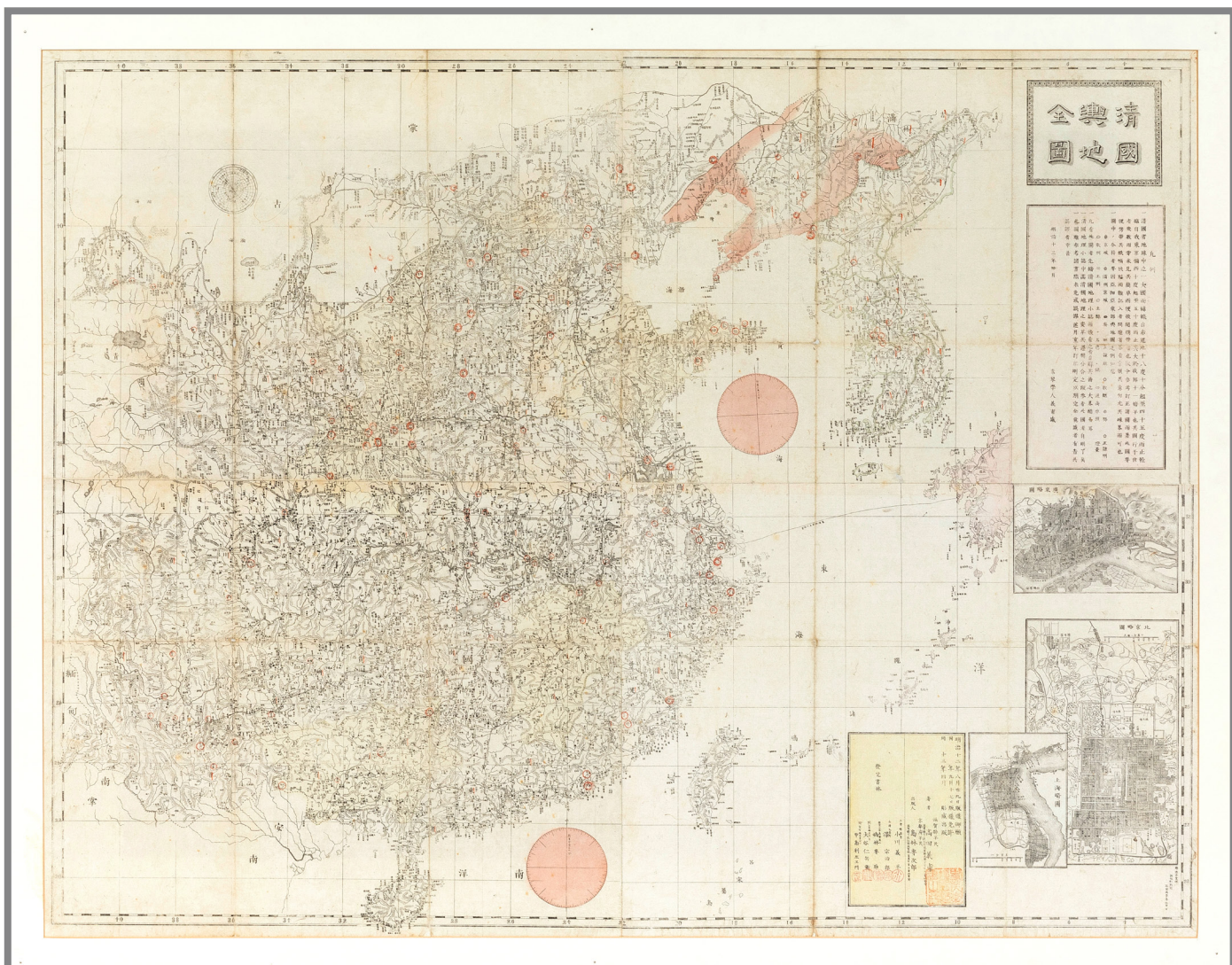
제작자 다카다 요시토시(高田義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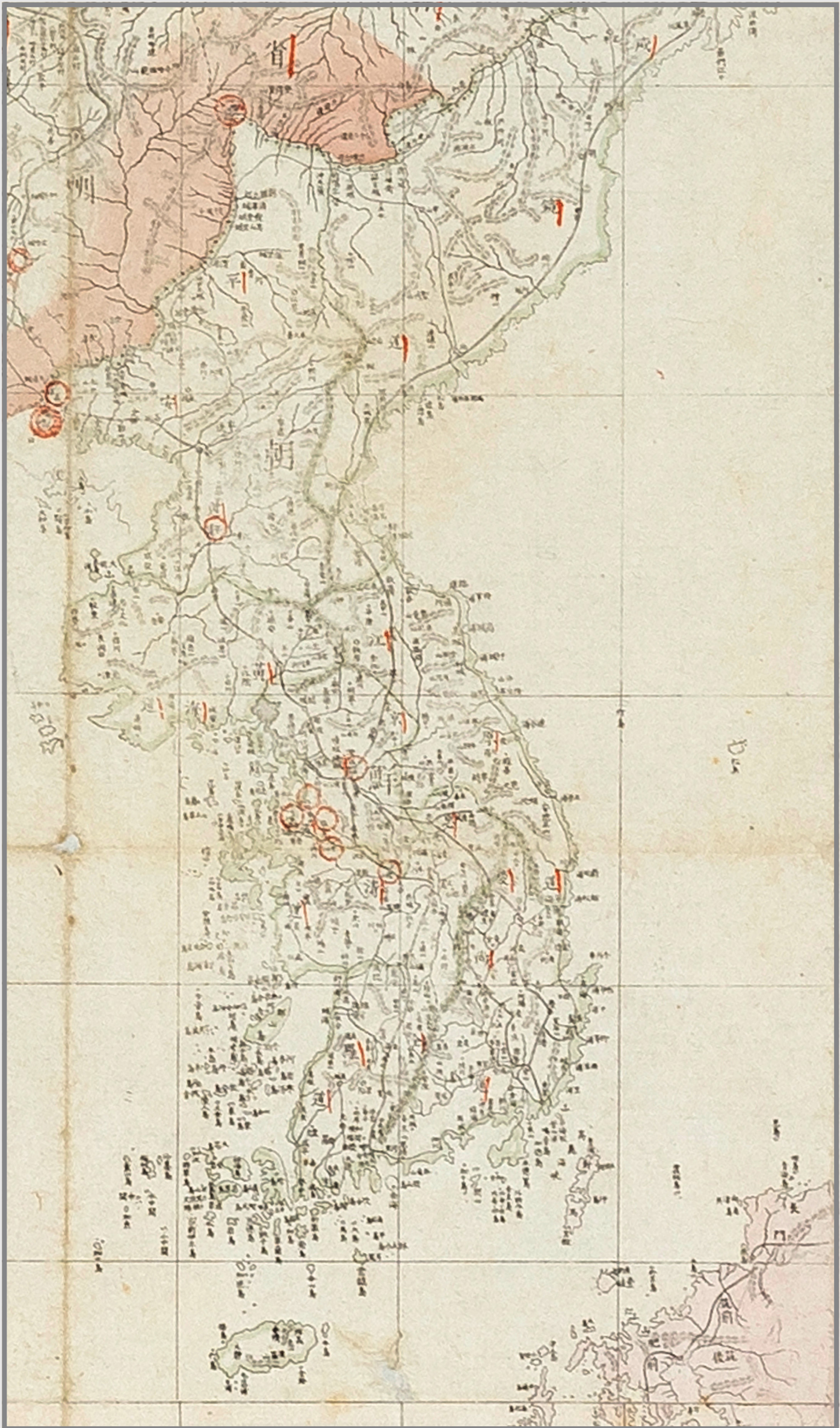
발행 연도 1880년

크기 36.5×26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에는 청국을 중심으로 이웃 나라인 조선과 일본 규슈 일부가 그려져 있다. 청국과 조선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교통로, 도시 등이 상세히 표시되었다. 우측 하단에는 삽도로 「광둥약도(廣東略圖)」, 「베이징약도(北京略圖)」, 「상하이약도(上海略圖)」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형상은 일본 육군참모국이 1874년에 간행한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에 나타난 조선과 매우 유사하다. 호남 서해안의 형상이 실제와 달리 왜곡이 심한 것은 육군참모국이 부정확한 영국의 해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규슈는 붉은색으로 채색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조선 영역과 마찬가지로 채색하지 않았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표시하여 죽도(竹島)로 표기하였고,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표시하고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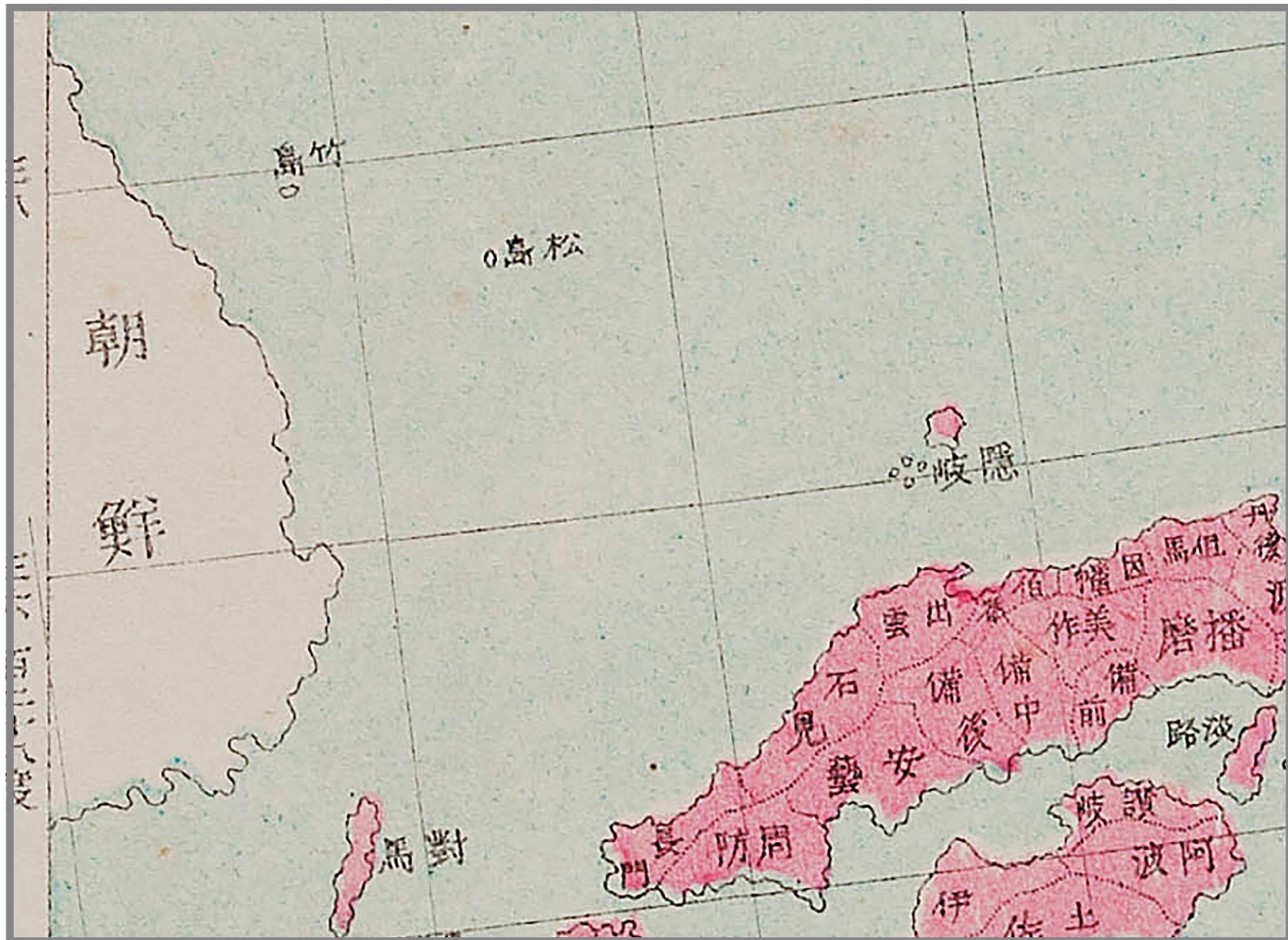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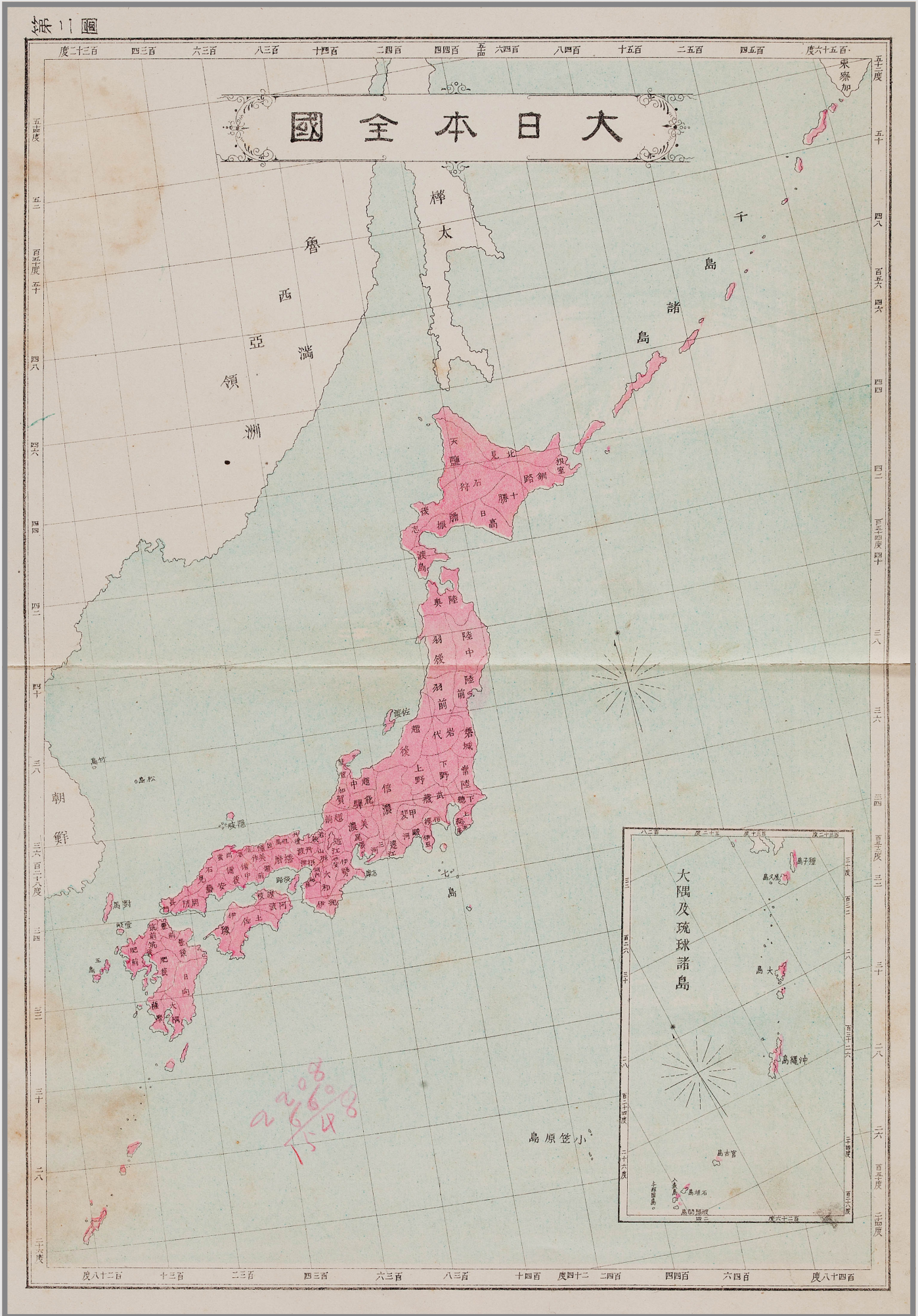
25

『분방상밀대일본지도』 내 대일본전국 『分邦詳密大日本地圖』, 大日本全國

제작자 하기와라 쿠니조(萩原國三)
 발행 연도 1892년
 크기 30.3×20.9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분방상밀대일본지도』라는 지도책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일본전국」은 제2도(第二圖)에 해당한다. 일본의 각 지역은 경계선으로 구분되었고, 최북단의 치시마제도에서 최남단의 오키나와까지 전 지역이 분홍색으로 채색되었다. 그러나 이웃 나라 조선을 비롯하여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할린 등은 일본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제도는 분홍색으로 채색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동일하게 채색되지 않았다.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에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26

방제적요 일청한삼국대지도

邦制摘要 日清韓三國大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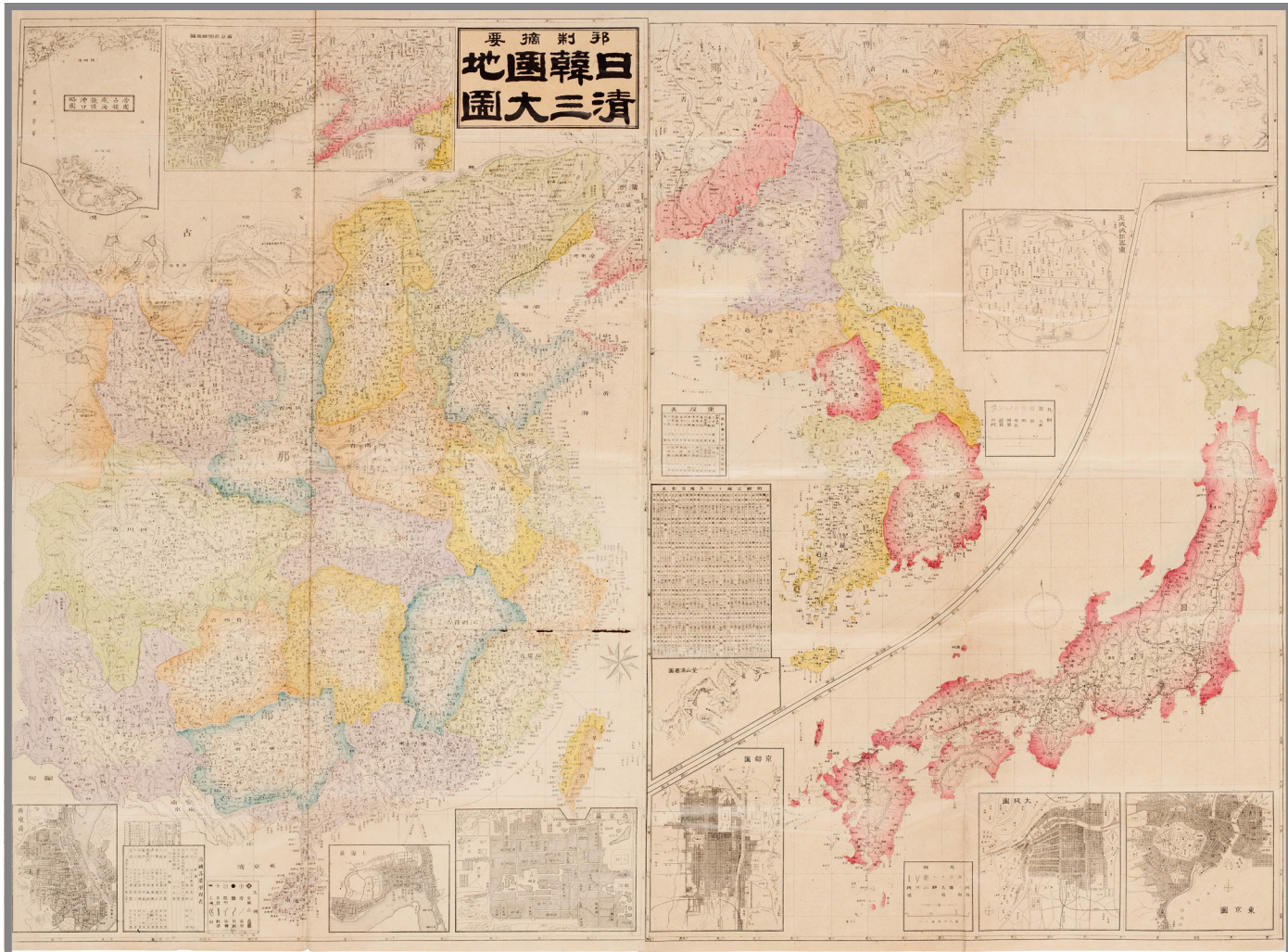
제작자 후지와라 소(藤原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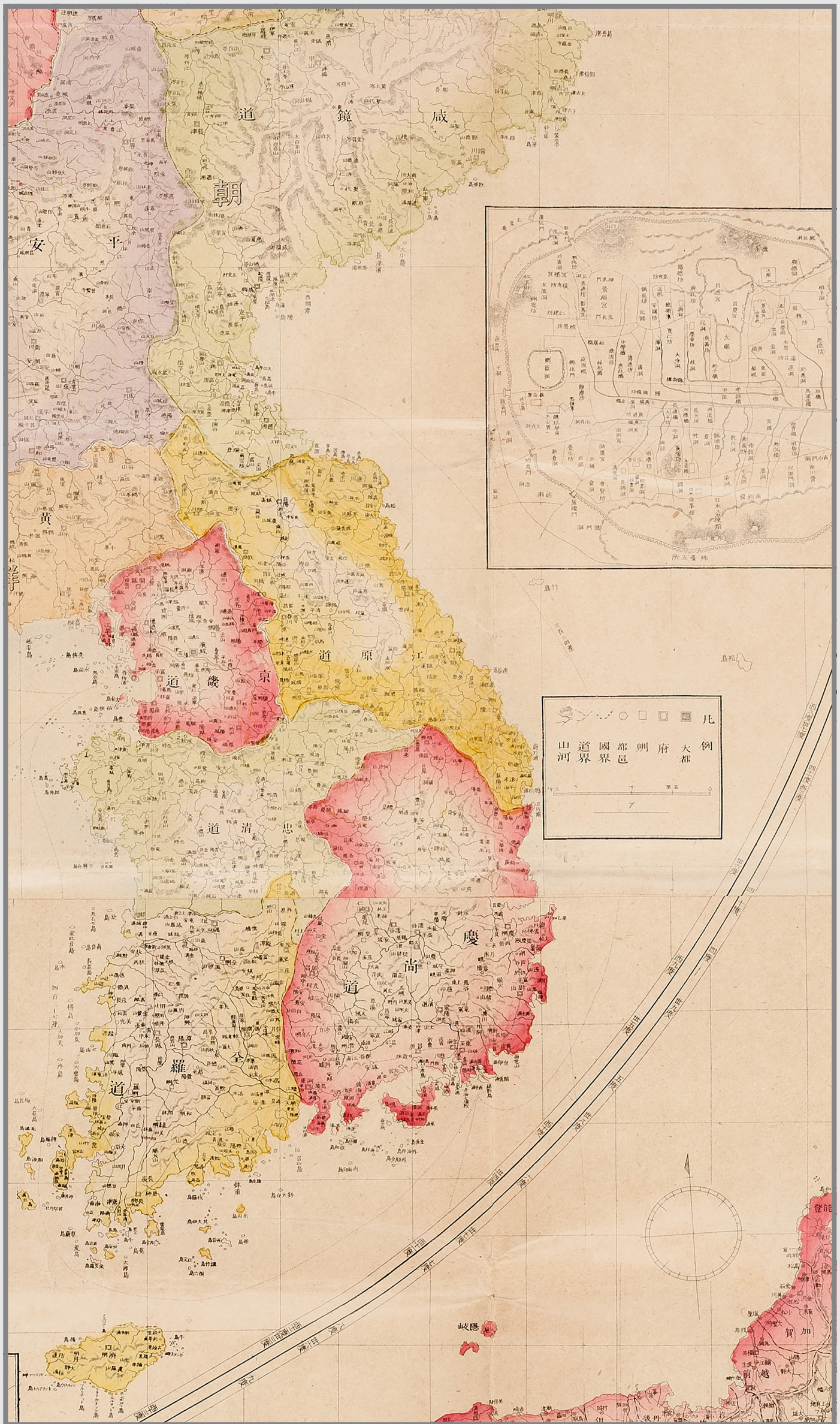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110.6×77.3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일본, 중국, 조선의 영역을 각각 구분하여 산지와 하천, 도시, 육로와 철도, 항로 및 거리 등을 중점적으로 표시하였다. 일본은 주요 섬을 붉은색으로 나타내었고, 여백에는 삿포로, 도쿄, 오사카, 교토의 시가지 약도가 있다. 중국은 성별로 채색을 다르게 하여 지역을 구분했으며, 주요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둥의 시가지와 제국 점령 웨이하이(威海) 및 뤼순(旅順)의 약도를 수록하였다. 조선은 팔도를 다르게 채색하였고 삿포로 경성 성곽 약도, 한강과 부산포 약도가 있고, 경성에서 각지까지의 이정표(里程票)가 기재되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위치 및 섬의 형상이 다소 부정확하며, 명칭은 각각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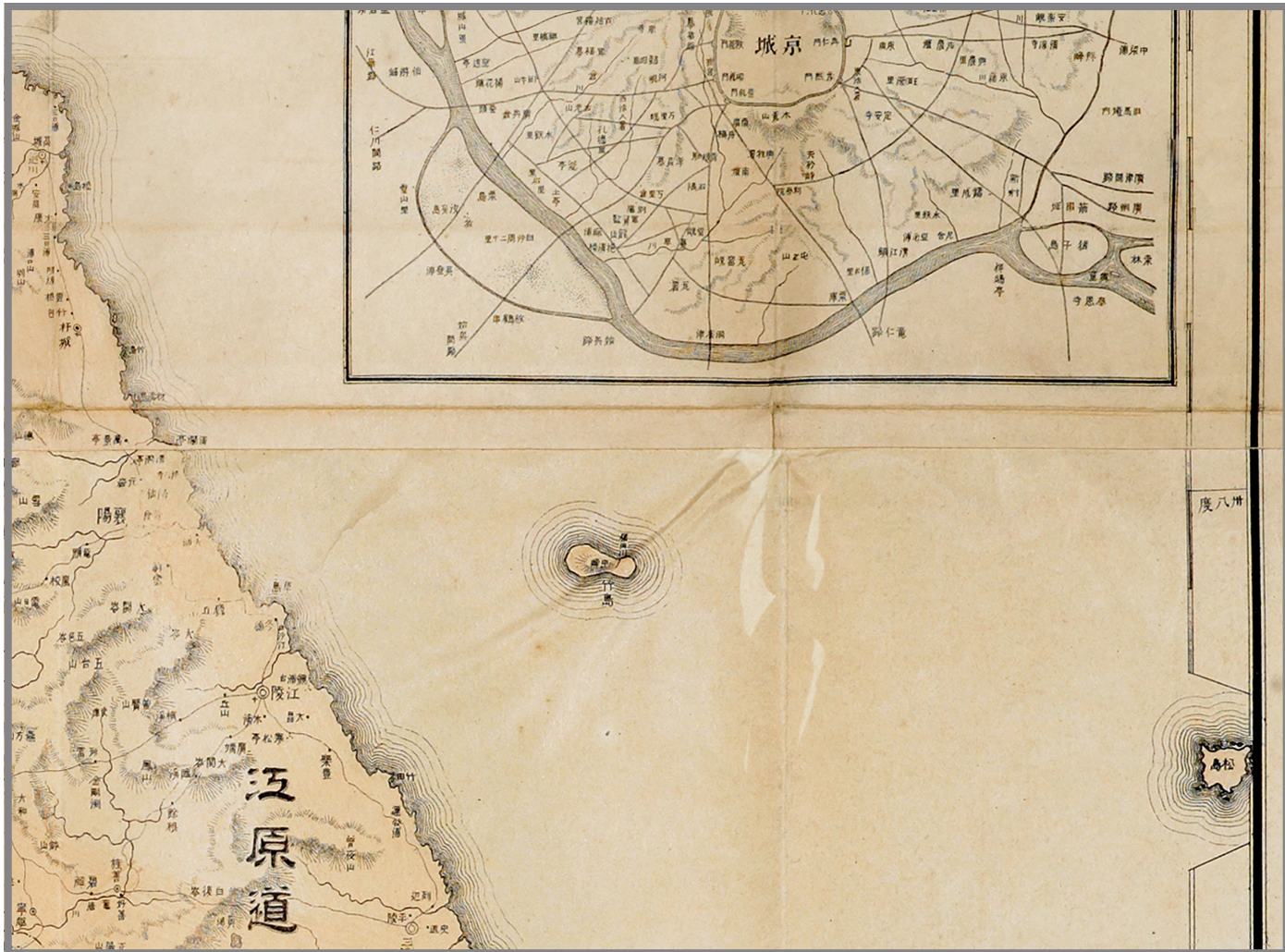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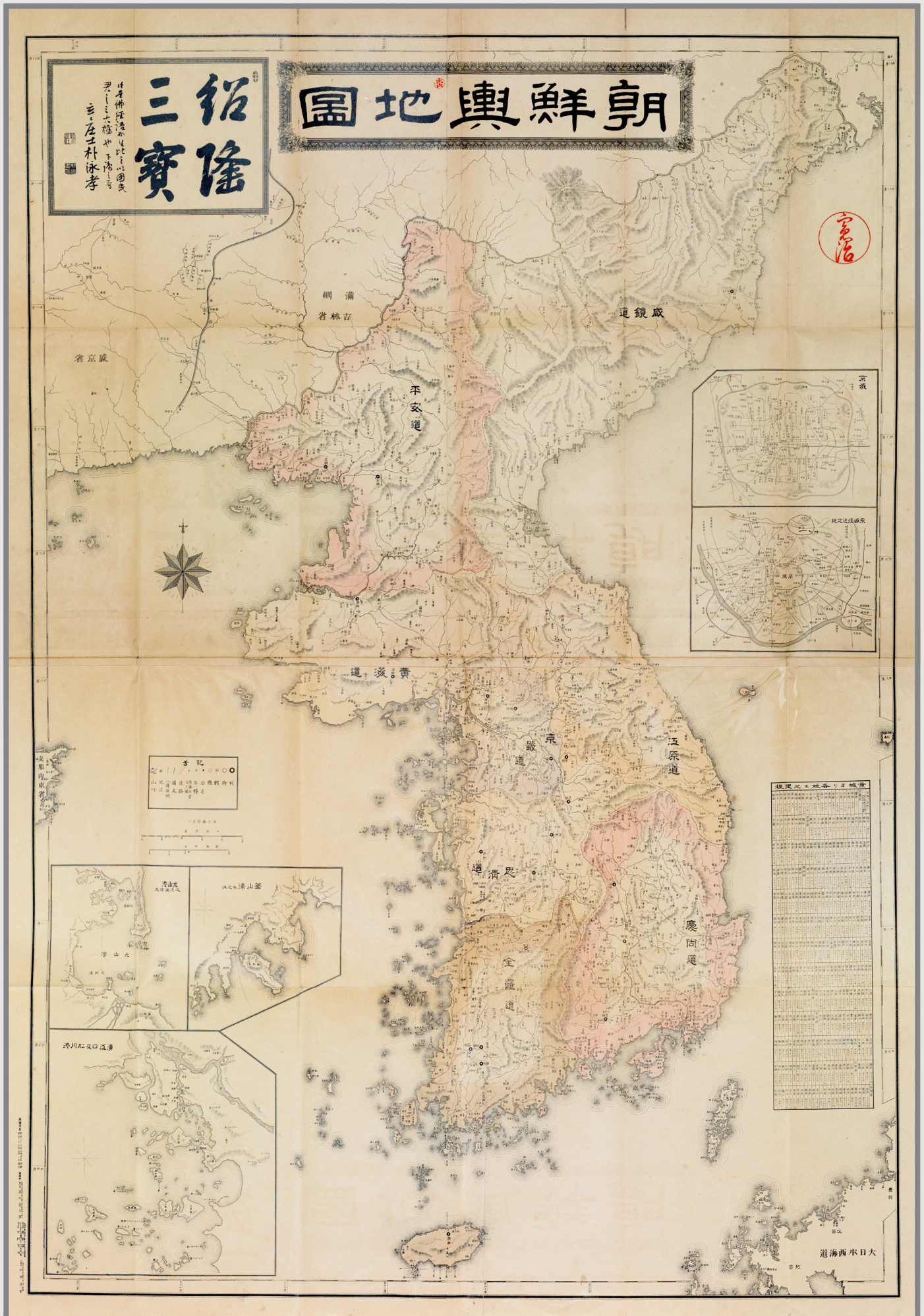
27 조선여지도

朝鮮輿地圖

제작자 시미즈 미쓰노리(清水光憲)
 발행연도 1895년
 크기 110×78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를 제작한 시미즈 미쓰노리는 당시 개화파 박영효(朴泳孝), 김옥균(金玉均) 등과 교류하였다. 지도 좌측 상단에는 박영효가 쓴 제자(題字) ‘소룡삼보(紹隆三寶)’를 비롯하여 추천서 형식의 간단한 문장과 그의 서명이 담겨 있다. 내부 표지에는 전년도에 김옥균이 본국을 떠날 때 휴대해 왔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조선의 형상은 비교적 정확하며 지도 여백에는 경성, 원산, 인천, 부산 시가지의 지도가 삽입되었고 경성에서 전국 각 지역까지의 이정(里程)이 표시되었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표기하였고,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28

조선국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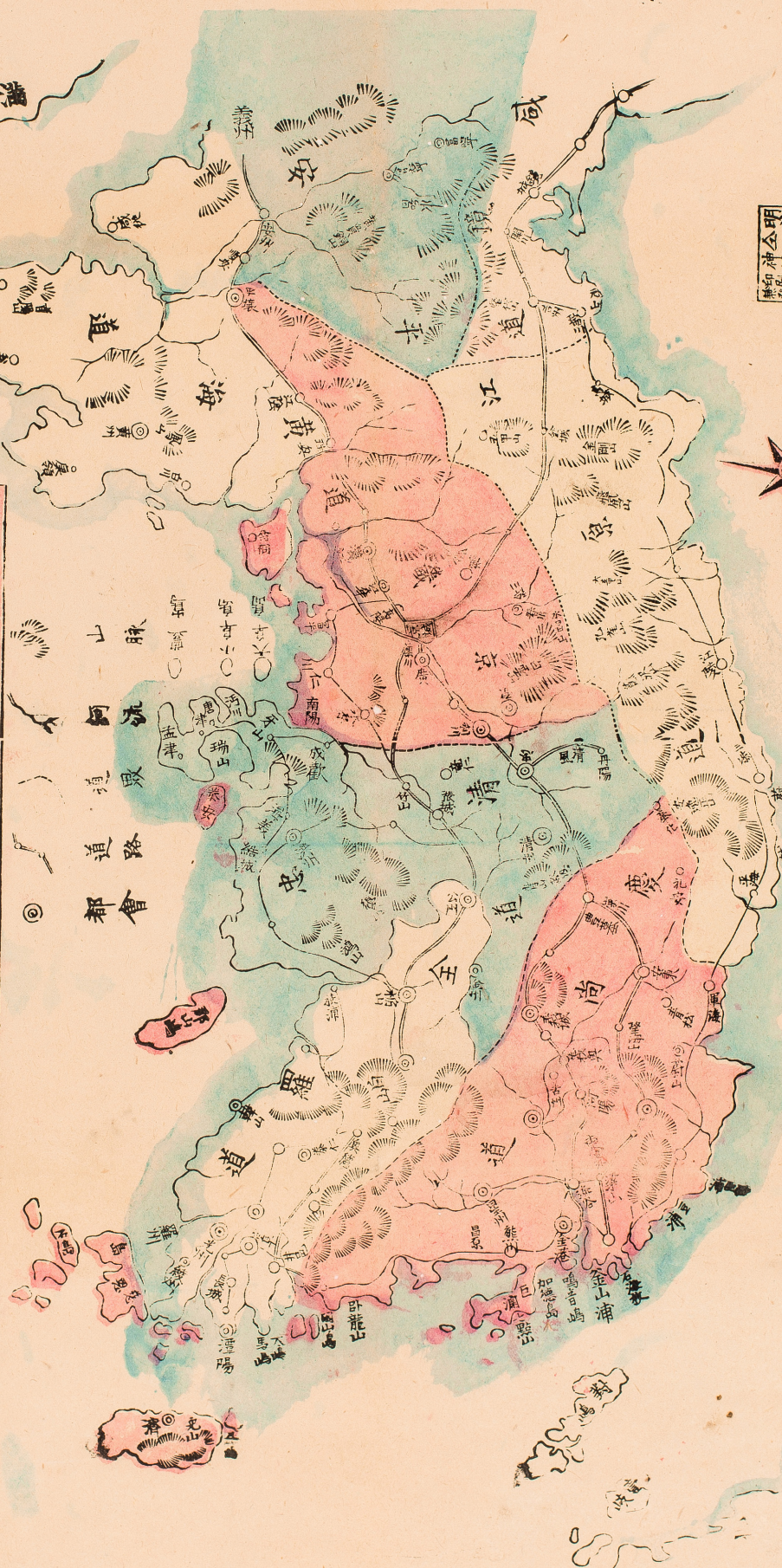
朝鮮國全圖

제작자 오카다 쓰네사부로(岡田常三郎)
 발행연도 1894년
 크기 39×56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는 조선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한반도의 형상은 다소 부정확하며, 북부 지방의 함경도와 평안도 일부는 제외되었다. 한반도 주변에 만주와 일본의 쓰시마 및 규슈를 나타냈으나 채색은 하지 않았다. 조선의 팔도는 경계선과 채색으로 명확히 구분했지만, 각 도의 경계와 형상은 실제와 다르다. 경기도에는 경성이 서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고, 평양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강릉 동쪽 바다에 울릉도를 표시하고 그 동남쪽에 독도를 표시했지만,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섬의 명칭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嶋)로 표기하였다.



朝鮮全國圖



明
 治
 十
 年
 有
 士
 官
 朝
 野
 公
 事
 令
 自
 本
 官
 奉
 行
 神
 田
 區
 爲
 所
 奉
 此
 編
 撰
 人
 岡
 田
 常
 三
 郎

◎ 都會
 ○ 道路
 ○ 河流
 ○ 山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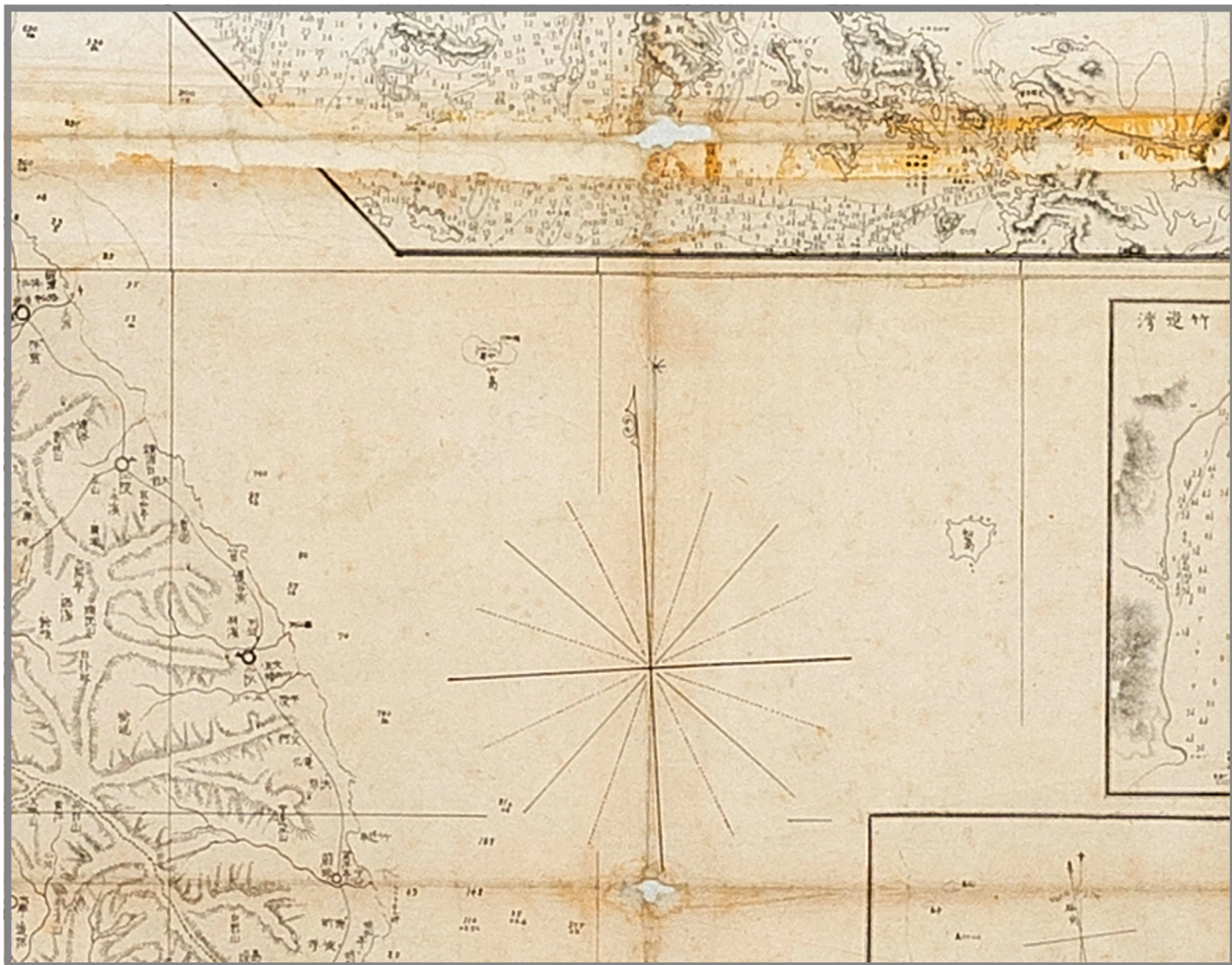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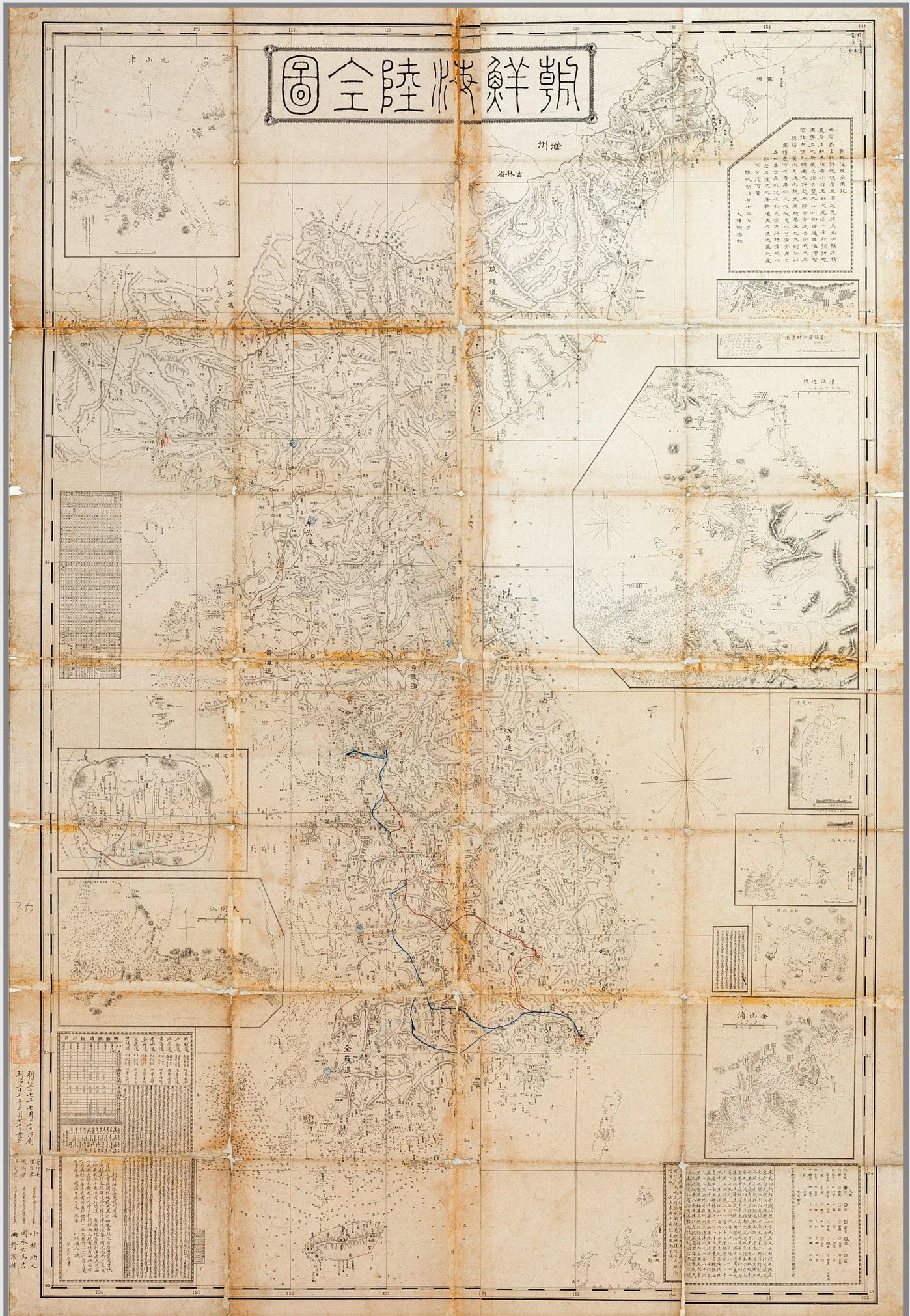
조선해륙전도

朝鮮海陸全圖

제작자 고바시 스토케(小橋助人)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92.4×135cm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는 조선의 육지와 바다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육지에는 산지와 하천 등의 지형, 주요 도읍의 위치와 지명, 교통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다에는 연안에 수심을 나타내는 숫자가 기재되어 해도를 연상하게 한다. 지도 여백에는 개항지인 원산과 부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대동강과 한강 하구, 도읍 간의 거리, 조선의 도별 정보를 담은 표 등이 삽입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었지만,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정확하지 않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코노트 위치에 일본에서 호칭하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었고,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30

조선지도 朝鮮地圖

제작자 나카무라 요시마츠(中村芳太)
 발행연도 1894년
 크기 53.3×78.5cm
 소장처 국회도서관

이 지도는 김옥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지참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도의 축척은 1:100만
 으로, 북부의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 일부가 제외되었다. 한반도의 형상은 비교적 정확하여 실제와 가깝
 다. 팔도의 경계는 녹색으로 구분하였고 산지와 하천, 주요 도시와 명승지, 병영과 진 등이 표시되었다.
 한반도 동쪽 바다에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죽도(竹島)가 그려져 있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독도는 제외되
 었다. 지도 좌측에는 「조선전도」를 작게 삽입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리키는 죽도(竹島)
 와 독도를 가리키는 송도(松島)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두 섬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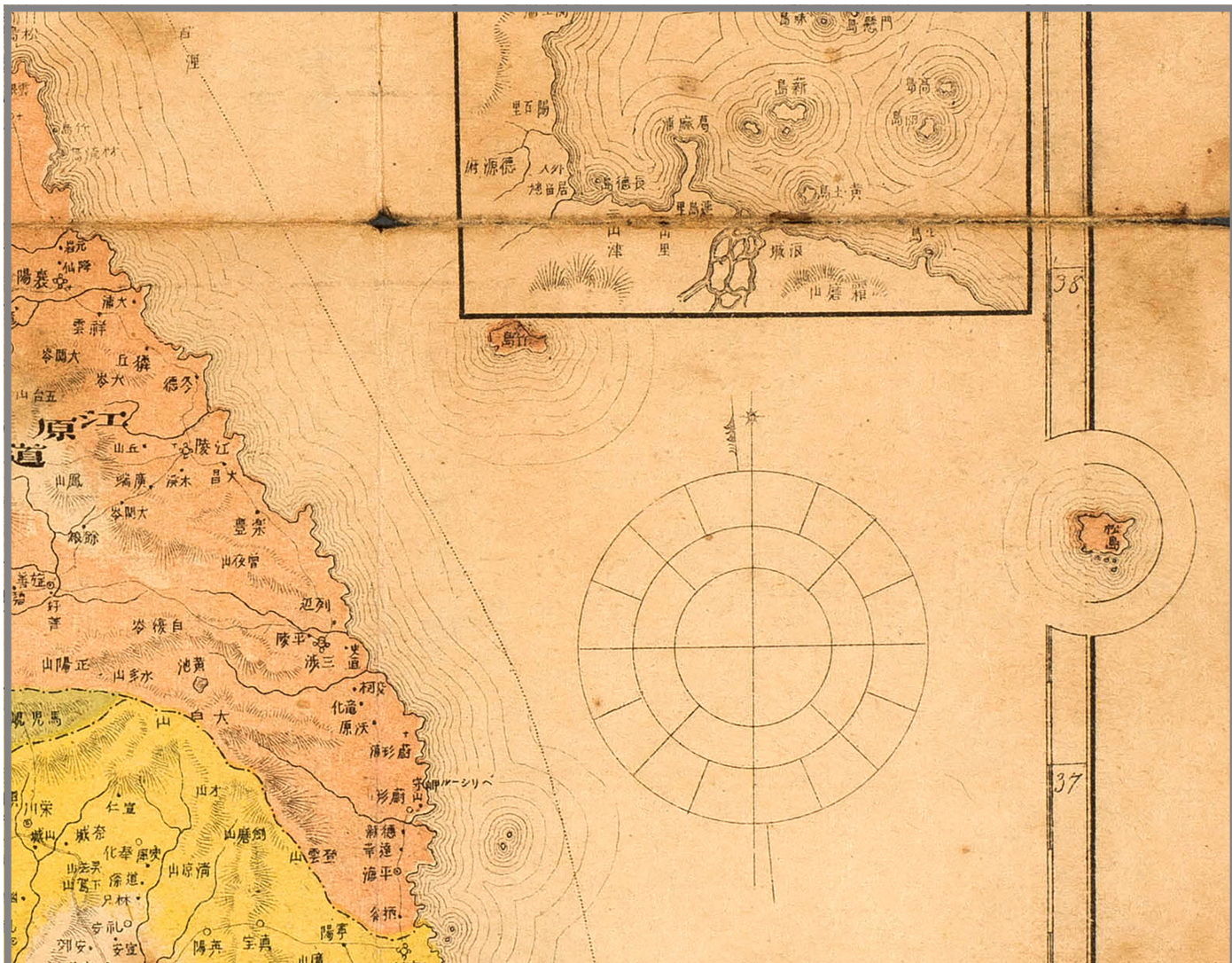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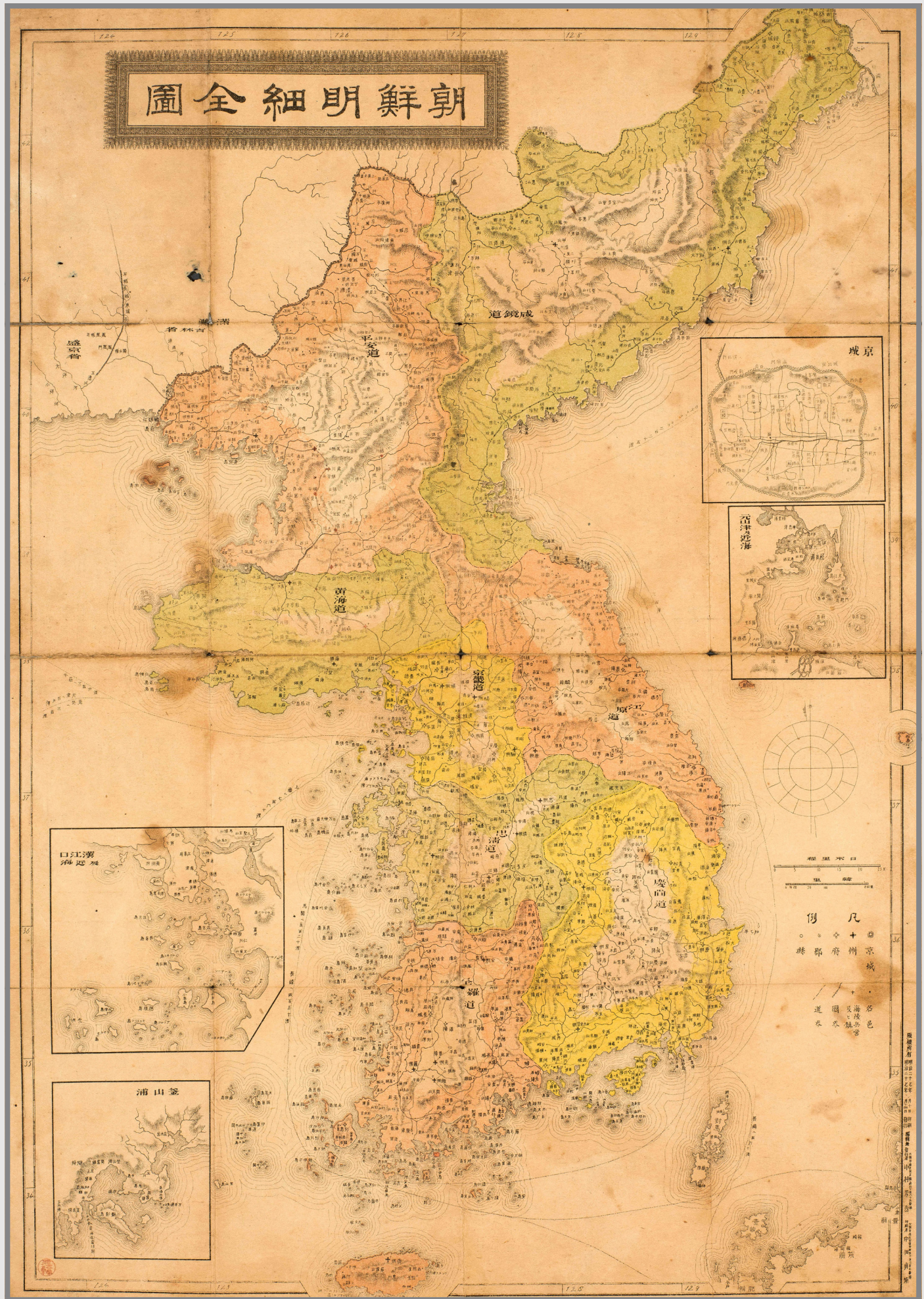
31 조선명세전도

朝鮮明細全圖

제작자 나카무라 요시마쓰(中村芳松)
 발행연도 1894년
 크기 27×32cm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이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형상은 비교적 정확하다. 지도에는 거리 개념으로 일본 이징(里程)과 한리(韓里)가 함께 제시되었다. 전국의 팔도는 황색, 분홍색, 초록색으로 채색되었다. 산지와 하천이 비교적 상세하며, 주요 도시의 명칭과 교통로 등이 표시되었다.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삼도로 경성, 원산진 및 근해(元山津及近海)의 약도가 있고, 좌측 여백에는 한강구 및 근해(漢江口及近海)와 부산포(釜山浦)의 약도가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와 동일하게 분홍색으로 채색하여 강원도 소속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부정확하다.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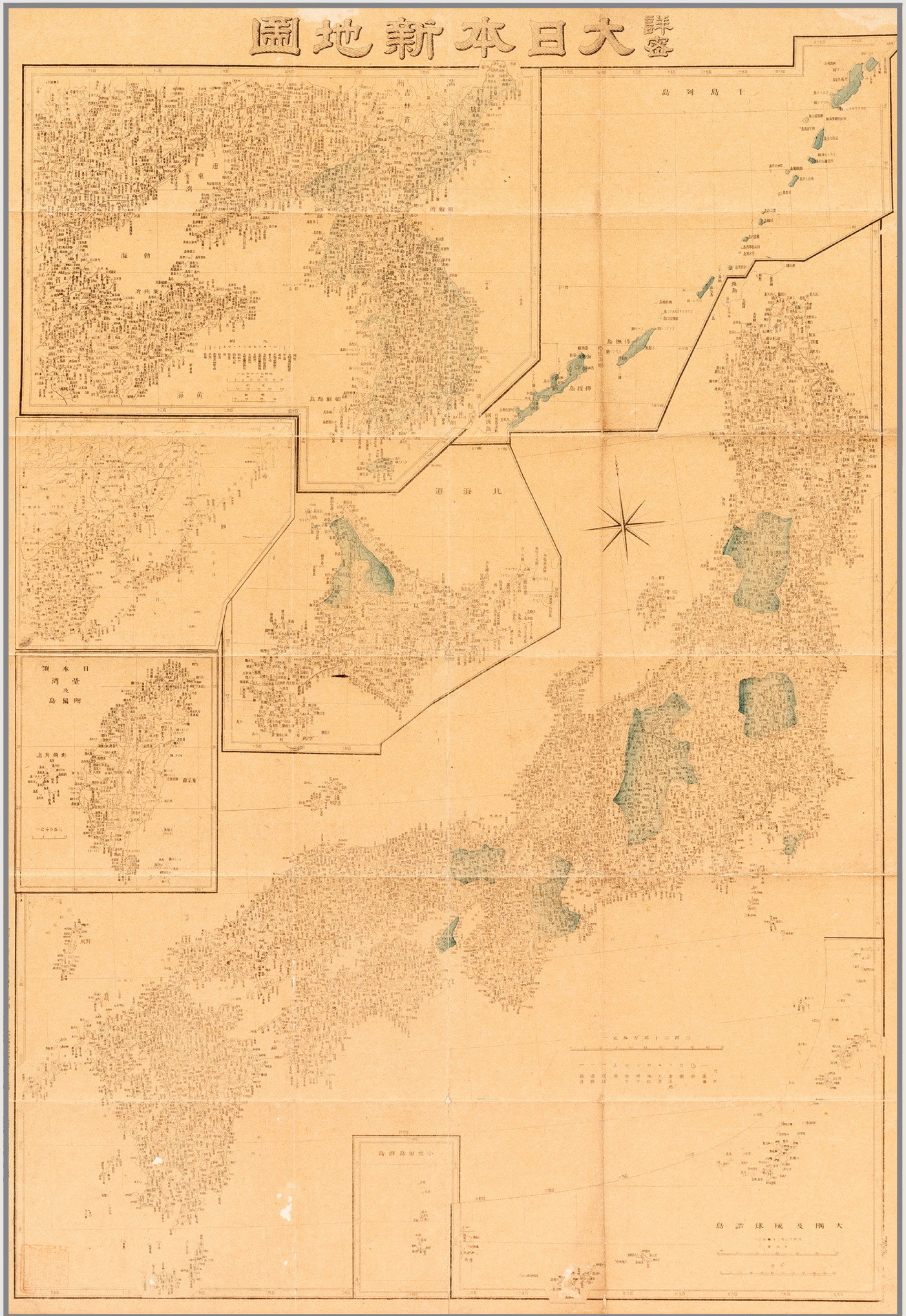
32

상밀대일본신지도 詳密大日本新地圖

제작자 소 모칸(宗孟寬)
 발행연도 1896년
 크기 미상
 소장처 독도박물관

이 지도에는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변방의 치시마제도와 홋카이도, 일본령 대만,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상단에는 조선과 중국의 랴오둥반도(遼東半島) 및 산둥반도(山東半島)가 나타나 있다. 지도에는 지방별 구분과 함께 산지와 하천, 도시, 교통로 등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역이 아닌, 조선의 동해상에 두 개의 섬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독도는 그 동남쪽의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현하였다. 이 지도는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의 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비교적 양호하지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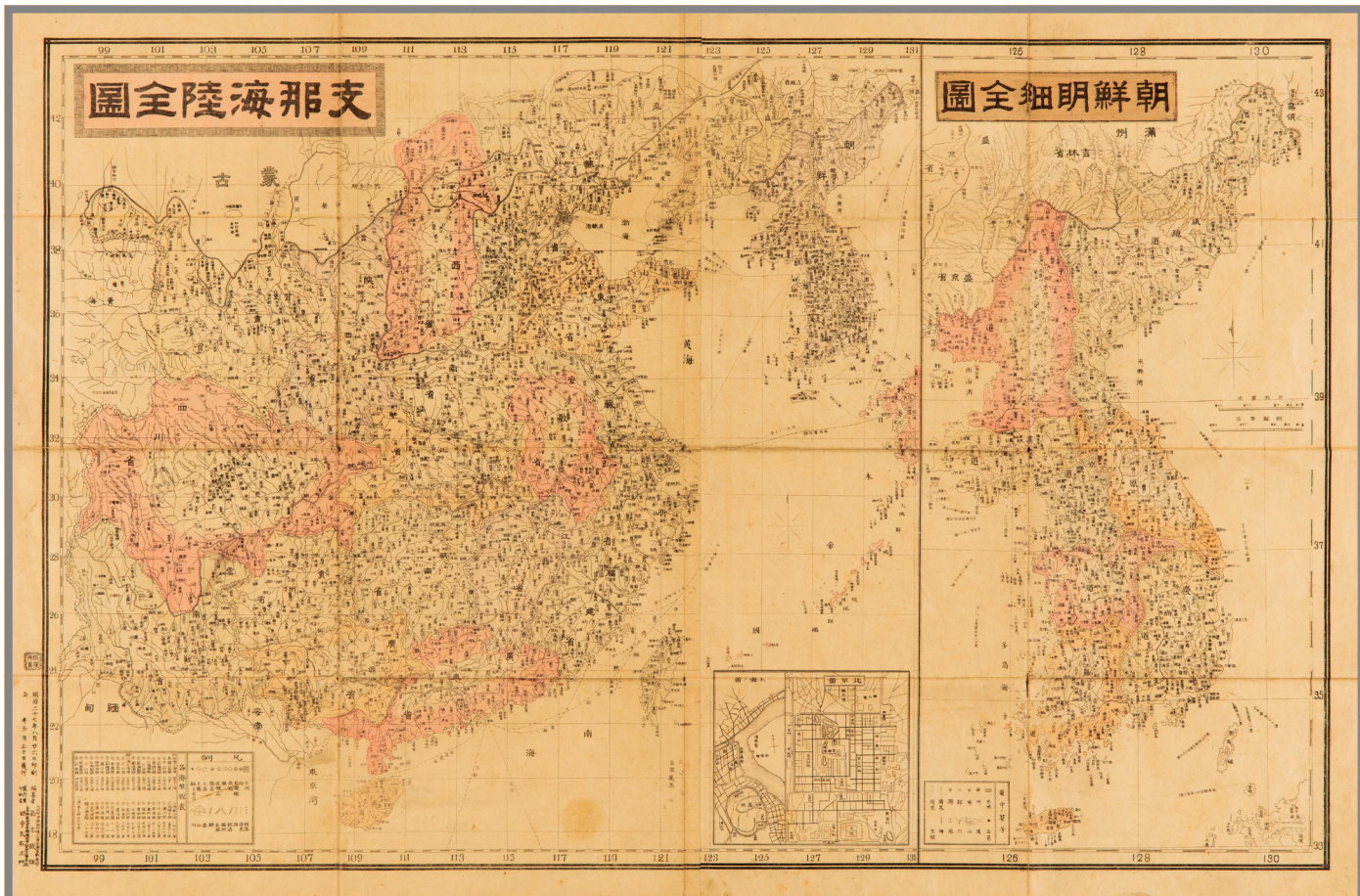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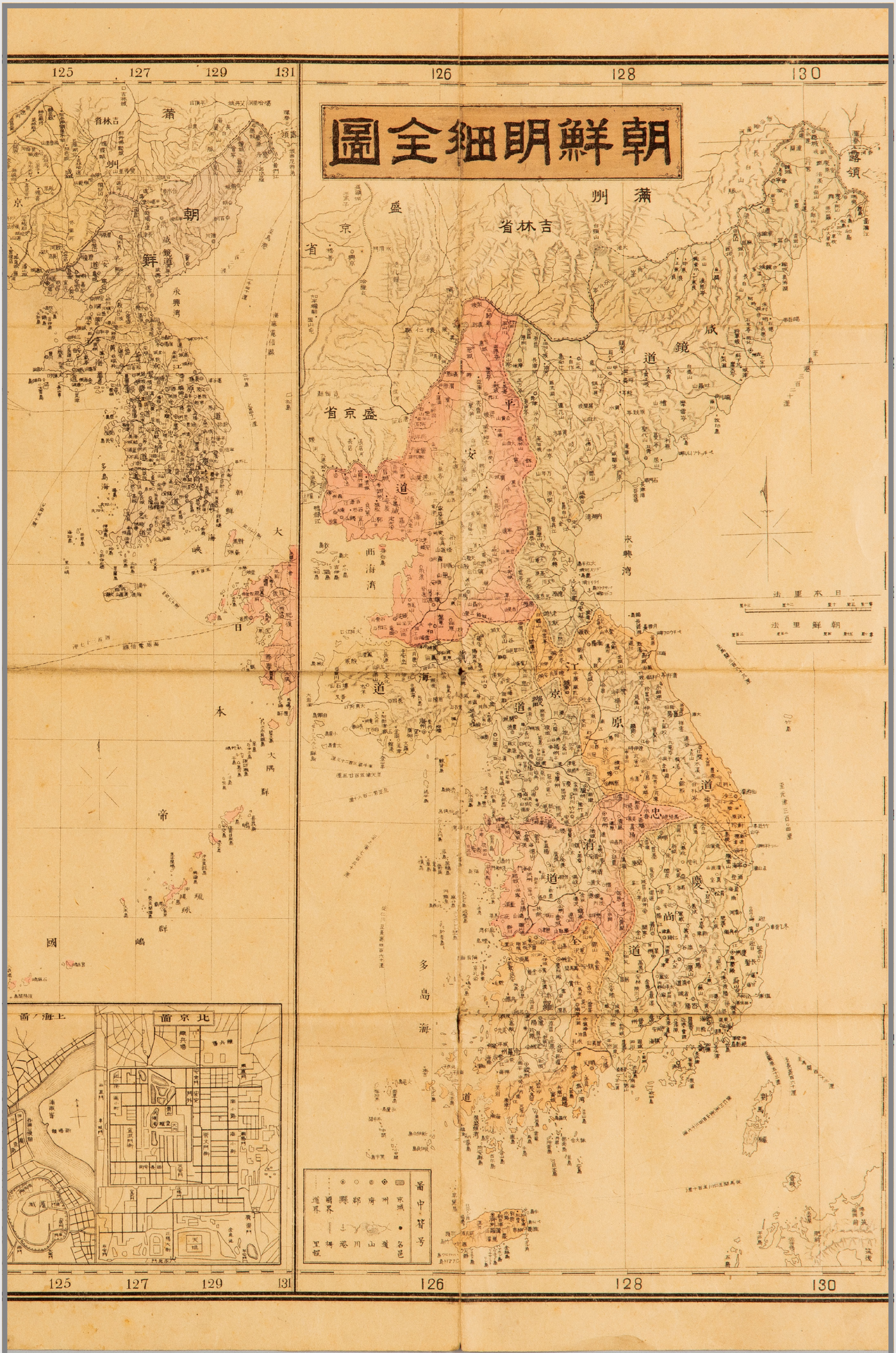
지나해륙전도 조선명세전도

支那海陸全圖 朝鮮明細全圖

제작자 스즈키 마사오(鈴木政雄)
 발행연도 1894년
 크기 80.4×53.4cm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하나의 지면에 중국과 조선의 지도가 각각 제시되었다. 좌측의 「지나해륙전도」는 중국을 성별로 구분하여 산지와 하천, 도시, 국내외 항로와 거리 등을 비교적 상세히 표현하였다. 지도 여백에는 각 항 이정표와 함께 베이징, 상하이의 시가지 약도가 수록되었다. 여기에도 조선이 표현되어 있으나, 우측의 「조선명세전도」에서 조선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 지도에서는 조선 전국을 팔도로 구분하여 지리적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동해상에는 공간 부족으로 단지 울릉도만 나타나 있고 죽도(竹島)로 표기되었다. 반면 「지나해륙전도」에는 강원도 양양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가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 바다에 독도가 송도(松島)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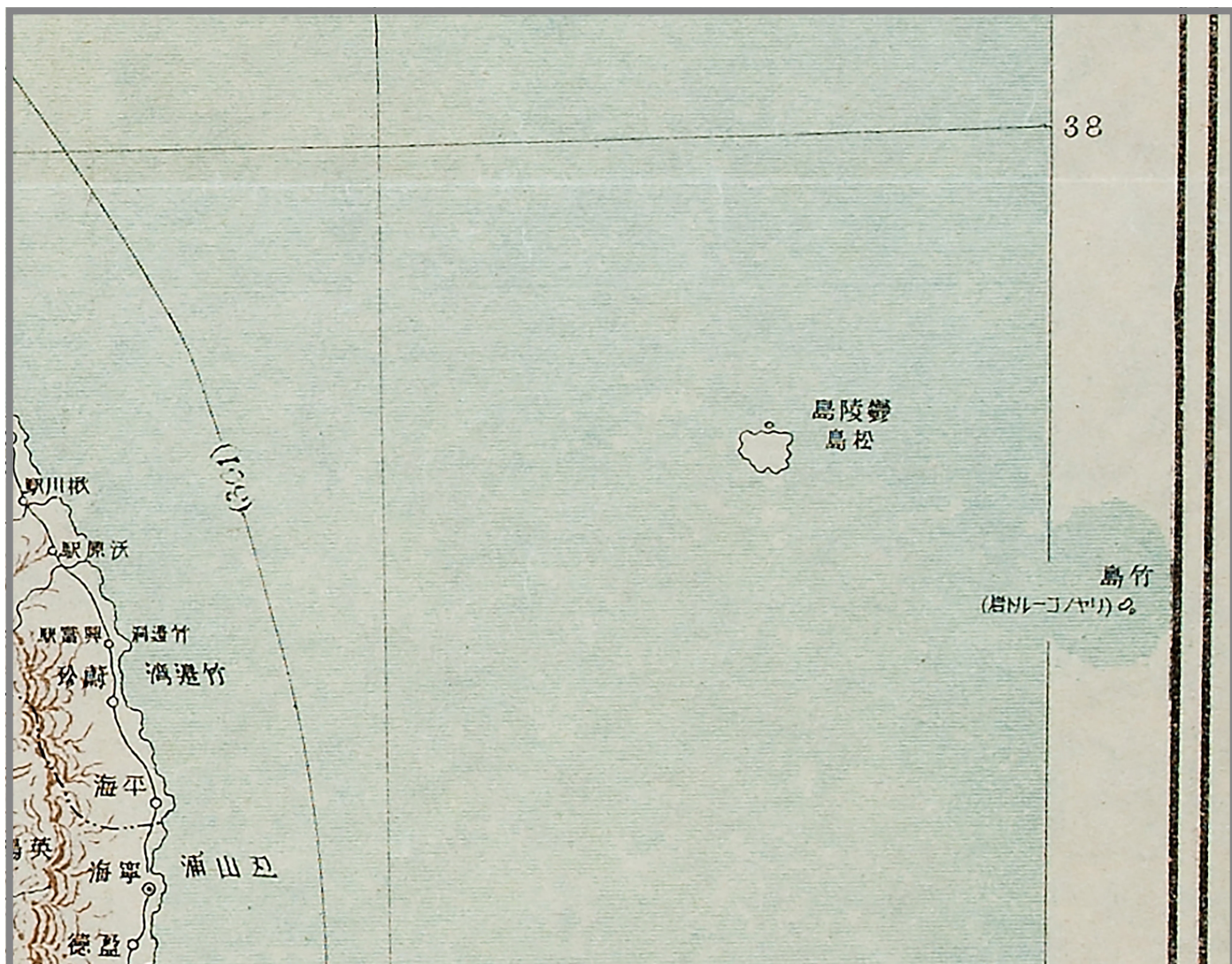
34

『일로전쟁실기』내 한국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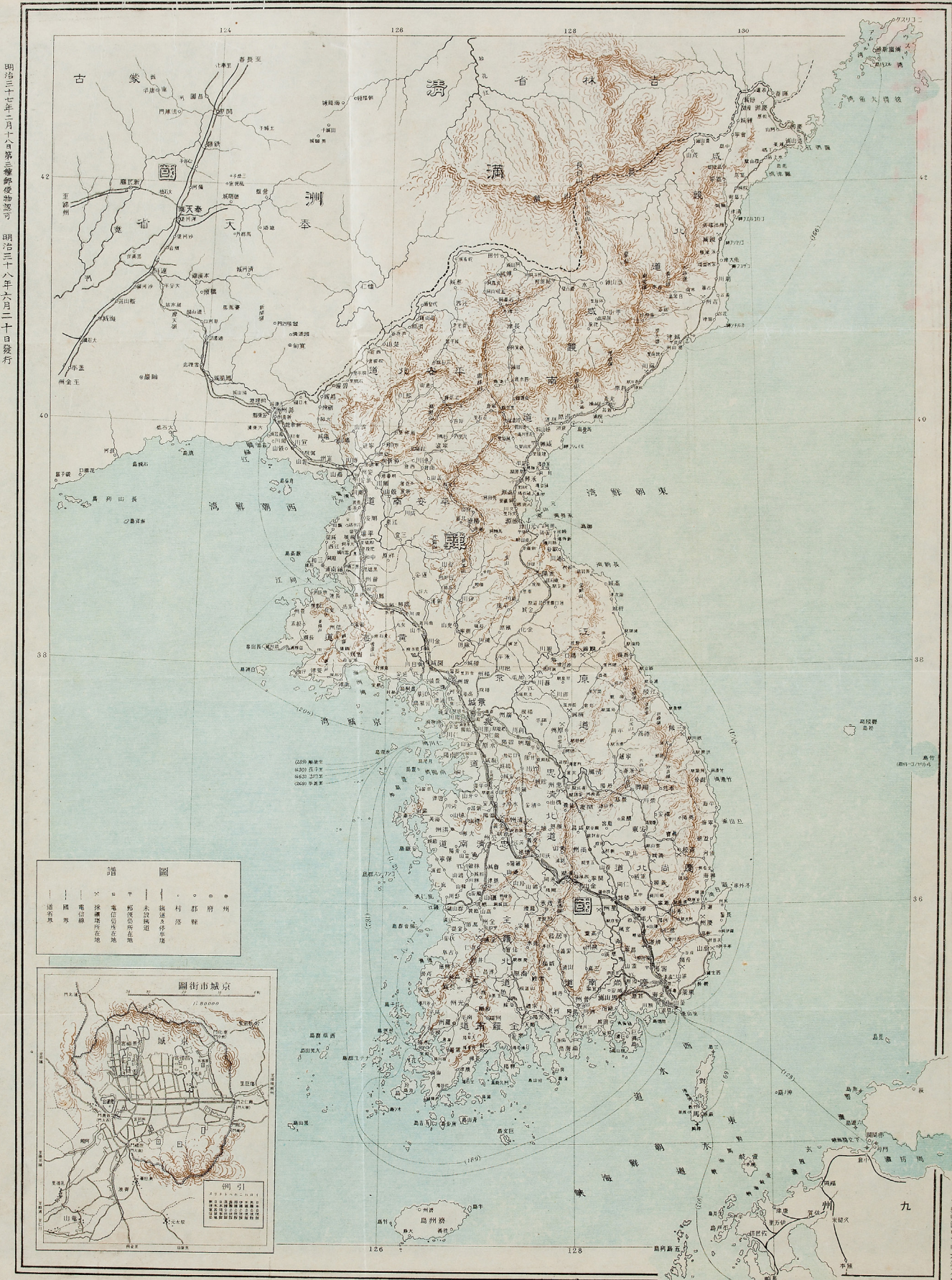
『日露戰爭實記』, 韓國全圖

제작자 사이키 히로나오(齊木寬直)
 발행연도 1905년
 크기 34.2×47.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일로전쟁실기』라는 잡지의 제76편에 부록으로 수록된 것이다. 한반도 형상은 근대적 측량 성과가 반영되어 비교적 정확하며, 행정지명을 비롯하여 철도, 우편국, 전신국, 광산 소재지 등이 상세히 표시되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및 형상도 비교적 정확하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독도의 명칭을 죽도(竹島)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울릉도 송도(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동도와 서도 옆에 죽도(리양쿠르암)[竹島 (リヤノコールト岩)]으로 표기되었다. 이 책의 본문에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어 일본의 영토가 된 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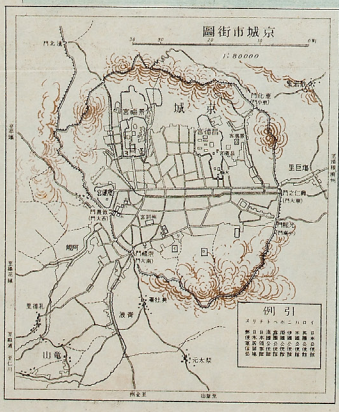
圖全國韓



明治三十七年二月六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明治三十八年六月二十日發行

博文館發行 日露戰爭實記 第七十六編附錄 (不許複製)

圖說
● 府州
○ 郡縣
○ 村莊
○ 郵政機關
○ 電信局
○ 電報局
○ 鐵道
○ 國界
○ 領土
○ 領海
○ 領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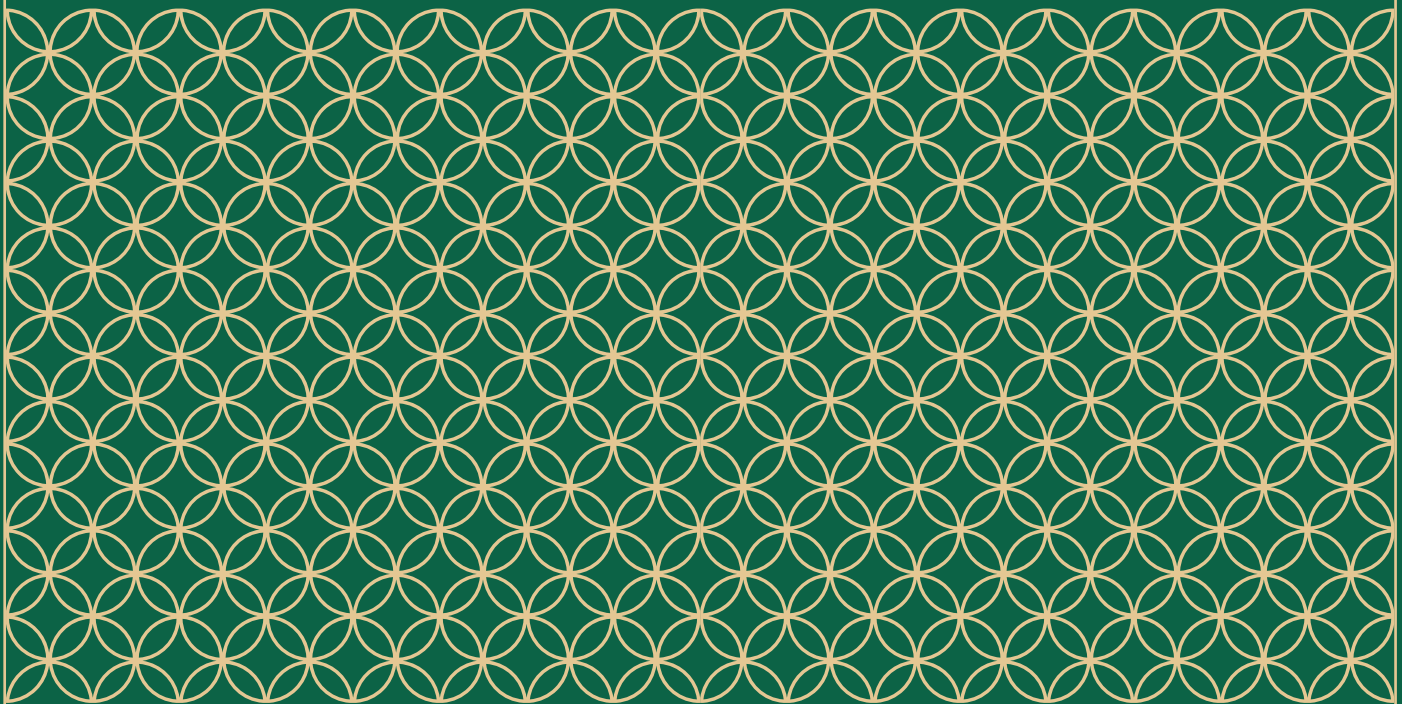
館文博 品標本日京東 所行發 道廣本業 人行院集編
長委各米 人 刷 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19세기 말 일본 정부 공식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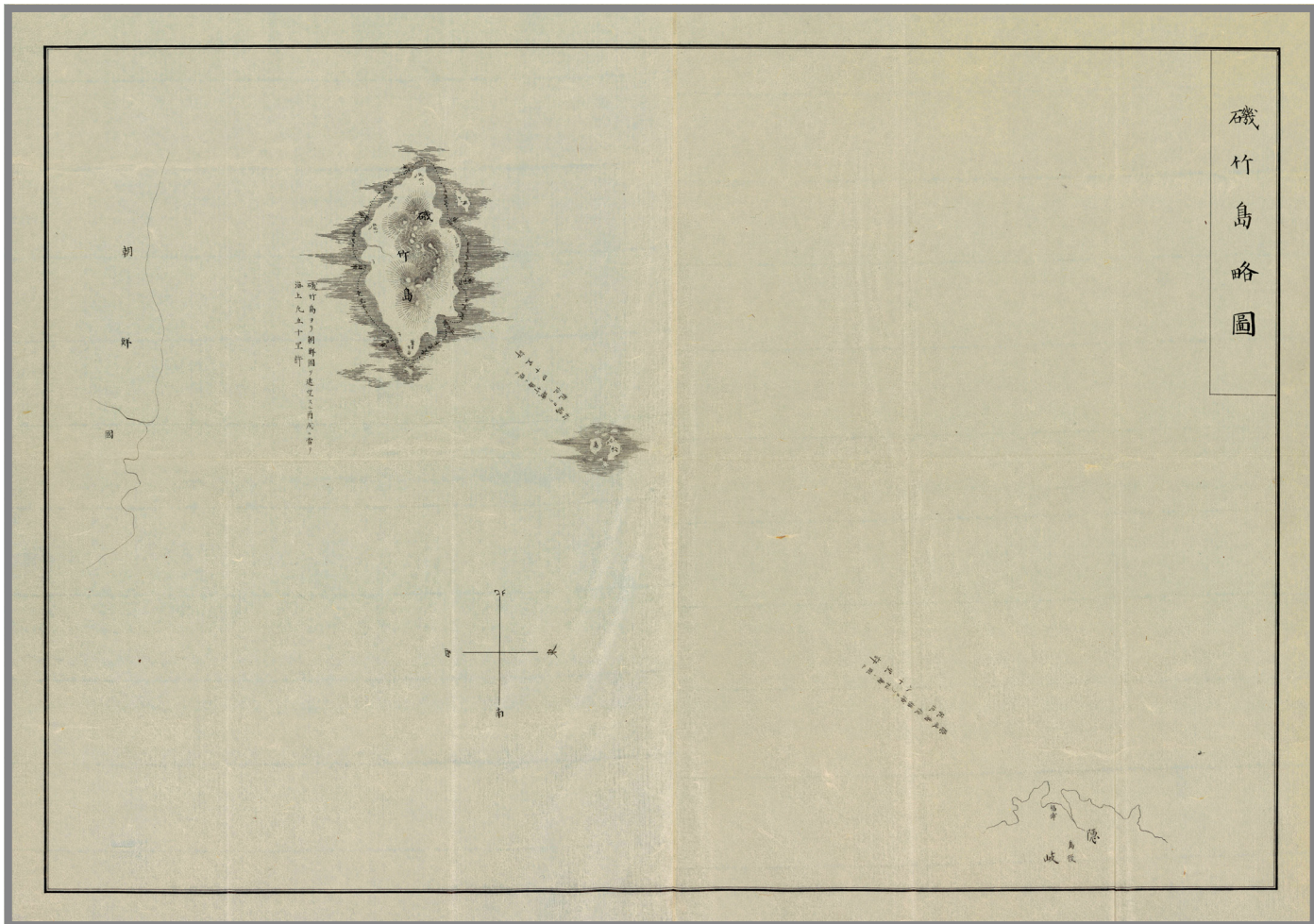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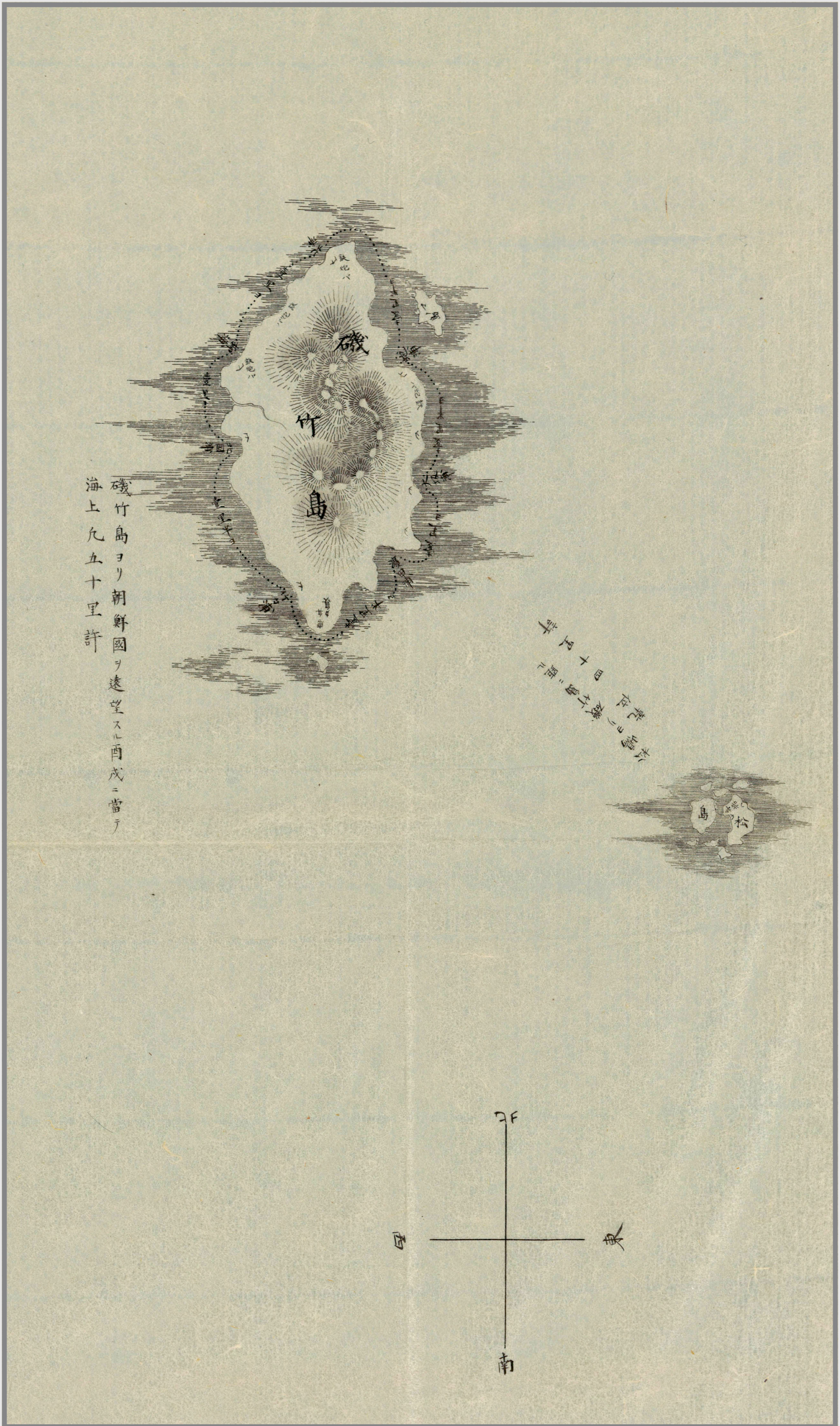
기죽도약도

磯竹島略圖

제작자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太政官)
 발행 연도 1877년
 크기 30.8×50.8cm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기죽도약도」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첨부된 것이다.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40리, 독도와 오키섬 사이가 80리로 기재되어 거리 관계는 실제와 거의 일치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내무성은 일본 전역의 지적 편찬 사업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시마네현의 지적편제계는 ‘울릉도 이외에 한 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한 질의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은 5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섬은 일본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내무성은 국가의 영역 문제는 매우 신중하다고 판단하여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울릉도(竹島) 외 한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문서를 내무성에 회신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전도, 시마네현 전도, 오키 전도 등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되거나 일본과 무관하게 표현되었다. 이 지도상에 울릉도는 기죽도(磯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기재되었다.





36

관판실측일본지도

官板実測日本地圖

제작자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발행 연도 1870년
크기 미상
소장처 개인

이 지도는 1821년에 제작된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바탕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노 다다타카와 그의 제자들은 일본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 17년(1800~1816)에 걸쳐 일본 전국을 실제 측량했다. 1818년에 이노 다다타카가 별세하고, 1821년 그의 제자들이 「대일본연해여지전도」를 완성하여 막부(幕府)에 헌납했다. 이 지도를 완성하기까지 측량대 일행은 오키제도까지 일본 영역으로 판단하여 측량했지만, 그 북서쪽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역 밖으로 간주하여 측량하지 않았으며 지도에서도 제외하였다. 이 지도는 오랫동안 막부의 기밀 사항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1867년 막부개성소가 관찬으로 발행했으며, 1870년 문부과학성의 전신 다이가쿠난코(大學南校)에서 발행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 「관판실측일본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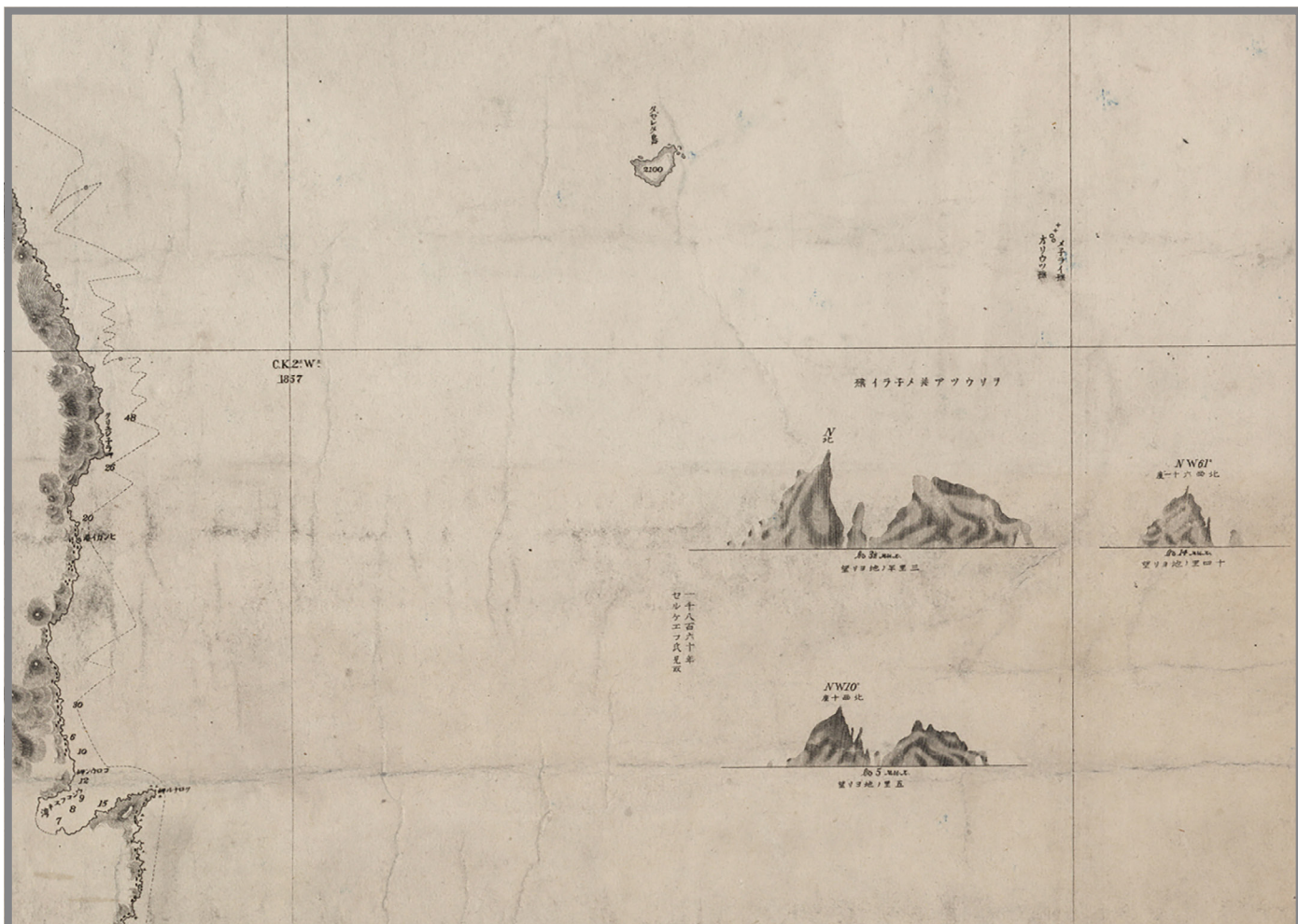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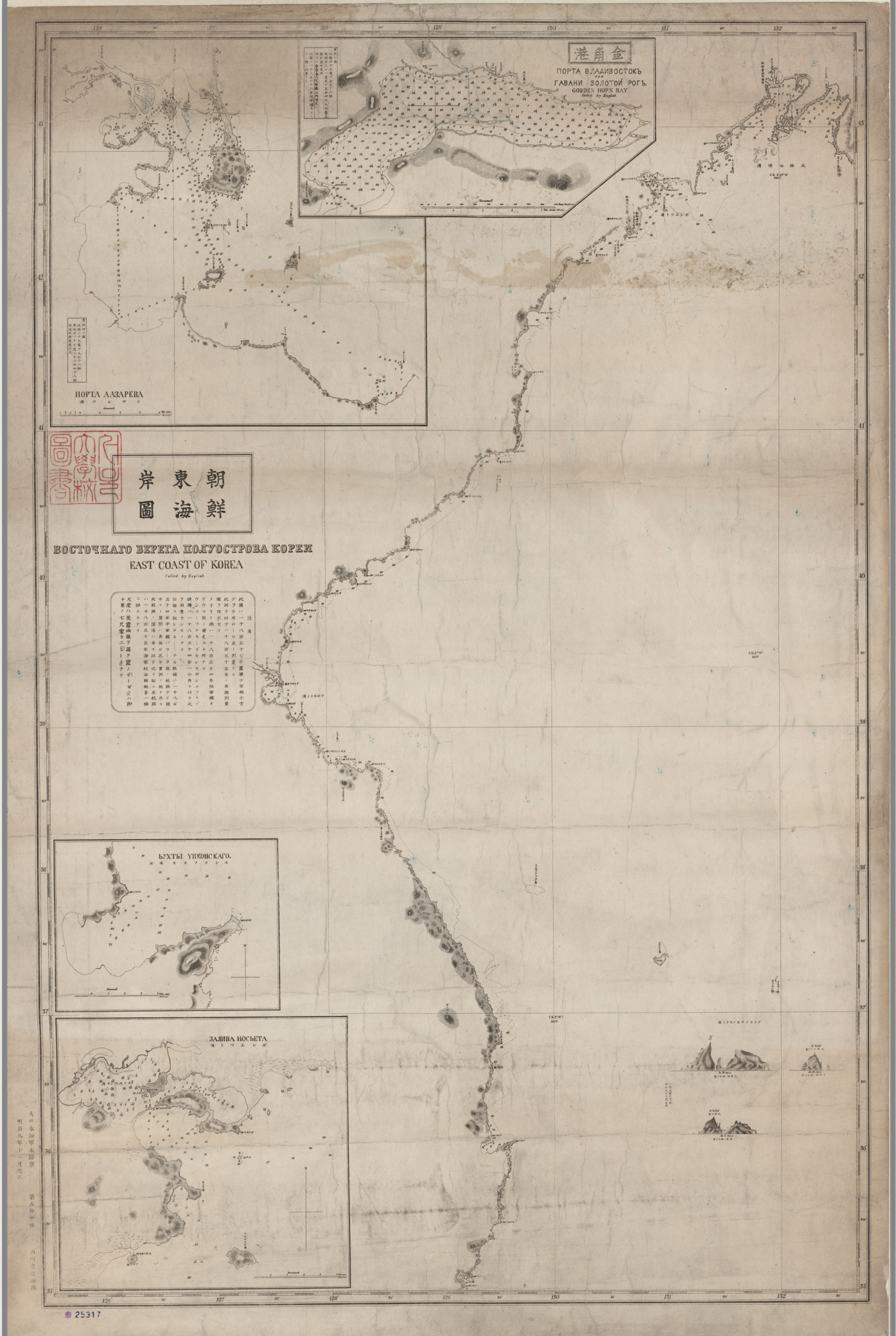
조선동해안도

朝鮮東海岸圖

제작자 일본 해군수로부(海軍水路部)
발행 연도 1876년
크기 63.5×98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지도는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를 일본 해군이 1876년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것이다. 러시아 해군은 팔라다(Pallada)호의 장교들이 1854년 한반도 동해안을 탐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선동해안도」를 완성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섬의 명칭은 러시아어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로 표기하였다. 이후 이 지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었다. 일본 해군이 번역하여 간행한 「조선동해안도」에는 가타카나로 독도의 서도가 오리우츠(オリウツ), 동도가 메네라이(メネライ)로 표기되었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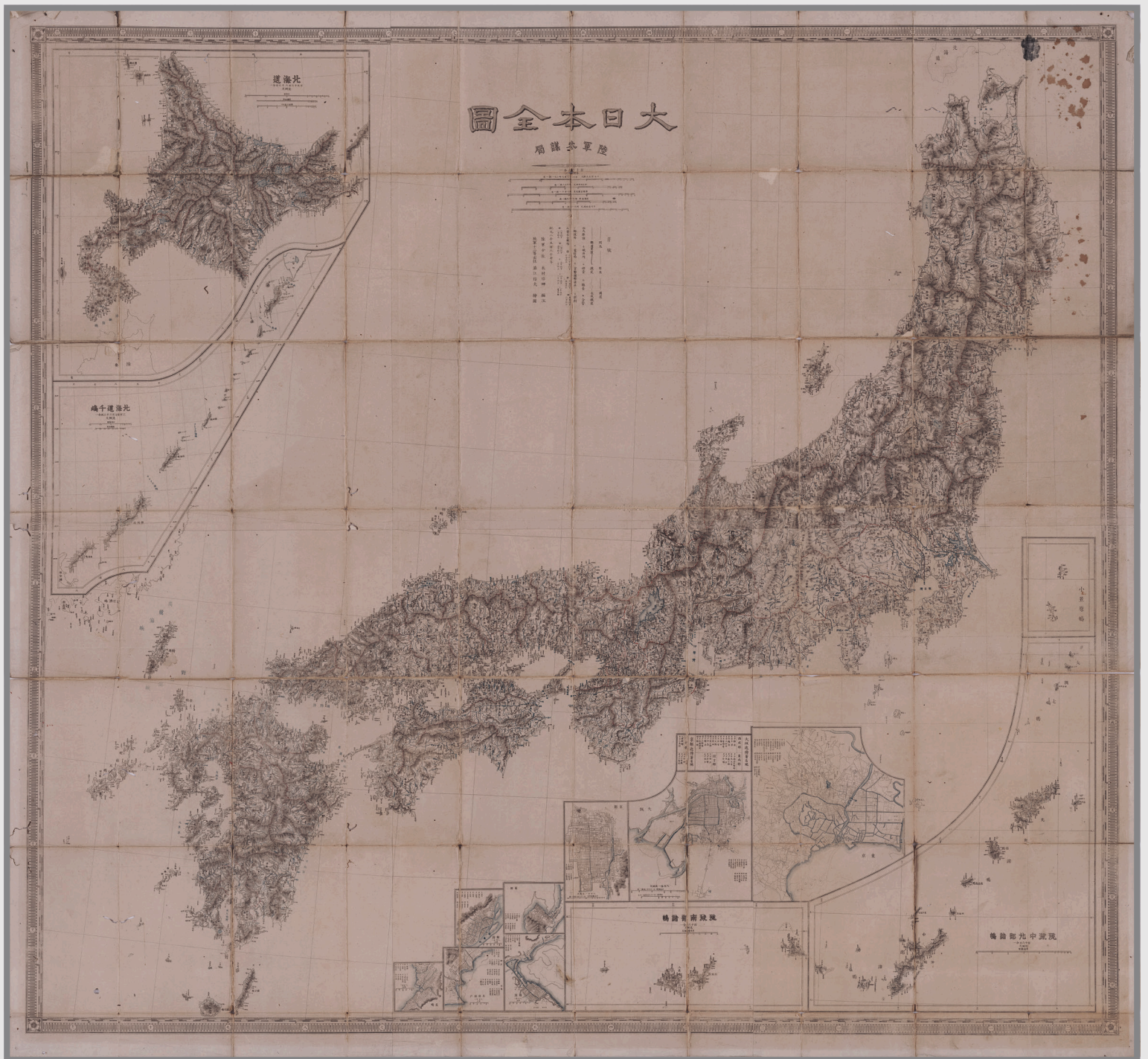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제작자 일본 육군참모국(陸軍參謀局)
발행 연도 1877년
크기 123×115cm
소장처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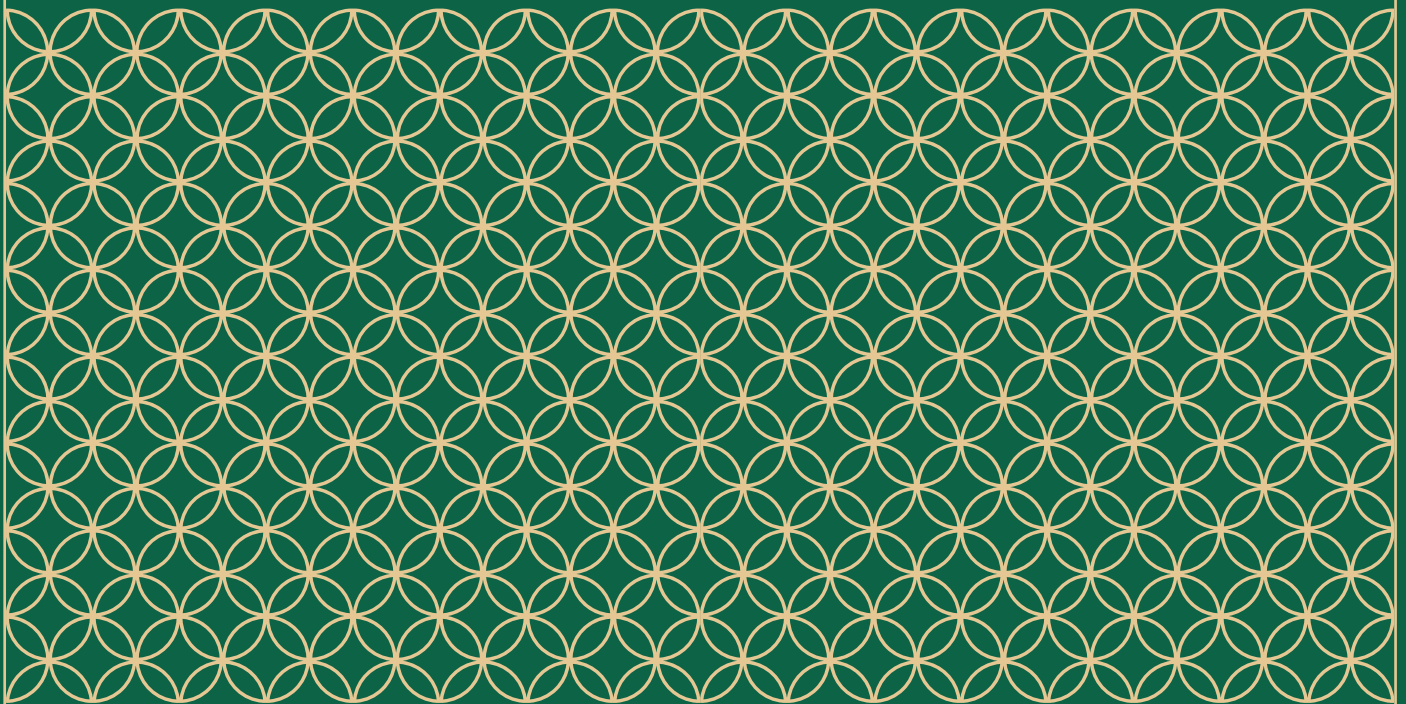
일본 메이지 정부는 내무성, 육군참모국, 해군수로부 등 여러 기관에서 각종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 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친 것은 1821년에 간행된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이다. 이 지도에는 오키제도 북서쪽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역 밖으로 간주하여 두 섬이 제외되어 있다. 1877년 육군참모국이 편찬한 「대일본전도」는 육군 소좌 기무라 노부야키(木村信卿)가 편차(編次)하고, 육군참모국 관리였던 시부에 노부에(渋江信夫)가 그렸다. 축척은 1:116만으로, 주요 섬 이외에 변방의 치시마제도, 류큐제도, 오가사와라제도 등이 상세히 표현되었다. 그러나 육군참모국의 「대일본전도」에도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제외되었다.





5.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시마네현 지도



39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

『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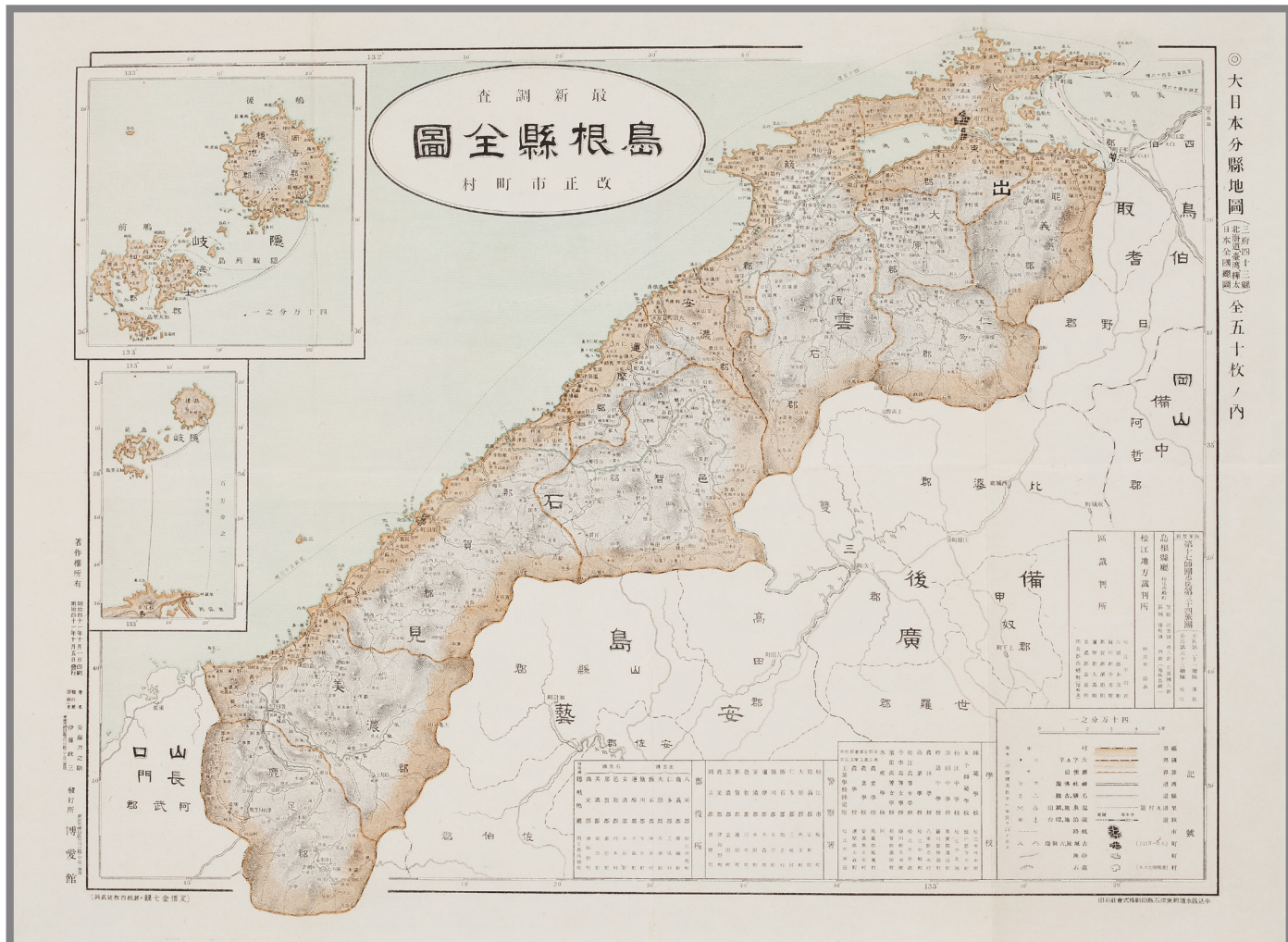
제작자 안도 리키노스케(安藤力之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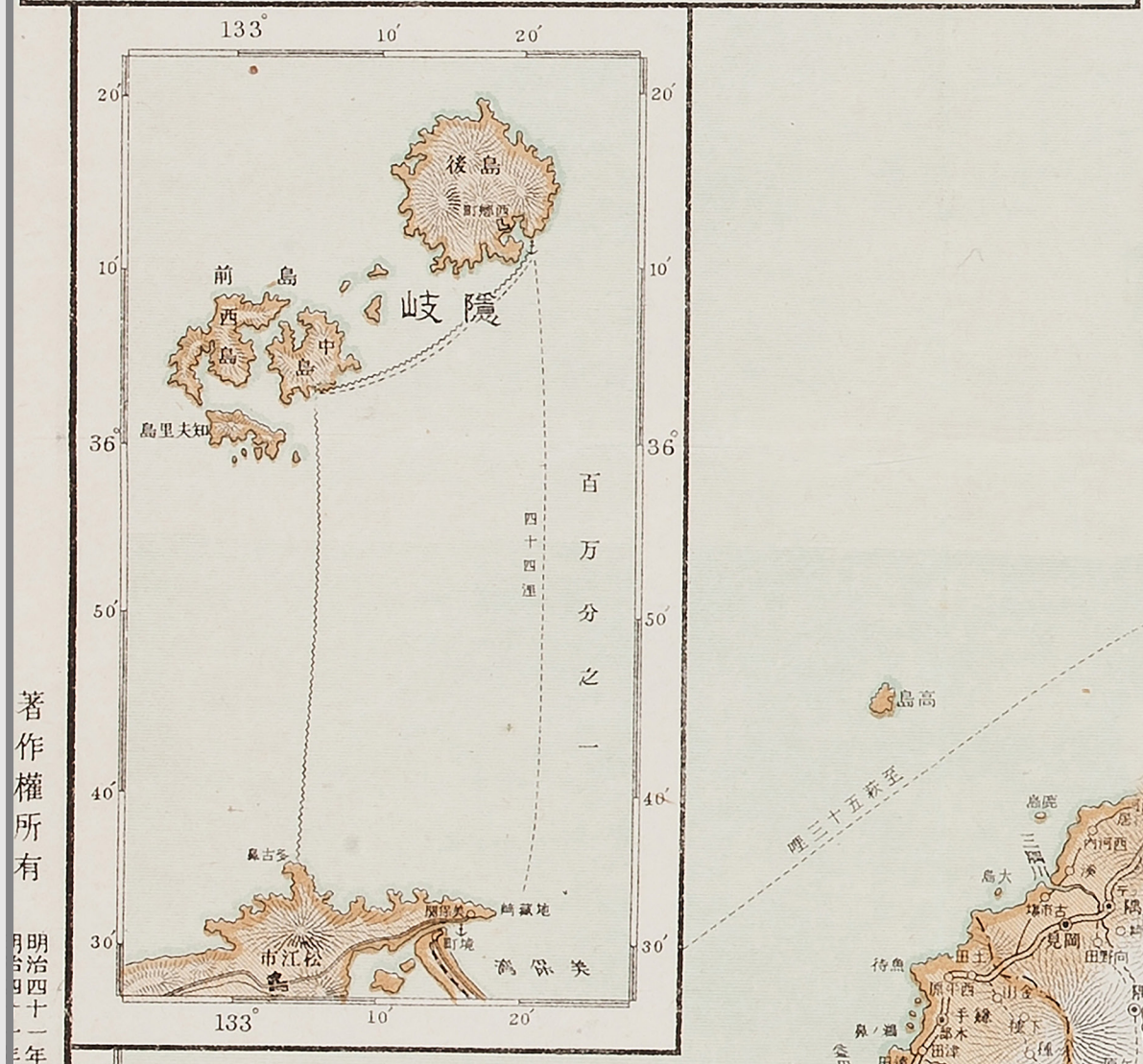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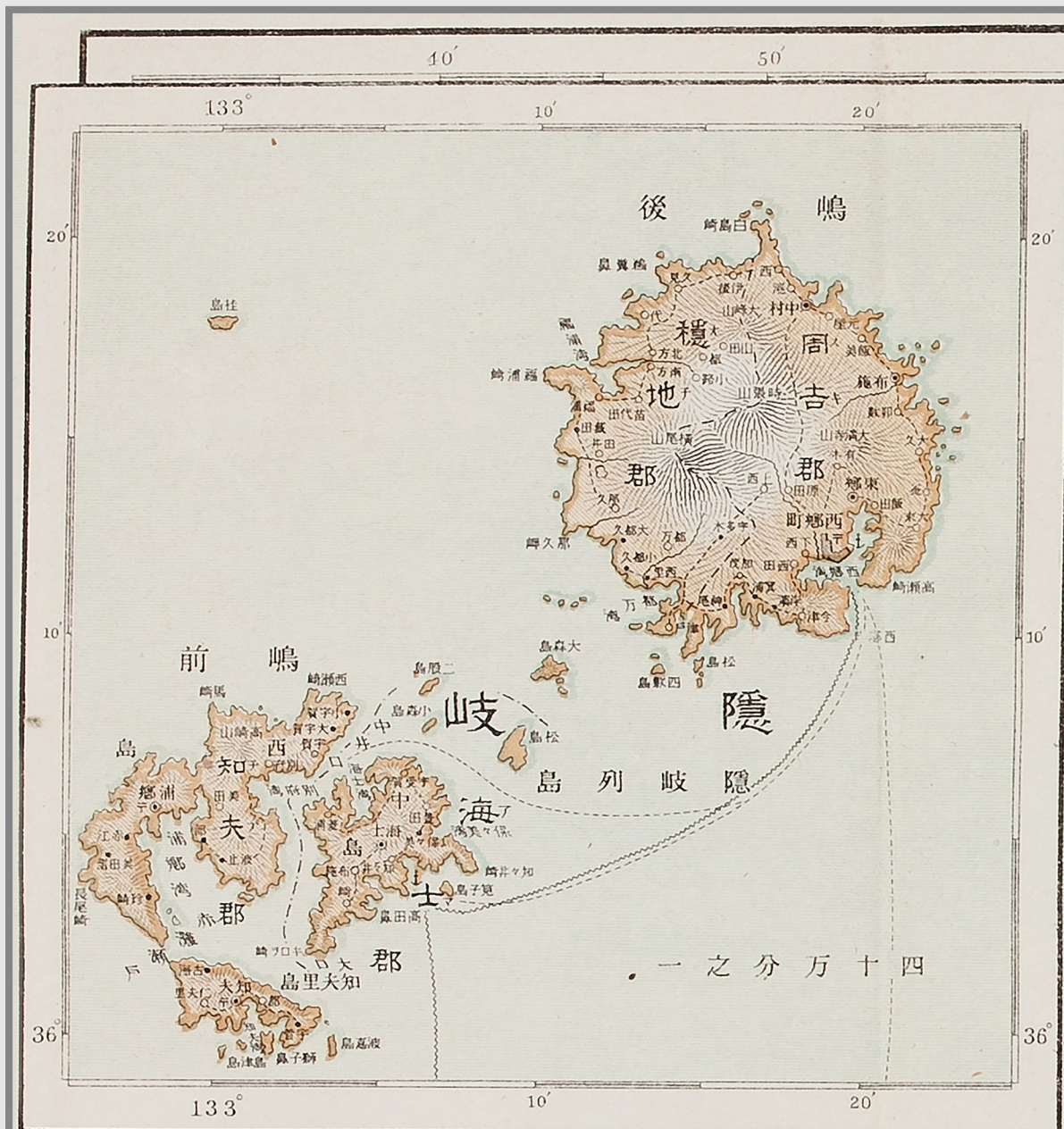
발행 연도 1908년

크기 47×34.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것으로 『대일본분현지도』 전 50장 가운데 하나이다. 1905년 2월 일본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지만, 이 지도에는 독도가 그들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제도는 시마네현 북서쪽 바다에 별도로 나타나 있다. 저자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보았다면, 오키제도 지도 부분에 독도를 표시했어야 했다. 이 지도가 간행된 1908년 시점에 독도가 일본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민간의 지도 제작자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著作權所有

明治四十一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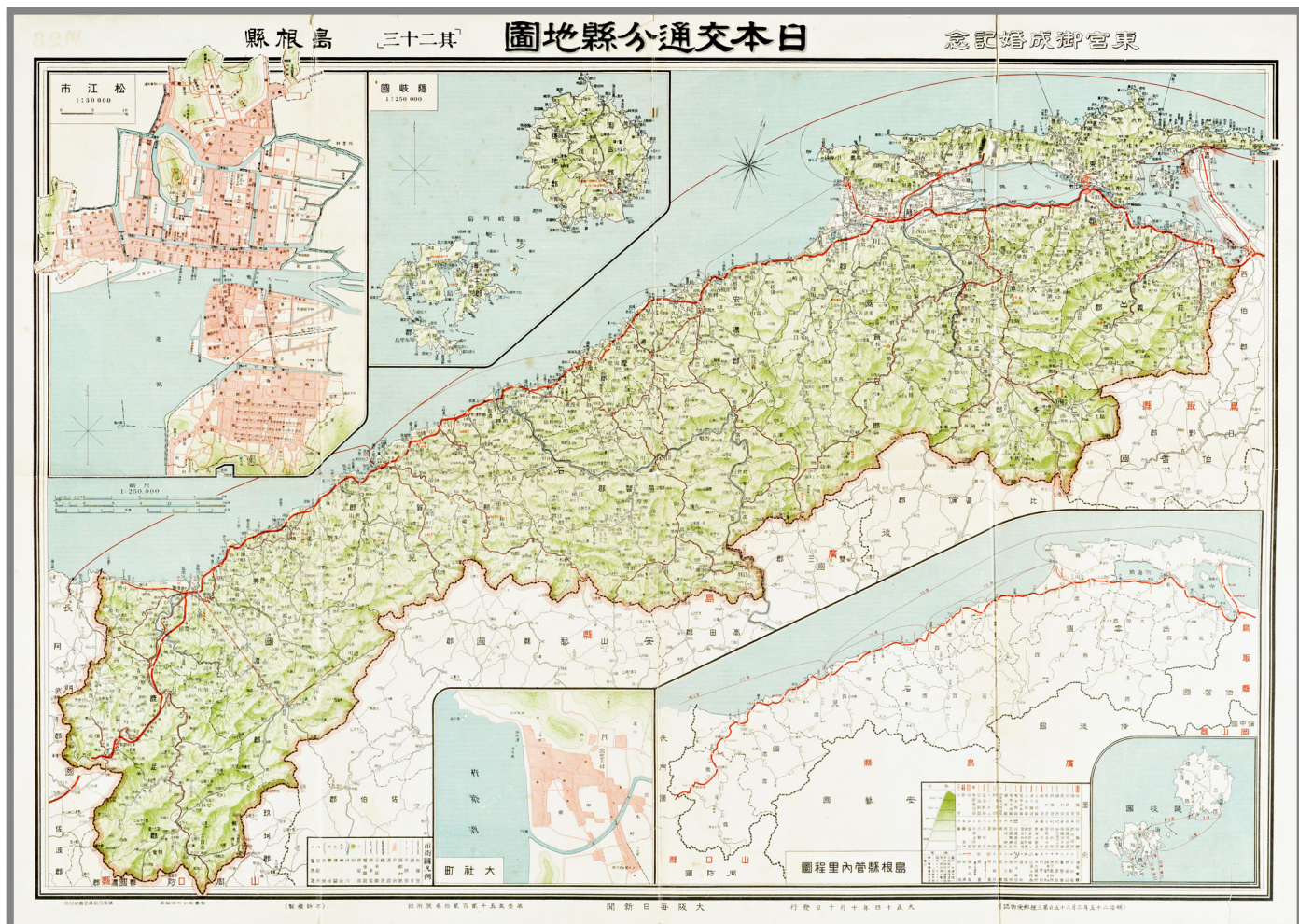
40

일본교통분현지도-시마네현

日本交通分縣地圖-島根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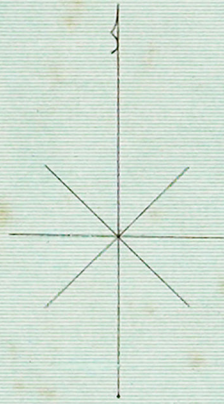
제작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大阪毎日新聞社)
 발행연도 1925년
 크기 78x54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일본의 교통 형편을 현별(縣別)로 나누어 제작한 것이다. 시마네현 전체를 초록색으로 표시하였고, 산지와 하천을 비롯하여 도시와 도로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관내의 이정표와 시마네현의 현청 소재지 마쓰에시(松江市)의 약도가 삽도로 제시되었다. 오키국(隱岐國)도 주요 섬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독도는 그들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제외되어 있다. 1905년 2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지만, 지도 제작자는 여전히 독도가 일본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國 岐 隱

1 : 250 000



島 列 岐 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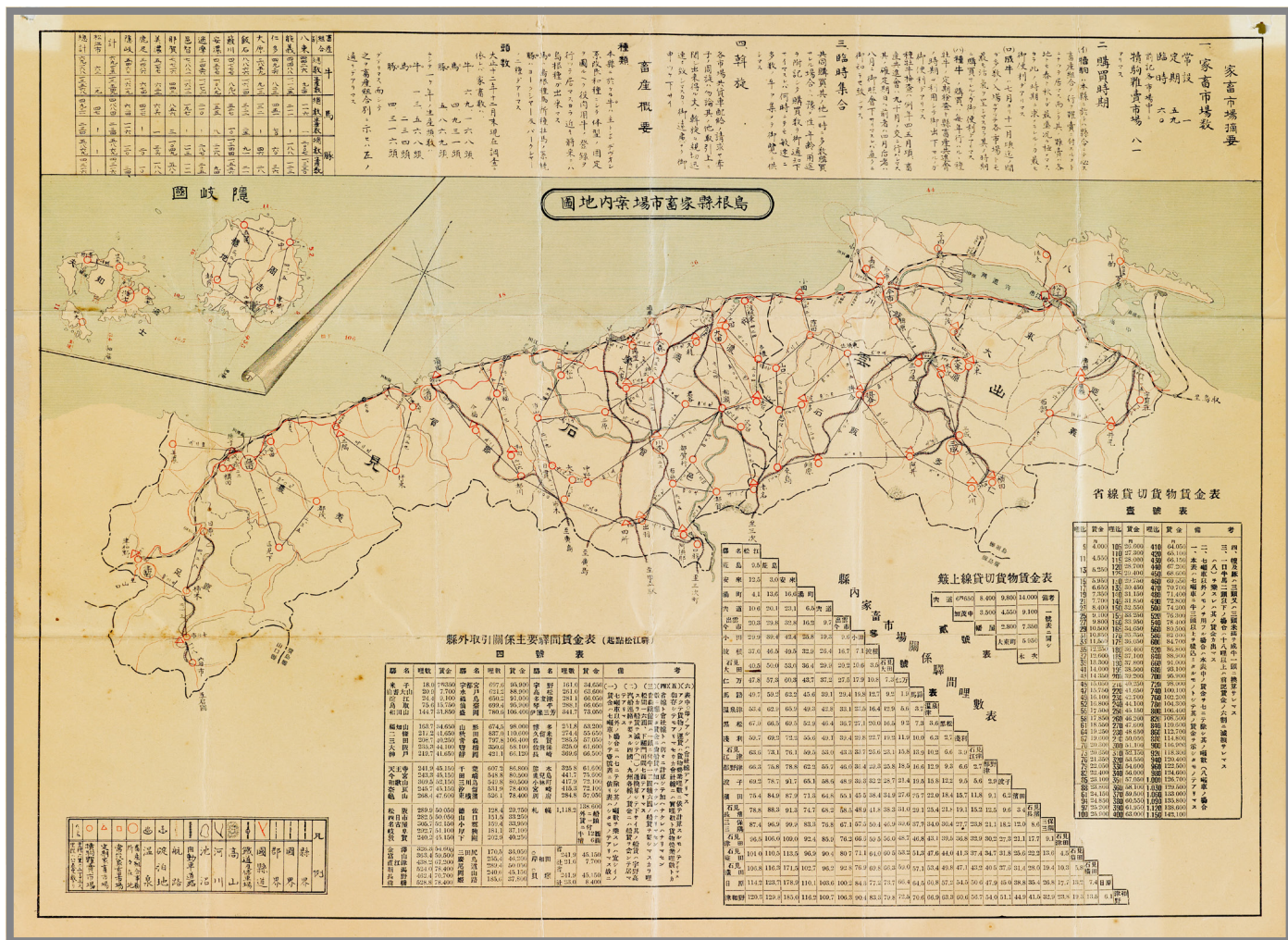
41

시마네현 가축 시장 안내 지도

島根縣家畜市場案內地圖

제작자 시마네현
 발행연도 1925년
 크기 59×40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에는 시마네현의 가축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시마네현 관내 가축 시장의 수, 구매 시기, 임시 집합, 개장 시기를 비롯하여 운반 수단으로 철도 시간표 등이 표로 기재되었다. 지도에는 시마네현의 산지와 하천은 간략하게 나타내었고, 각 지역의 축산조합사무소 소재지, 정기 가축 시장, 철도, 도로, 거리 관계 등을 비교적 자세히 나타내었다. 북서쪽에 있는 오키국(隱岐國)에도 비슷한 지리적 정보를 수록하였으나 독도는 제외되었다. 1905년 2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지만, 지도 제작자는 그러한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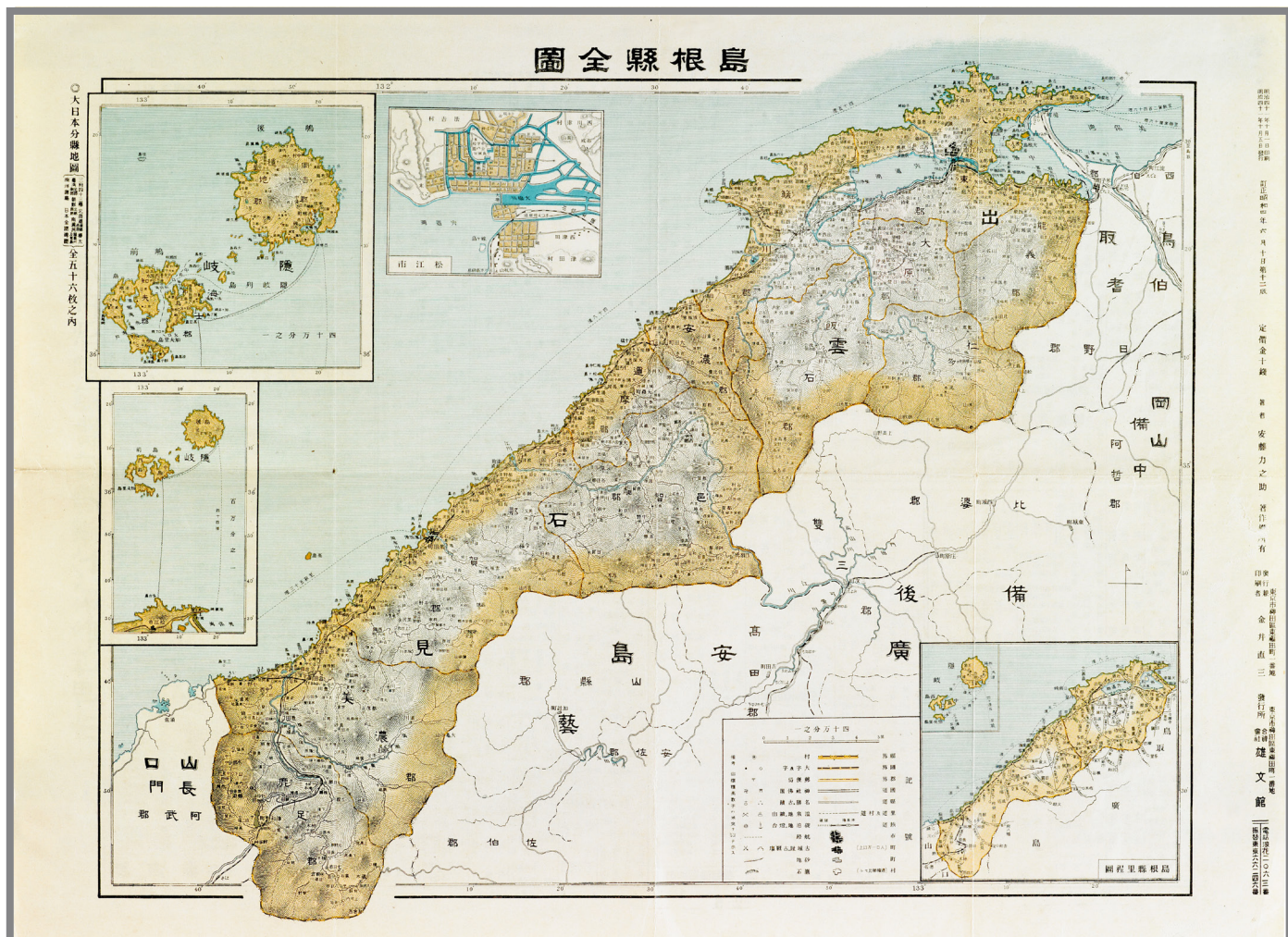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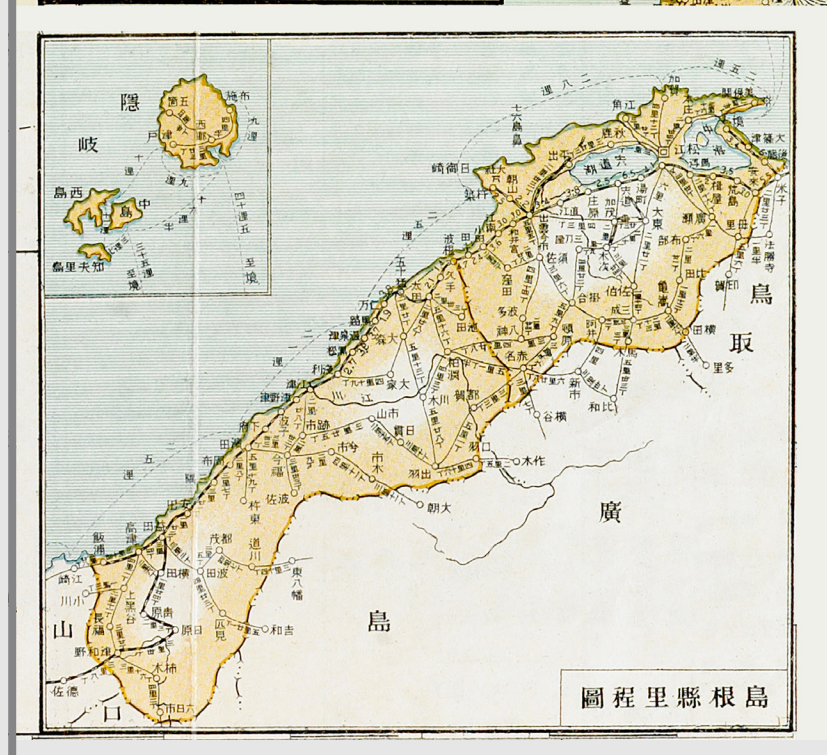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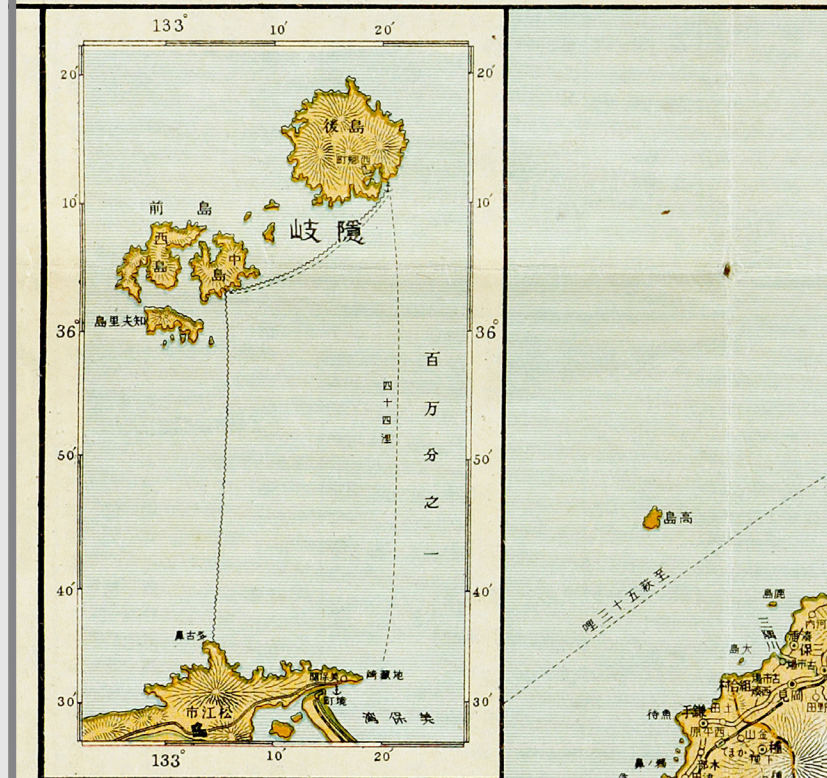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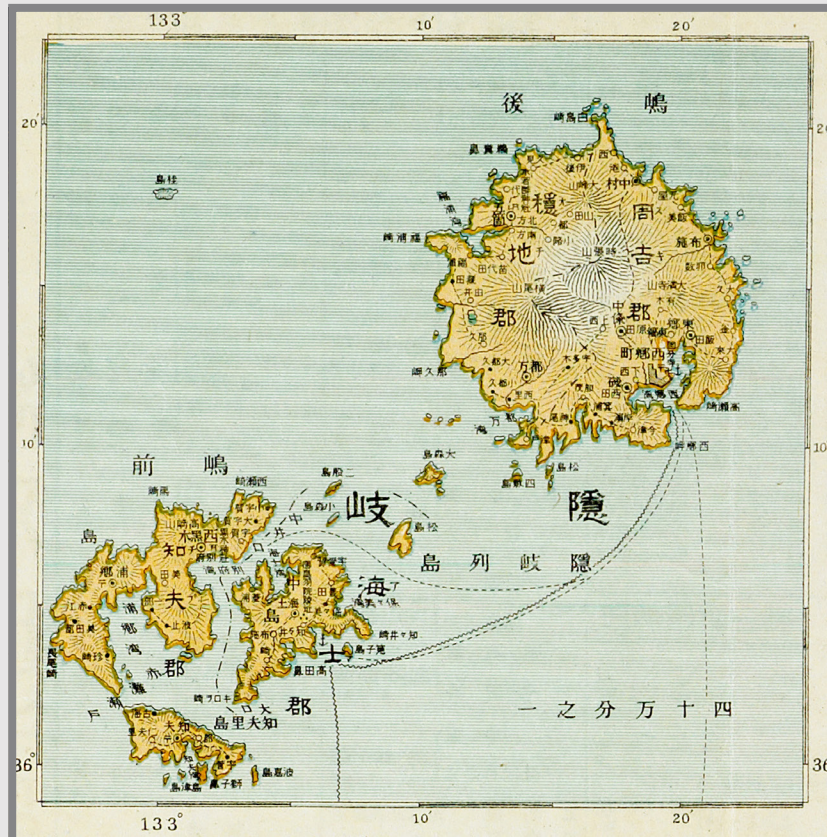
42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 『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제작자 안도 리키노스케(安藤力之助)
 발행연도 1929년
 크기 54×40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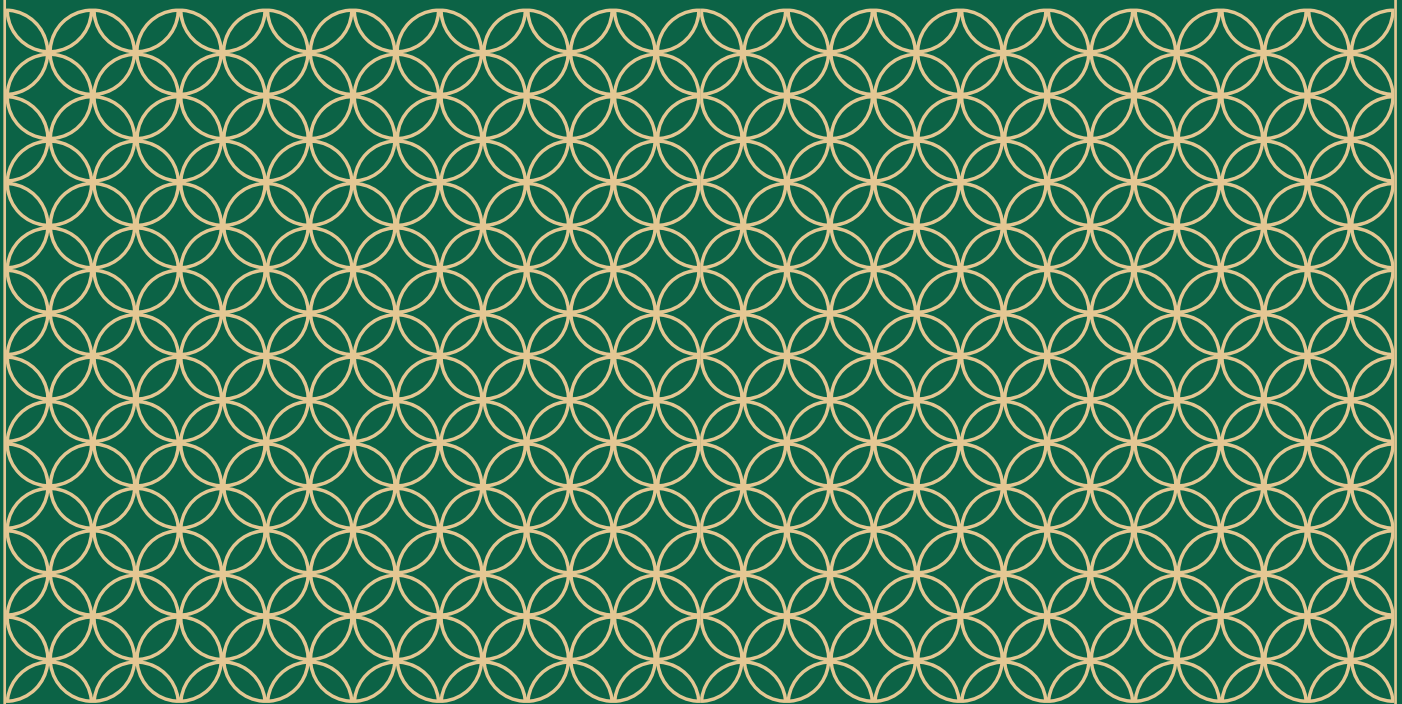
이 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것으로 『대일본분현지도』 전 56장 가운데 하나이다. 축척 1:4천만의 지도로, 시마네현은 주변 지역과 구분하고자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산지는 우모식으로, 하천은 지류까지 표현되었고, 도시와 취락, 도로 등도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이 지도에 삽입된 오키제도 지도는 1:40만 지도, 1:100만 지도, 시마네현리정도(島根縣里程圖) 등 세 부분으로 나타내었으나, 여기에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1905년 2월 독도가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되었지만, 지도 제작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6.

동해 표기 관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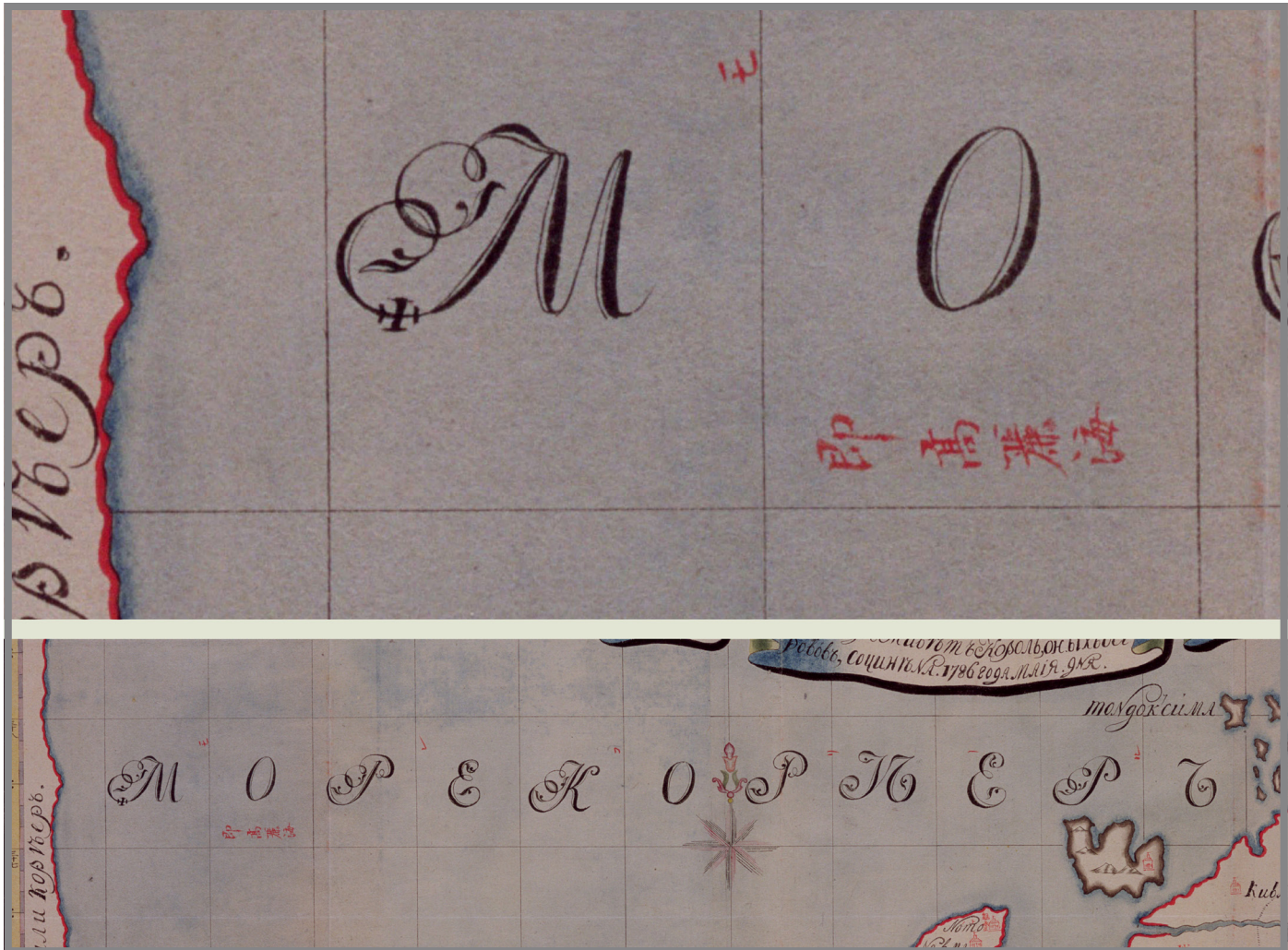
43

『북사문략』 내 황조여지전도

『北槎聞略』, 皇朝輿地全圖

제작자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
 발행 연도 1794년
 크기 미상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의 고지도에서 최초로 조선해 지명이 표기된 것은 1794년 가쓰라가와 호슈가 간행한 『북사문략』에 수록된 「아세아전도(亞細亞全圖)」와 「황조여지전도」이다. 이 책의 내용과 수록된 지도는 러시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에도 시대 후기 미에현(三重県)을 중심으로 운수업을 했던 선장 다이고쿠야 고다유(大黒屋光太夫) 등은 1782년 에도로 향하던 중 강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표착하였다. 그렇게 선박의 일행은 러시아에서 10년 가까이 지냈으며,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예카테리나 2세를 만나 고향으로 귀국하기를 소원하여, 마침내 1792년 홋카이도 네무로(根室) 항구로 돌아왔다. 가쓰라가와 호슈는 에도 시대 후기에 활약한 막부의 의사로 세계 지리와 러시아 지리 연구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다이고쿠야 고다유 일행의 러시아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북사문략』을 저술하여 막부에 헌상하였다. 이 책에는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여정과 러시아의 언어, 지명, 풍토, 지리, 역사, 산업, 교육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다이고쿠야 고다유 등이 가져온 10장의 사본 및 번역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황조여지전도」에는 동해 해역의 중앙에 고려해를 뜻하는 러시아어 Море Корпёръ와 한자 高麗海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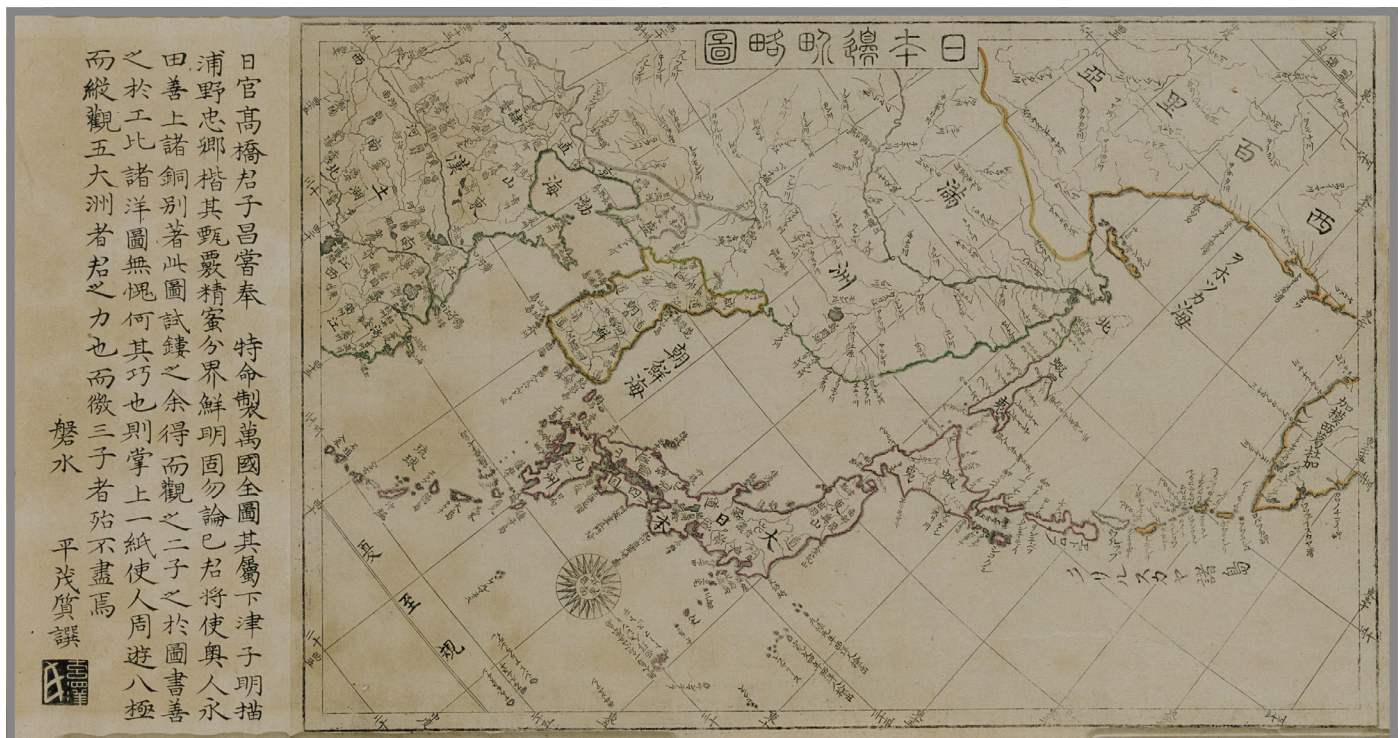
44

일본변계약도

日本邊界略圖

제작자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발행연도 1809년
 크기 24×35.1cm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은 18세기 말부터 서양인들의 동해 해역 탐사와 쿠릴열도를 남하하는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세계 정세를 파악하려면 세계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막부는 천문방(天文方) 다카하시 가게야스에게 세계 지도를 완성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세계 지도를 제작하기에 앞서 일본 주변의 정세 파악이 긴요하다고 여겨 1809년 「일본변계약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에는 일본열도와 그 주변의 조선과 만주, 연해주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을 보면, 조선의 우측 바다에 세로로 조선해(朝鮮海)가 표기되었다. 동해상의 원산만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었다. 이 부분은 조선의 문헌을 참고한 것으로, 독도가 천산도(千山島)로 표기된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우(于) 자를 천(千)으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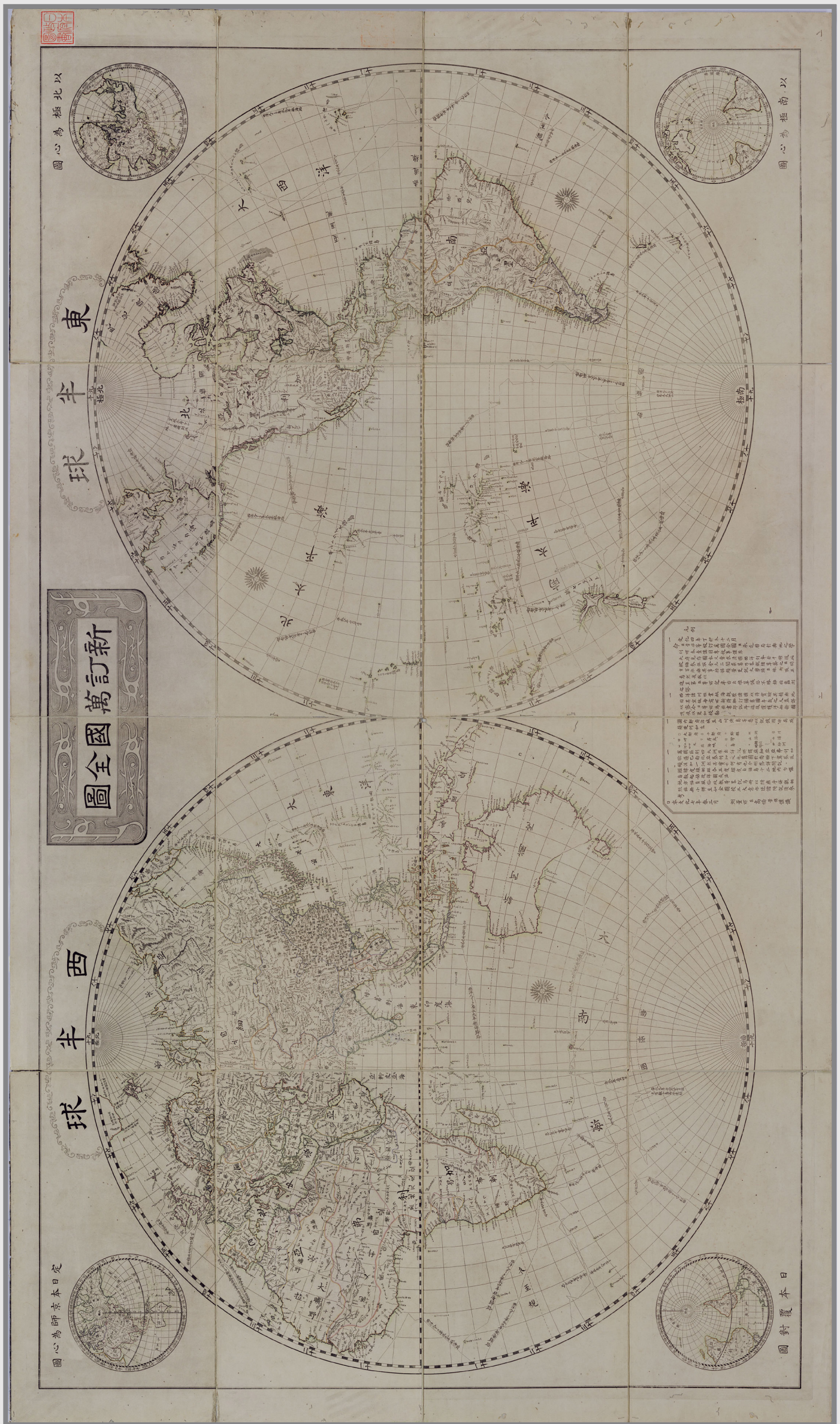
45

신정만국전도 新訂萬國全圖

제작자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발행연도 1810년
 크기 199×114cm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1810년 막부의 명령으로 제작된 대형의 「신정만국전도」는 동서 양반구(兩半球)로 이루어졌다.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해도와 각종 탐사 지도, 일본의 탐험 성과 등 최신 자료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 지도는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정확한 세계 전도로 꼽힌 최고의 역작이었다.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와 달리 좌측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서반구, 우측에 남북아메리카 중심의 동반구로 구성되었다. 저지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도의 거의 중앙에 오도록 고려했다. 이 지도에서는 한반도 동측에 조선해(朝鮮海)가,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 대일본해(大日本海)가 표기되었다.





46

신제여지전도

新製輿地全圖

제작자 미쓰쿠리 쇼고(實作省吾)
 발행연도 1844년
 크기 122×35.5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의 범례에는 1835년의 프랑스판 지도가 원도라고 적혀 있지만, 지도의 형상과 지명은 대부분 1810년의 관찬 「신정만국전도」와 일치한다. 「신정만국전도」는 동판인 반면 이 지도는 목판으로, 최신 내용이 세밀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신제여지전도」를 완성하면서 세계 지리서 『곤여도식(坤輿圖識)』을 간행하여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 및 세계 지리 지식의 계몽에 이바지했다. 이 지도는 정치 구획이 엄밀하며, 각국의 속령에 대해서는 가타카나를 부호로 써서 소속 본국을 명확히 표시한 점이 특색이다. 바다 명칭을 보면, 「신정만국전도」와 동일하게 한반도 동측에는 조선해(朝鮮海),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가 기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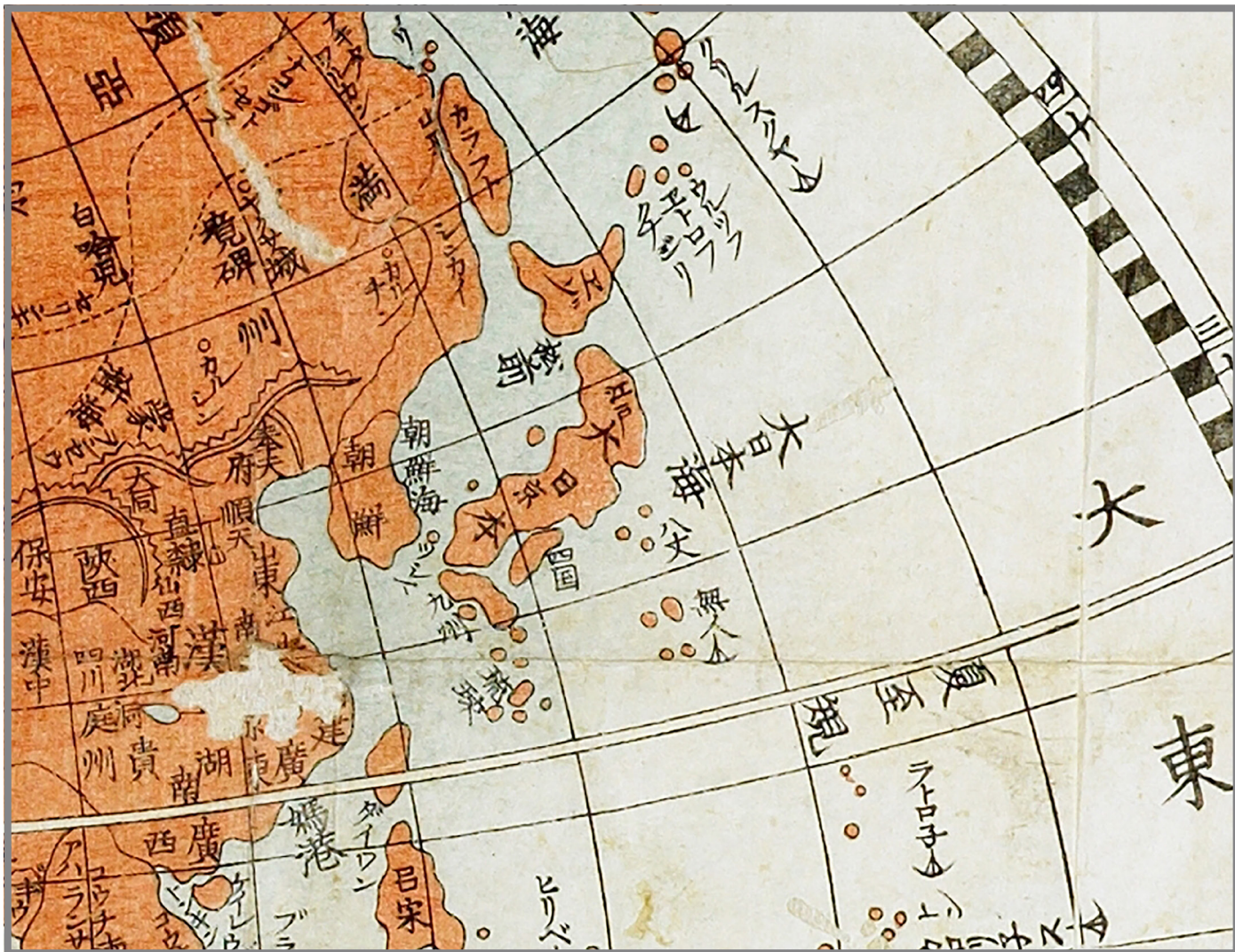
47

동서지구만국전도

東西地球萬國全圖

제작자 구리하라 노부아키(栗原信晁)
 발행연도 1848년
 크기 64×3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구리하라 노부아키가 「신제여지전도」를 바탕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는 지도에 대한 설명에서 “이 지도의 원도는 1835년 프랑스인이 만든 것이며, 지도 제작이 색다르고 자획이 가늘고 작아 모사하기에 불편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1844년 미쓰쿠리 쇼고의 「신제여지전도」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는 분명히 「신제여지전도」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양반구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도의 형상과 지명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명 가운데 「신제여지전도」에 없는 것이 「신정만국전도」에는 보이므로 지도 제작 시 「신정만국전도」도 참고한 것이다. 한반도 동측에는 조선해(朝鮮海),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東半球圖

西半球圖

地界彩色	
紅色	亞細亞洲
黃色	歐羅巴洲
淡紅色	亞非利洲
青色	亞墨利洲
綠色	亞墨利洲
老虎	亞墨利洲
淡石	亞墨利洲
黑色	夜國界

心中為都京本日以

心中為極北以

日本震對

心中為極南以

圖及說 東原信泉 再校

書肆 京都大傳馬町二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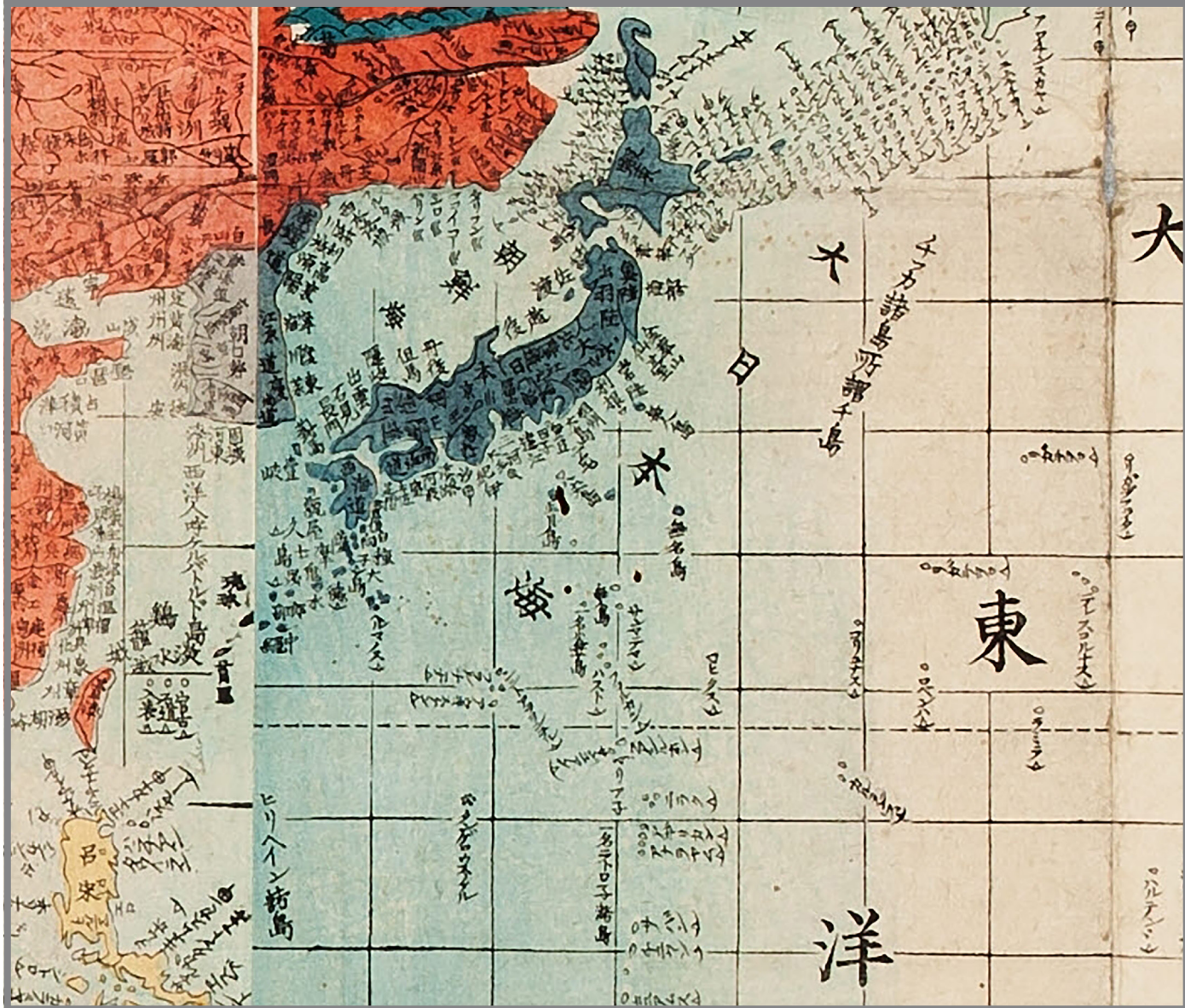
48

지구만국방도

地球萬國方圖

제작자 나카지마 스이도(中島翠堂)
 발행연도 1853년
 크기 124.5×64.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막부 말기에 방안 도법(方眼圖法)으로 간행된 최초의 세계 지도이다. 당시 서구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위선 간격이 확대되는 메르카토르(Mercator) 도법을 사용했는데, 일본에서는 방안 도법을 사용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 지도의 형상과 지명, 범례의 문장은 1810년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신정만국전도」를 답습했다. 「신정만국전도」와 그 계통의 여러 지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으로 조선해(朝鮮海)가 조선 가까이에 표기되었다. 그런데 나카지마 스이도의 「지구만국방도」는 「신정만국전도」를 답습하면서도 조선해(朝鮮海)를 동해 해역의 중앙에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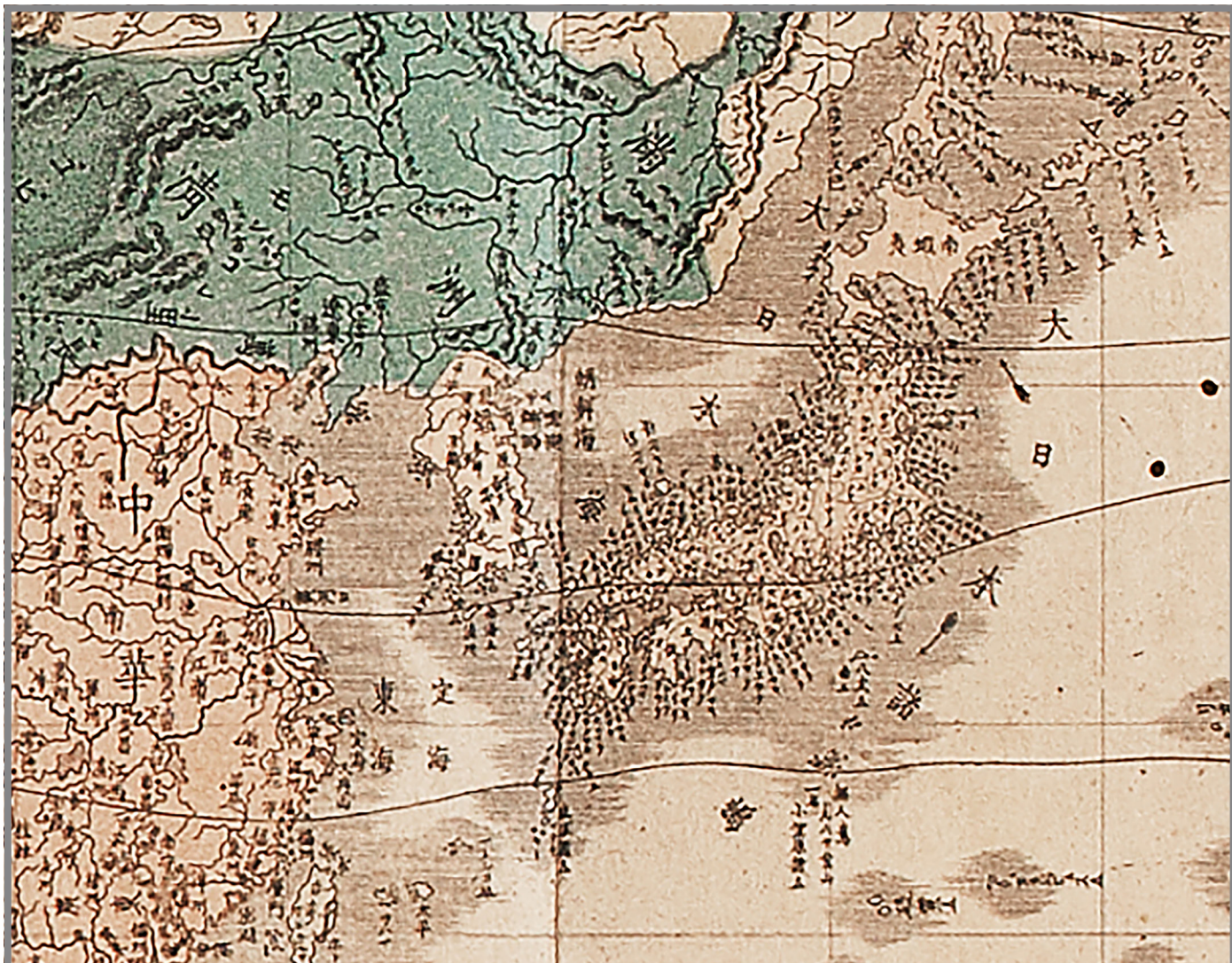
49

지구만국방도

地球萬國方圖

제작자 마쓰다 로쿠잔(松田綠山)
발행 연도 1871년
크기 96.5×69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천문학자 미첼이 편술한 것을 하시메즈 간이치(橋爪貫一)가 교정하고 마쓰다 로쿠잔이 동판한 것이다. 마쓰다 로쿠잔은 메이지 초기의 동판 화가로 활동하면서 명승지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1874년에는 현현당(玄玄堂)이라는 조각사를 설치하여 동판화와 석판화의 보급 및 서양화가 육성에 힘썼다. 이 지도에서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며, 지도 외곽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다. 조선의 형상은 부정확하지만, 일본은 비교적 정확하고 지명도 상세하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은 조선 동측에 조선해(朝鮮海), 일본 서측에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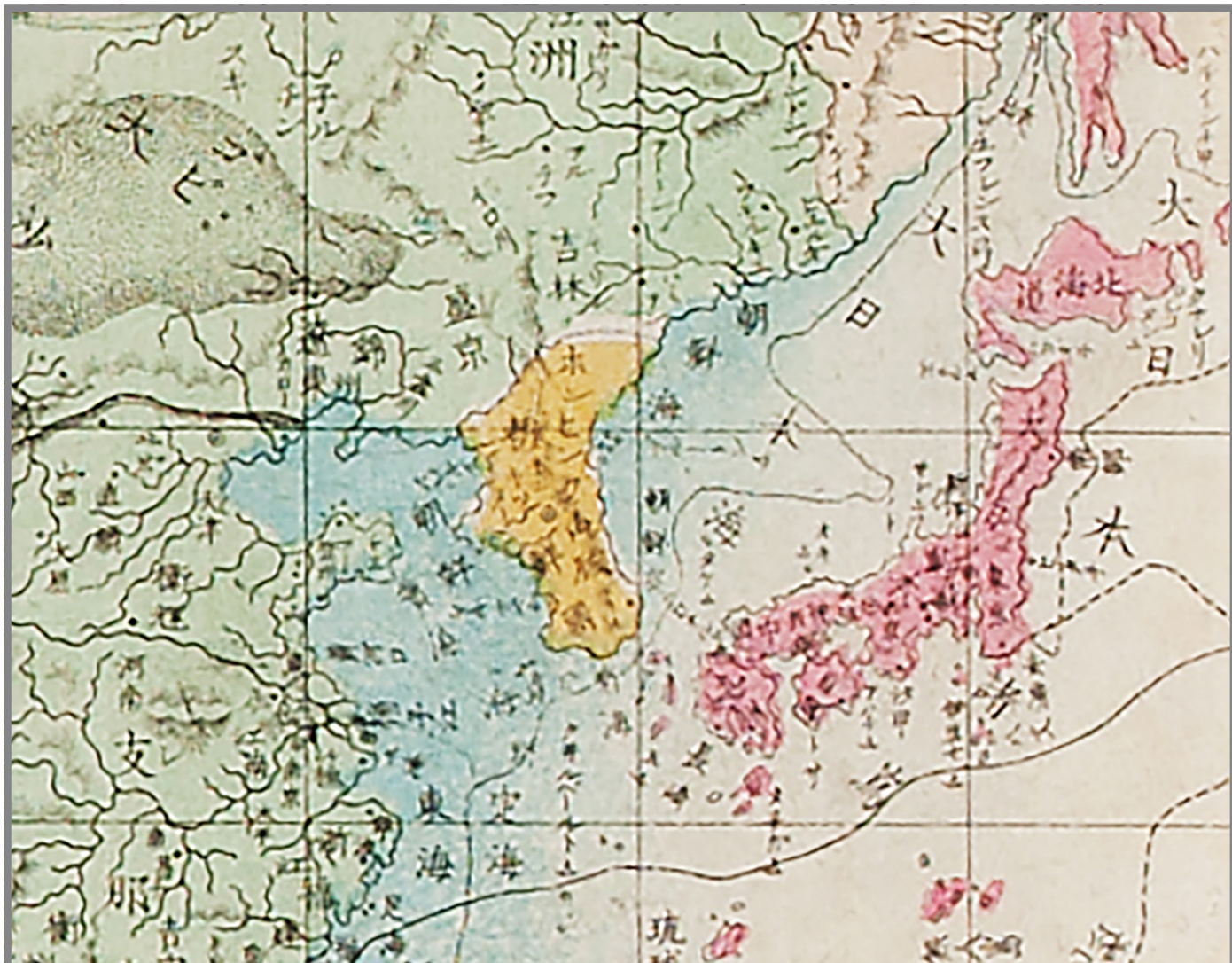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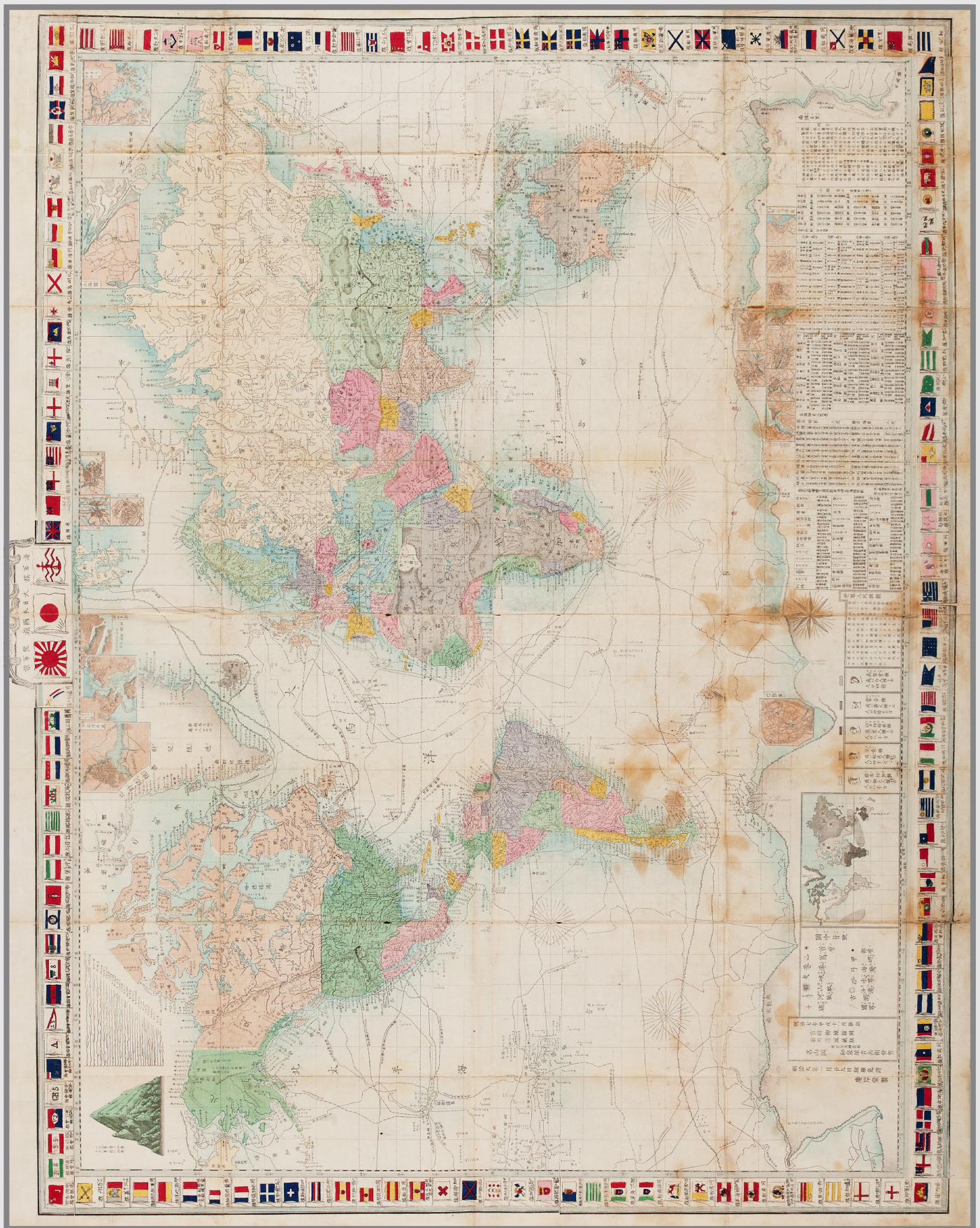
50

만국신도 萬國新圖

제작자 미야자키 류조(宮崎柳城)
발행 연도 1874년
크기 87.2×65.3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영국에서 간행된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1874년 미야자키 류조가 완성한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지도의 중앙에 놓여 있고, 남북아메리카는 우측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등 아시아는 좌측에 위치한다. 이 지도는 항해 목적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양의 형세는 상세한 편이나 내륙은 간략하게 묘사되었다. 지도 하단에는 주요 인종의 형상과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가지를 약도로 나타내었다. 이 지도는 다른 지도와 비교하여 해로나 해양 지명 등이 상세한 편이다. 바다 명칭은 한반도 북동부와 연해주에 걸쳐서는 조선해(朝鮮海)로, 동해 해역의 중앙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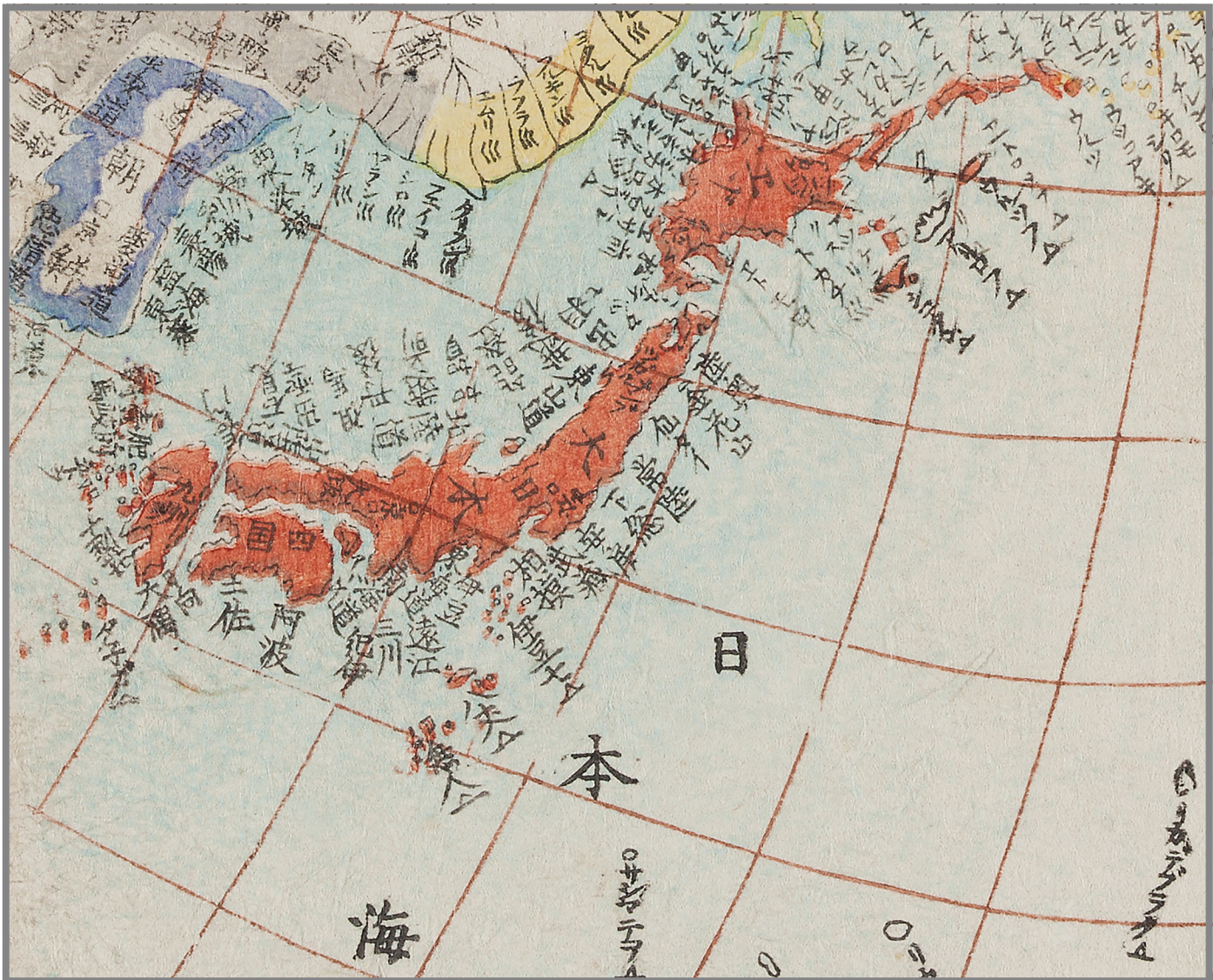
51

『지구만국분도』 내 아세아주지도

『地球萬國分圖』, 亞細亞州之圖

제작자 하시모토 교쿠란(橋本玉蘭)
 발행 연도 1854년
 크기 25.6×18.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이 지도는 『지구만국분도』라는 소형 세계지도집에 수록된 것이다. 지도집에는 동반구도를 비롯하여 동서 양반구도, 육대주 각 지도(아시아는 2장) 그리고 마지막에 서양의 탐험항해사에 관한 기술이 있다. 육대주의 각 지도는 상세하고 정밀한 편이다. 이 지도집을 1810년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신정만국전도」와 비교해 보면, 세계 지도의 형상과 지명이 대부분 일치한다. 그 외에도 미쓰쿠리 쇼고의 「신제여지전도」, 시바타 슈조의 「신정곤여약전도」를 참고한 흔적이 보인다. 이 「아세아주지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에 아무런 명칭 표기가 없고, 단지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 일본해(日本海)가 기재되었다. 일본열도 동쪽 바다에 일본해(日本海)를 표기하는 방식은 「신정만국전도」 계열 지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52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

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제작자 다케다 가쓰지로(武田勝次郎)
 발행 연도 1882년
 크기 105×96.5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 지도는 1868년에 제작된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의 「대일본사신전도(大日本四神全圖)」를 바탕으로 1882년 다케다 가쓰지로가 모사한 것이다. 일본열도는 혼슈에서 류큐까지 나타냈지만, 북부의 홋카이도는 제외되었다. 서쪽에는 조선과 청나라 일부를 그렸는데, 한반도와 주변 섬들의 형상은 왜곡이 심한 편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은 조선 가까이에 조선해(朝鮮海), 일본 서쪽에 일본서해(日本西海)로 표기하였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독도는 남동쪽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현되었다.

